

광주의 오월을 여행하는 들불지기를 위한 안내서



(사)들불연사기념사업회

목차

▶ 5.18 캠프 표준 일정표

▶ 5.18 민중항쟁의 역사적 배경 1

- YH무역사건
- 부마항쟁
- 10.26 사태
- 12.12 군사반란
- 서울의 봄

▶ 5.18 민중항쟁의 전개과정 6

- 1980년 5월 14-16일, 민족민주화 대성회
-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
- 1980년 5월 18일, 피의 일요일
- 1980년 5월 19일, 확대되는 시위
- 1980년 5월 20일, 일어서는 시민들
- 1980년 5월 21일, 잔인한 학살
- 1980년 5월 22-25일, 해방광주
- 1980년 5월 23-24일, 인륜을 저버린 학살사건
- 1980년 5월 26일, 고뇌하는 광주
- 1980년 5월 27일, 최후의 항전

▶ 오월, 그날의 장소들 16

- 금남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 최후의 항전지, 구 전남도청
- 5.18 민주화운동의 발원지, 전남대학교
- 5.18 자유공원

▶ 임들이 계신 그 곳, 국립 5.18 민주묘지 48

▶ 5.18 민중항쟁이 남긴 것들 62

- 피해
- 오월, 그 이후
- 임을 위한 행진곡
- 진실을 알린 사람들
- 심판대에 선 학살자들
- ‘황금동 여성들’ 그리고 콜박스 사거리

▶ 들불 7열사를 기리며 90

5.18 캠프 표준 일정표

시간	장소	프로그램
1 일차		
10:00	OT장소	* 이끄미 및 사전 스탭
11:00	OT장소	* 집결
11:00 -12:20	OT장소	1. 오리엔테이션 - 아이스 브레이킹 & 조별 자기소개 등 2. 조별 미니 OT
12:30 -13:30	식당	점심식사
13:40 -14:50	5·18 민주광장	1. 한눈에 보는 5.18 5.18 기록관 2. 5·18민주광장으로 단체 이동, 현장답사 안내 3. 오월현장답사 ①최후의 항전지_ 구 전남도청 4. 단체사진 촬영 4. 버스 탑승 : ACC 앞
15:00 -15:15	버스	5·18 민주광장 → 전남대
15:15 -16:15	전남대학교	1. 전남대 정문 하차 2. 5월 현장 답사 ② 5·18민주화운동의 최초발원지_ 전남대학교 (정문-박관현로-박관현 열사 혁명정신계승비 -윤상원 열사 공원- 김남주기념홀-교육지표사건 기념비-사범대 1호관 광주민중항쟁도-임을 위한 행진조형예술작품) 3. 버스 탑승 : 5·18 기념관 앞
16:15 -16:45	버스	전남대 -> 국립5·18민주묘지
16:50 -17:30	국립5·18 민주묘지	1. 5월 현장 답사 ③ 임들이 계신 그 곳_ 국립5·18민주묘지(신묘역) ·추모식 ·임을 위한 행진곡 ·비문 읽기 2. 5·18 추모관 관람
17:30 -18:00	버스	국립5·18민주묘지 -> 5·18 교육관

0		
18:00 -19:00 0	숙소	1. 숙소 배정 2. 저녁 식사
19:00 -21:00 0	숙소	5.18퀴즈 골든벨을 울려라! & 공동체놀이
21:00 -21:30 0	숙소	5·18 사람책과의 만남 : 80년 당시 고등학생, 김상호 선생님
21:30 -	숙소	야식과 함께하는 이야기시간
	숙소	자율 - 취침/심야영화제/이야기
2 일차		
8:00- 9:00	숙소	기상 및 식사
9:00- 9:20	숙소	오전 몸 풀기
9:20- 10:50	5·18 자유공원	1. 5월 현장 답사 ⑤ 5월의 아픔을 간직한 곳_ 5·18 자유공원 ⑥ 들불야학 7 열사 기념비 2. 단체사진
11:00 -12:00 0	5·18 자유공원	CF 만들기 등 캠프 미션
12:00 -13:00 0	숙소	점심식사
13:00 -14:00 0	숙소	한줄 시 쓰기, 내년 5월 나에게 쓰는 엽서, SNS후기
14:00 -	숙소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5.18 민주항쟁의 역사적 배경

- YH무역사건
- 부마항쟁
- 10.26 사태
- 12.12 군사반란
- 서울의 봄

1. YH무역사건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할 때 '박정희 시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80년이라는 역사적 배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이전 시대를 어느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희는 1960년 4.19 민주혁명으로 수립된 제 2공화국을 군사쿠데타로 무너뜨린 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발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18년간 철권통치를 펼쳤습니다. 당시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통한 이윤추구와 수출중심의 대외 의존적 성장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임금을 억압함과 동시에 이에 저항할 수 있는 노동3권을 완전히 봉쇄하였습니다. 이같은 정책이 많은 저항에 부딪히자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을 발표하여 제 4공화국을 수립함과 동시에 민주선거를 완전히 폐지하고 체육관선거를 확립했습니다.

1979년은 박정희 정권의 집권 18년차였습니다. 그해 중순부터 그간 쌓여왔던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79년 3월 29일,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이윤을 축적해오던 당대의 대표산업 중 하나인 가발회사 YH무역의 폐업 공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여공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회사 측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8월 6일, 폐업공고를 확정했습니다. YH노동자들은 야당인 신민당에 도움을 호소하였고 8월 9일부터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측은 8월 11일을 기점으로 신민당사에 난입하여 농성을 강제해산하고 노동자들을 연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집행위원이었던 김경숙 열사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영삼 총재와 신민당 의원들도 폭행했습니다. 분노한 김영삼 총재는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이를 발단으로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하게 되었습니다



2. 부마항쟁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의원의 발언에 분노한 여당의원들은 김영삼 의원 제명안을 국회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켰습니다. 10월 13일, 이에 분노한 신민당 의원 66명 전원은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10월 15일, 유신헌법으로 여당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그런 의원들이 야당총재를 제명하기에 이르자 분노한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된 시위는 부산대, 동아대에 이어 마산까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0월 18일을 기점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육군 특전사를 투입했습니다. 여기에는 불과 7개월 후, 광주를 피로 물들인 3공수여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마산 완월동에 살던 건설노동자 유치준씨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나흘간의 시위 결과 부산과 마산에서 1,563명이 체포되었고 시위는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3. 10.26 사태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암살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는 김계원 비서실장 역시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이에 대한 최후진술에서 불과 1주전에 발생한 부마항쟁에 대한 대처를 놓고 차지철 경호실장이 "캄보디아에서는 200~300만명을 죽였는데 여차하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4.19 당시에는 최인규나 곽영주 같은 장관들이 발포명령을 하여 사형 당했지만, 내가 직접 발포명령을 한다면 나를 누가 사형시키겠냐"고 동조하는 것을 듣고 암살을 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총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18년만에 총에 의해 권력을 잃게 됩니다.



4. 12.12 군사반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날 0시를 기점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계엄정국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26 사건 이후 한국 사회의 중앙권력에는 큰 공백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던 비서실, 경호실, 중앙정보부의 주요 인사들이 사망하거나 사건에 관련되어 조사받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이에 온전히 권력을 유지하던 군부의 실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10.26 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전두환의 배후에는 '하나회'라고 불리는 군내 사조직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육군사관학교 11기 이후 기수 출신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육사 11기는 1951년에 입학하여 1955년에 졸업한 이들로, 처음으로 정규 4년제 교육과정을 거치고 준장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첫 4년제 출신들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특유의 엘리트의식을 형성하였으며 군내 사조직을 형성하여 군부의 상층부에서 암약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육사 11기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이 있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하나회를 필두로 한 군내 사조직은 마침내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체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병주 특전사령관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이 저항하자 무력으로 이들을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오랑 소령이 반란군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조선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 일반 사병으로 입대했던 정선엽 병장 역시 불과 5개월 뒤 그의 고향을 피로 물들일 군인들에 의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군부는 이로써 군내 대항 세력을 모두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회를 비롯한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 당시 저지른 범죄는 가히 창군 이래 최악의 범죄였습니다. "반란수괴, 내란목적살인, 상관살해, 초병살해, 불법진퇴" 등 가장 무거운 군형법상의 범죄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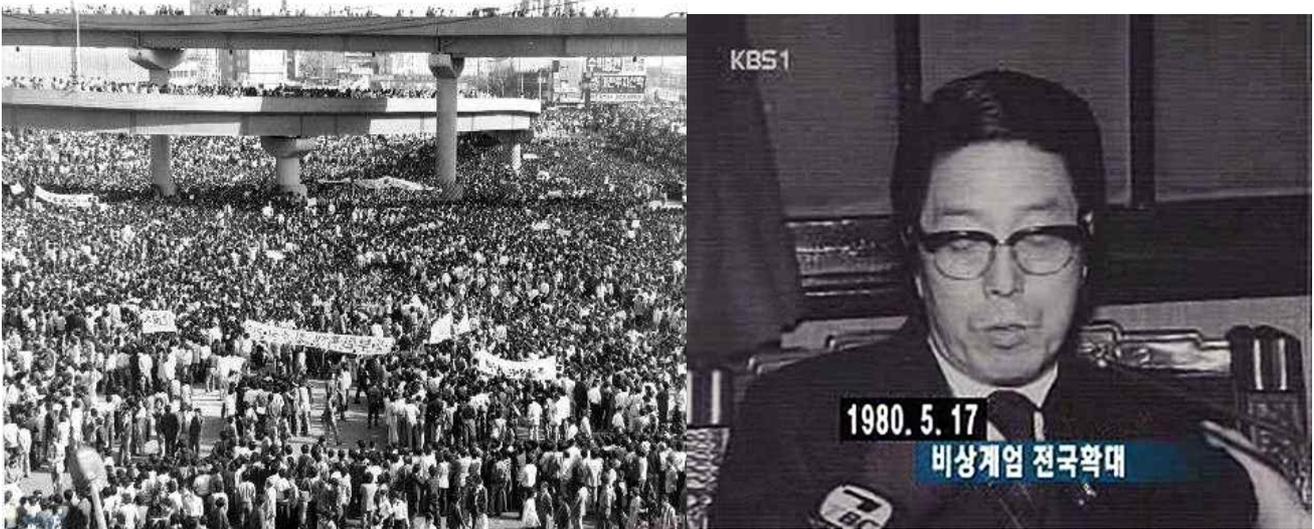


5. 서울의 봄

전두환 일당은 육군참모총장 체포 이후 권력 장악 계획을 속속 실현시켜갔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박정희 사후 민주정부가 수립될 거라는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프라하의 봄'에 비유하여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노동쟁의가 터져나와 무려 897건에 달하였고 신규노조들의 깃발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3월, 대학가가 열리자 총학생회들이 속속 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5월 2일, 서울대 개교 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된 비상학생총회장에서 '유신철폐', '계엄해제' 등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이 결의되었습니다. 5월 9일에는 전국주요대학의 총학생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마침내 5월 14일, 대학생들은 일제히 거리로 진출하여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5월 1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이어진 시위에는 10만명 이상의 시민이 모여 민주화일정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소재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향후 진행에 대해 고심했는데, 그중 국회가 열리면 계엄은 자연스럽게 해제될 터이니, 군부를 더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큰 힘을 받았습니다. 결국 서울대 대의원회 의장 유시민과 같은 반대의 입장들도 존재했으나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정리되었고,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의 발표에 따라 가두시위는 이틀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일명 서울역 회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계엄령이 확대될 경우 다음날 아침에 각 대학교의 정문에서 만나자.."

그러나 신군부는 끝내 서울의 봄 기간에 확인된 민중들의 저항을 짓밟을 계획을 실행시키고자 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전국지휘관회의가 개최되었고 신군부측 인사들은 박정희 사후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에 선포된 지역계엄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비상계엄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의견은 묵살되었으며 이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중앙청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을 포위한 채 비상계엄 전국확대안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의 봄은 프라하의 봄처럼 짧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5.18 민중항쟁의 전개 과정

- 1980년 5월 14-16일, 민족민주화 대성회
-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
- 1980년 5월 18일, 피의 일요일
- 1980년 5월 19일, 확대되는 시위
- 1980년 5월 20일, 일어서는 시민들
- 1980년 5월 21일, 잔인한 학살
- 1980년 5월 22-25일, 해방광주
- 1980년 5월 23-24일, 인륜을 저버린 학살사건
- 1980년 5월 26일, 고뇌하는 광주
- 1980년 5월 27일, 최후의 항전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

1979년, 5·16 군사반란 이후 18년간 장기집권을 이어왔던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었다. 긴 겨울의 끝,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새시대를 기대했다. 그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학생들은 대학별 총학생회를 만들었다. 5월이 되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1980년 한국에 찾아온 짧았던 봄을 체코 ‘프라하의 봄’에 빗대어 ‘서울의 봄’이라 부른다.

1980년 5월, 광주도 여느 도시와 다르지 않았다. 서울의 대학생들이 가두시위를 시작함과 동시에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들도 거리로 나와 ‘계엄해제’와 ‘민주주의’를 외치기 시작했다. 서울의 봄이 전개되던 시절에는 이미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와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었다. 들불야학 강학이었던 박관현이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5월 14일과 5월 15일, 전남대학교 정문을 시작으로 전남도청까지 행진하는 가두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들은 평화적으로 행진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이에 호응했다. 광주지역의 노동자들 역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로켓트 건전지 노동조합을 결성한 여성노동자 1,800명은 살레시오 고등학교에서 대규모 강연회를 개최한 후 대학생들이 가두시위를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모아서 빵과 우유를 전달했다. 이 당시 박관현이 했던 연설은 현재까지도 명연설로 회자되고 있다.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는 이 나라에, 인간노릇을 못하고 노예와 같이 굴종거리며 움메여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이제는 민주화시대를 맞이하여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최선을 그르칠 수 없어서 다같이 동참하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5월 16일, “이 이상 군부를 자극하여 빌미를 주지 말자”고 결정한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서울역 회군을 발표하고 가두 시위를 중단했다. 그러나 전남대, 조선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의 학생들은 이날도 시위를 계속했다.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은 전남도경국장 안병하에게 야간 횃불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날 밤, 광주 시민들이 전남도청 앞 분수대를 중심으로 횃불시위를 진행했다. 불과 이틀 후 광주에 닥쳐올 참극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점이었다. 마지막 집회가 횃불집회로 진행된 것은, 밤하늘을 밝히는 횃불과 같이 명명백백하게 나아갈 길을 밝히자는 의미였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되어 있던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95개 대학에 특전사 군인들이 배치되었다. 신군부는 허황된 ‘신남침설’ 등을 주장해 왔으나 그들의 군대는 저항의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5월 17일 저녁 무렵이 되자 군부는 미리 점찍어둔 민주인사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군부는 이때부터 총 2,699명의 민주인사를 체포했다. 김대중, 김종필, 정동년, 유시민, 이해찬 등 민주주의와 관련된 활동과 연관이 있는 이들은 모두 연행되었다. 군부는 당시 이화여대에서 진행되던 전국 총학생회 대표자 회의장을 급습해 학생 대표들을 연행했다. 이때 전국 55개 대학 학생대표 95명이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이들 중 일부

는 체포 직전 전국 각지에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달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에도 “군인들이 회의장에 왔다 너희도 어서 피하라”는 소식이 전달되었다.

전국 학생대표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즉시 계림동 대주호텔로 피신했다. 광주지역의 사회운동을 주도했던 민청학련 사건의 주역, 윤한봉 역시 몸을 피했다. 그와 함께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바 있는 김상윤은 녹두서점 앞에서 군인들에게 체포되었다. 박관현은 총학생회에 남은 인원을 피신시키기 위해 양강섭 총무부장을 전남대로 보냈다. 양강섭이 총학생회장실에서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계엄군이 들이닥쳤다. 7공수여단 33대대였다. 양강섭 총무부장 등 3명은 중앙도서관을 거쳐 학교 뒤로 피신했다. 이승용 부총학생회장 등 4명은 공대쪽을 거쳐 피신하려고 했으나, 퇴로가 막혀 건물에 은신하였고 결국 군인들에게 체포되었다.

1980년 5월 18일, 전남대 정문 앞에 모여든 학생들의 시위를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학생들은 금남로를 향해 행진했고 광주 전역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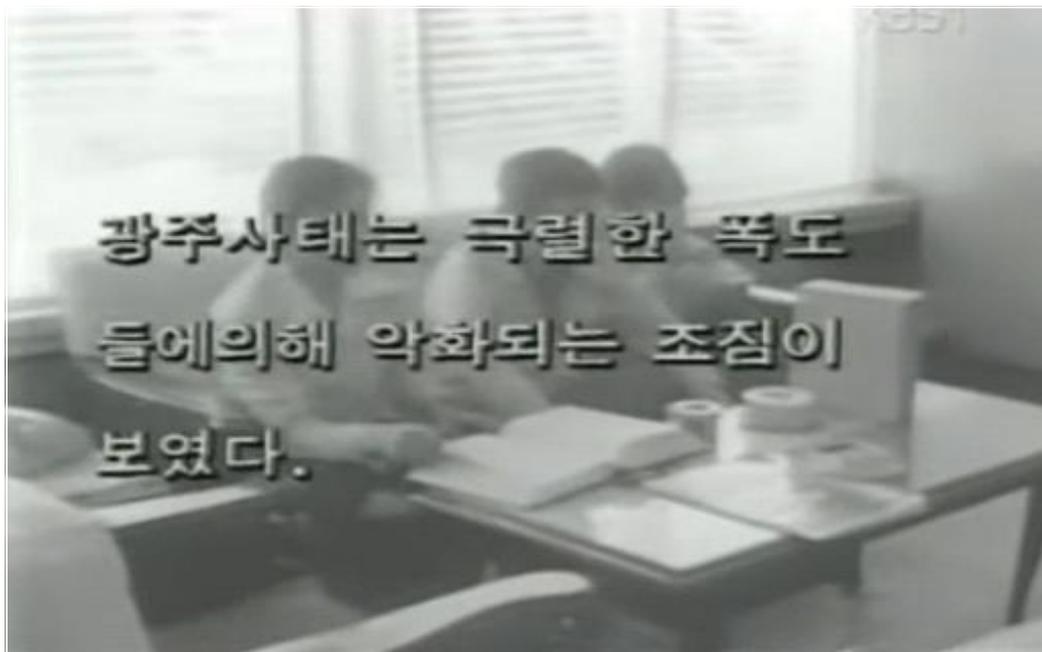
1980년 5월 19일, 전날 군인들이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시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학생들을 때리지 말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군인들은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해산시키고 체포했다. 군인들은 시민들을 옷을 벗겨서 연행하고 심지어는 대검으로 찌르기 시작했다. 한 군인이 다친 학생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택시에 태우던 택시기사를 대검으로 찌른 일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날 공수부대는 최초의 발포를 했다. 광주 인근에서 장갑차에 타고 있던 한 장교가 M-16 소총을 발포했고 19살 김영찬씨가 총상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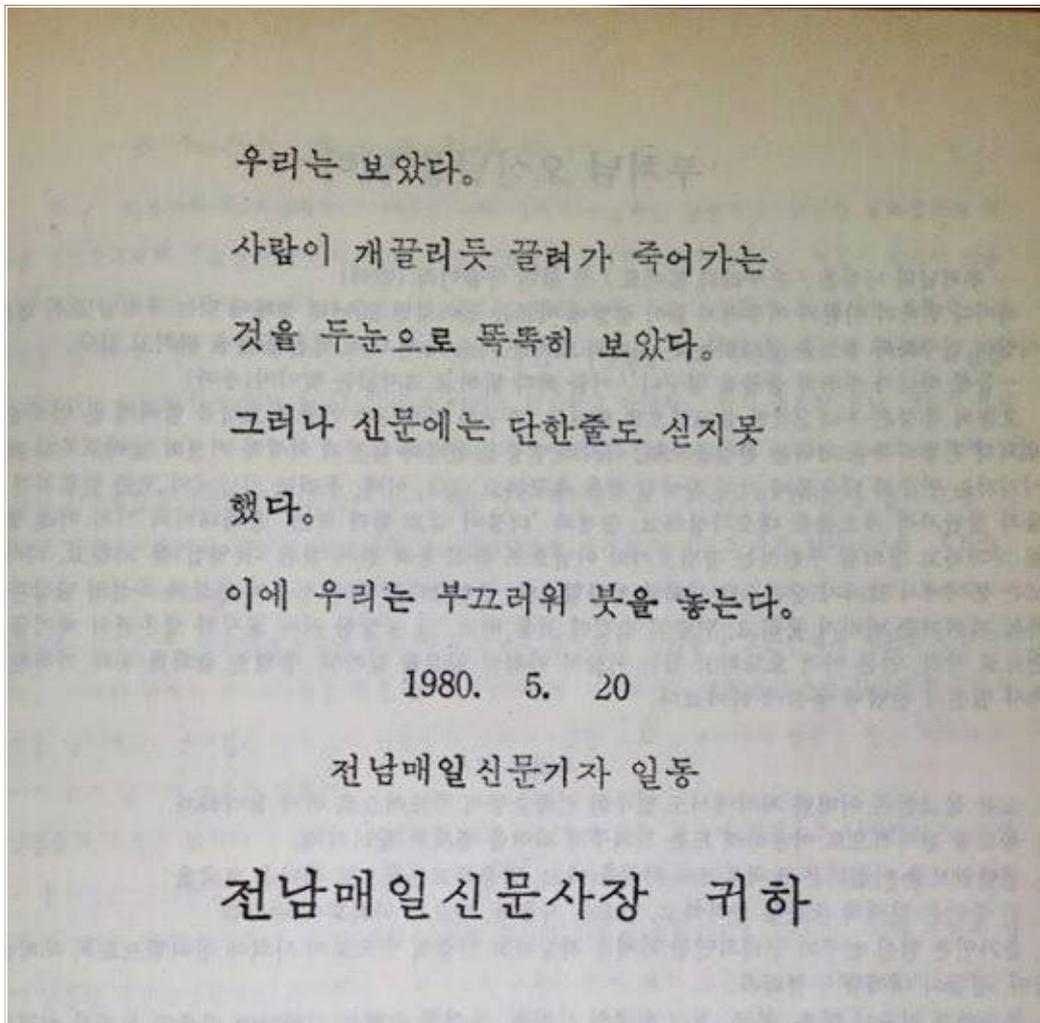




1980년 5월 20일.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군부는 광주에 3공수여단을 증파했다. 군인들은 곳곳에서 곤봉과 대검과 M16 소총으로 잔인한 살상행위를 이어나갔다. 시민들은 무장한 특수부대 군인들의 폭력 앞에 무력했다. 오후 6시, 분노한 버스와 택시 200대가 차량시위에 나섰다. 그들은 계엄군의 폭력을 비토하듯, 무등경기장에서 도청까지 경적을 울리며 차량시위를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차량행진에 뒤따랐다.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한편, 광주의 저항이 심상치 않자 언론에도 광주의 소식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진실을 외면한 언론들은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 극렬한 폭도들에 의해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등의 왜곡 보도를 자행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광주 MBC를 불태웠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계엄군이 광주 MBC에서 철수한 직후 불이 났다는 증언등이 있어 계엄군이 시민들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방화했다는 설도 존재한다. 훗날 광주 MBC는 ‘5.18 왜곡보도 반성문’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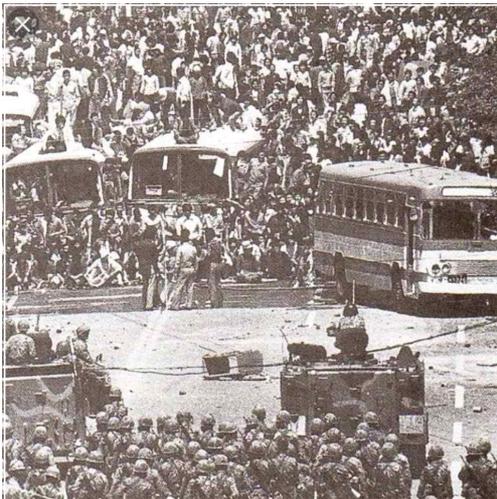


계엄군의 학살에 대한 보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낀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은 이에 대한 반성의 내용을 담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5월 20일 밤, 시민들이 광주역에서 시위를 진행하자 군인들이 광주역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이날 계엄군이 광주역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발포를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6명이 사망했고 많은 시민들이 총상을 입었다. 이날 군부는 3, 7, 11 공수여단으로도 모자라 양평의 20사단을 광주역으로 증파했다. 군인들의 발포는 20사단 도착시 시민들의 시위가 방해가 될 것을 우려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날 있었던 계엄군의 집단발포는 5월 19일에 있었던 군장교의 우발적인 발포와 달리 의도적인 행위였다.

5월 20일,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가 권력의 대민발포를 4.19 혁명 이후 20년만에 또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1980년 5월 21일, 분노한 시민들이 도청 앞 금남로에 결집하기 시작했다. 어제 광주역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고 세상을 떠난 두사람의 시신이 리어카에 실려 금남로에 왔다. 광주역의 진실을 목격한 시민들이 호소했다.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분소 측은 단 한사람의 사망자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의 형제가 그들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계엄군은 실탄을 장전하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오후 1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발포는 메가폰으로 사격중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10여 분간 지속되었다. 옥상의 저격수들은 버스 위에 올라탄 시민들을 정확하게 살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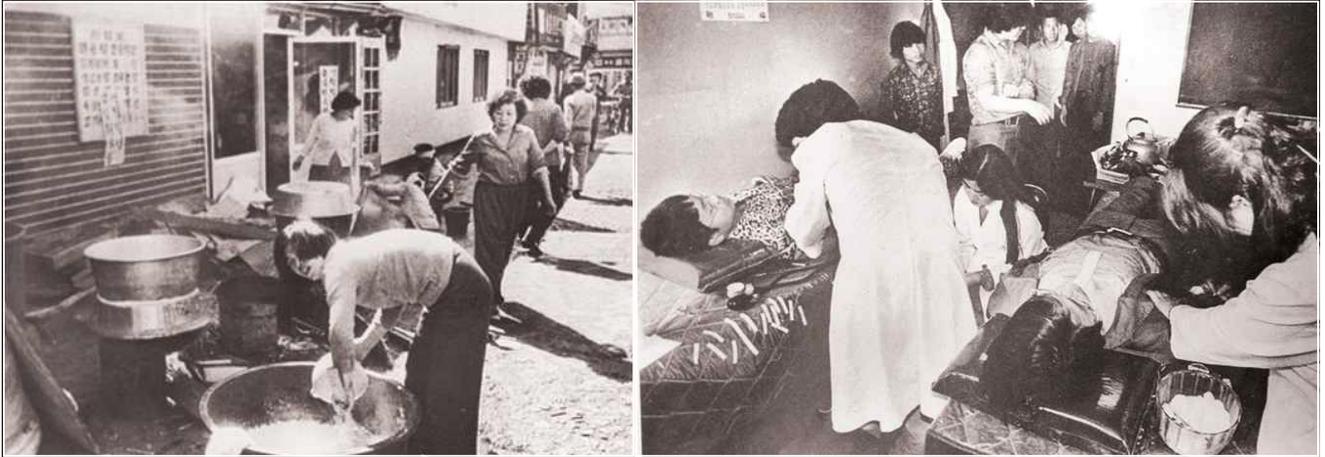
이날 사망한 광주시민이 몇 명이었는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명백한 것은, 이들의 행위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었다는 사실이다.

분노한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기 시작했다. 계엄군은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한 직후 즉시 광주외곽으로 철수했다. 5월 21일 오후 5시 30분, 계엄군은 전남도청에서 철수했으며 광주외곽으로 이동하여 광주를 철저히 봉쇄했다. 광주는 고립무원의 외로운 섬이 되었다.

계엄군에 포위된 외로운 광주. 계엄군은 총을 손에 쥔 시민들이 ‘극렬한 폭도’의 행위를 할 것을 원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마지 않았을 사건들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시민들은 도시를 청소했고 서로를 위로하며 음식을 나누었으며 자발적으로 치안을 유지했다. 다친 이들을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줄지어 헌혈을 하던 이 시기를 우리는 ‘해방광주’라고 부른다.



한편, 광주지역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시민수습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계엄사 측에 사망자 명예회복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무기 회수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수습대책위의 행보에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5월 22일 분수대에 걸집한 시민들 앞에서 “여러분 지금 당장 총기를 모두 반납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계엄사에 치안을 맡겨야 합니다!”라는 장휴동 수습대책 위원의 발언이 터져나오자 분노한 시민들의 야유가 쏟아졌으며 김종배씨가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기까지 했다. 전일빌딩과 YMCA 옥상에 있던 시민들은 하늘로 공포탄을 발사하며 이에 동조했다.

이때 마이크를 빼앗은 대학생 김종배씨가 도청 앞 남도회관에 모여있는 대학생들에게 “이번 사태는 대학생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며 학생수습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5월 22일 오후 4시 학생수습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학생수습위는 위원장 김창길, 부위원장 김종배, 총무 정해민, 대변인 양원식, 무기수거반 허규정, 고문 명노근 송기숙 등으로 구성되었다.

도청에 모인 시민들의 요구는 분명했다. “이번 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러야 한다.”, “계엄사는 이번 일이 ‘폭도들의 난동’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번 일은 전 시민의 의지였으므로 계엄사는 광주시민을 폭도로 규정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구속자는 석방되어야 한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함성이 도청 앞 광장을 가득 채웠음에도 도청 내부의 갈등은 심화되기 시작했다. 무기반납을 주장하는 온건파와 수많은 시민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대로는 도청을 내어줄 수 없다는 강경파의 강온대립 때문이었다.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의 한계는 명확했고 차츰 시민들의 불만도 고조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1980년 5월 26일에 터지게 되었다. 계엄군이 5월 26일 24시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다음날 새벽 광주로 진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이에 수습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유지들이 도청에 모여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강온파가 각자의 의견을 말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국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진통 끝에 다수결로 “무기를 모두 반납하자”고 결정했다. 조아라, 이애신, 윤공희 등의 위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의실을 나갔다. 그러나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들은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리를 정리하려는 순간 박남선과 윤석루가 권총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왔다.

"지금에 와서 싸움을 멈추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이다. 광주시민의 피를 팔아먹는 행위이다. 우리는 매일 쫓기대회에서 시민들의 함성을 듣지 않았느냐?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 계엄사에서 우리의 요구조건을 들어준 것이 무엇이나?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항복을 한단 말이나?"

회의가 이렇게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윤상원이 박남선과 함께 끝까지 싸우기를 결의하고 조직한 기동타격대원들을 불러와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이었다. 결국 수습위원들 중 일부는 귀가하였고 남은 사람들은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학생수습대책위원회는 조직을 재편했다. 김종배가 위원장을 맡았고 허규정, 정상용 부위원장, 윤상원 대변인, 박효선 홍보부장, 김영철 기획실장, 정해직 민원부장, 이양현, 윤강옥 기획위원, 박남선 상황실장, 구성주 보급부장 등으로 조직이 꾸려졌다.

시민들에게도 내일 새벽 계엄군이 다시 광주로 진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많은 시민들은 도청에 남을 것인가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두고 고뇌했다. 그동안 무죄한 시민들이 쓰러져 가던 모습을 보아왔지만, 도청에 남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가족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죽게될 경우 남겨질 가족 생각에 괴로워했다. 윤상원은 도청에 남은 청소년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달라고 부탁했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싸워주십시오.”

밤 12시, 1980년 5월 27일이 찾아왔다.

그렇게 이 땅의 역사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되었다.

오월, 그날의 장소들

1. 전남대학교 정문 (사적지 1호)

전남대학교 정문은 5.18 민중항쟁이 시작된 곳으로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새벽,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에 따라 전남대에 배치된 계엄군은 도서관 등에 있던 학생들을 무차별로 구타하고 불법구금했습니다. 총학생회 간부들도 체포되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교문에 모여든 학생들은 학교 출입을 막는 계엄군에 항의했고 군인들의 잔인한 구타와 폭력에 분노한 학생들은 금남로와 광주역 등지로 진출해 항의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이는 5.18 민중항쟁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2. 광주역 (사적지 2호)



1980년 당시 광주역에는 지금과 달리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광주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이 송정역과 광천터미널이었지만, 당시에는 많은 계엄군들이 기차를 통해 광주역으로 들어오는 등 중요한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당연히 계엄군은 초창기부터 이곳을 점령하고 있었고 많은 시민들은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밤, 광주역에 주둔하고 있던 3공수여단은 전남대학교로의 철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을 향해 최초로 집단발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최소 6명이 광주역에서 숨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분노한 시민들은 광주역에서 사망한 두 사람의 시신을 리어카에 싣고 금남로로 이동하여 계엄군의 야만적인 학살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3. 구시외버스터미널 일대 (사적지 3호)

현재 신세계백화점 등이 입주해있는 구시외버스터미널 역시 5.18 당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한 곳입니다. 5월 18일, 금남로로 행진한 학생들을 쫓아온 군인들은 버스에 난입하여 학생으로 보이는 이들은 모두 구타하고 끌어냈습니다. 5월 20일까지 이곳에서는 도청 만큼은 아니었지만 계엄군과 시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버스는 5월 21일을 기점으로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4. 금남로 (사적지 4호)

금남로는 도청 앞 광장에서 유동3거리까지 이어지는 긴 도로의 명칭입니다. 5.18 당시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집회를 하던 장소였습니다. 사적비는 5월 18일날 전남대에서의 계엄군의 폭력에 분노한 학생들이 행진했던 5.18기록관(구 가톨릭 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5월 18일과 19일 양일간 금남로를 중심으로 이어진 학생들의 항의에 계엄군은 총칼로 대답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모이기 시작했으며 5월 20일에는 차량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5월 21일, 계엄군은 운집한 시민들을 향해 집단발포를 실시했습니다. 금남로는 피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이후에도 굴하지 않았고 결국 금남로는 민주의 거리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매년 5.18 전야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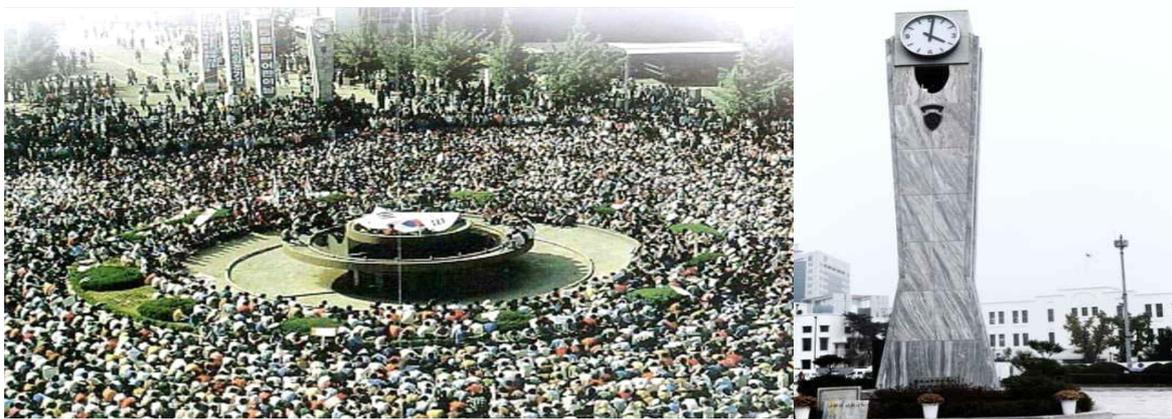
5. 전남도청 (사적지 5-1호)

도청은 5.18 당시 행정기관들이 밀집한 곳이었습니다. 5월 21일, 집단발포 후 계엄군이 도청에서 철수하자 도청은 시민들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도청에 있는 회의실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회의가 매일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27일, 시민들은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켰습니다.



6. 5.18 민주광장 (사적지 5-2호)

5.18 민주광장은 구전남도청 앞 분수대와 시계탑을 포함한 도청 앞 광장입니다. 1980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민족민주대성회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5월 21일까지는 계엄군의 바리케이트에 의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집단발포 후 계엄군이 퇴각하자 시민들은 22일부터 25일까지 매일 1차례씩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26일에는 오전과 오후 두차례가 진행되었습니다. 광주의 열혈을 모두 지켜본 장소였습니다. 5.18이 끝난 후 '시계탑을 알고 있다'는 구호가 널리 퍼지자 군부는 어느날 밤에 몰래 시계탑을 농성공원으로 옮겨두었습니다. 시계탑은 2014년 6월에야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매일 오후 5시 18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생됩니다.



7. 상무관 (사적지 5-3호)

상무관은 5.18 당시 시신이 안치된 장소였습니다. 계엄군이 철수한 뒤 시신들이 자연스럽게 5.18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신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가족들을 찾는 시민들이 광주전역을 헤매고 다니는 문제 등을 감안한 시민들은 도청 앞에 위치한 체육관이었던 상무관에 시신들을 안치했습니다. 5월 22일부터 시신이 안치되었으며 5월 27일을 기준으로 60여구의 시신들이 안치되어 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5월 29일, 상무관에 안치되었던 시신들은 망월동 시립묘지로 이송되었습니다.



8. 광주 YMCA (사적지 5-4호)

광주 YMCA는 5.18 당시 광주의 천주교 인사들의 거점이었습니다. 5월 26일 광주의 참상을 목격한 윤공희 대주교등의 천주교 인사들은 이곳에서 회의를 가진 후 김성용 신부를 서울로 파견하여 김수환 추기경에게 광주의 진실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5월 27일, 최후의 항쟁 당시 많은 시민들은 도청과 더불어 YMCA에도 남았습니다. 계엄군은 YMCA에서 다수의 시민들을 체포했으며 이들을 가혹하게 구타했습니다.



9. 광주 YWCA (사적지 6호)

계엄군이 YWCA에 진입한 건 5월 19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박용준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2층의 양서협동조합 관계자들을 끌고가서 구타했습니다. 학원가의 학생들이 야유를 보내자 계엄군은 이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계엄군이 철수한 후 YWCA는 각종 유인물 제작과 대책회의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박용준, 윤상원 등 들불야학의 인물들은 YWCA에 있던 등사기를 이용하여 ‘투사회보’를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5월 27일, YWCA에도 최후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용준 등 3명은 이곳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맞고 세상을 떠났으며 29명이 체포되어 가혹하게 고문당했습니다.



10. 광주 MBC 옛터 (사적지 7호)

광주 MBC는 5.18 당시 계엄군이 점령한 주요 거점 중 한곳이었습니다. 광주 MBC는 5.18 당시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왜곡방송을 자행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5월 19일부터 광주 MBC에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20일 밤 9시 50분, 광주 MBC는 불에 타기 시작했으며 결국 전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닌 계엄군이 방화를 하고 철수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1. 녹두서점 (사적지 8호)

녹두서점은 5.18 당시 시민들의 회의실, 작업실,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바 있는 김상윤이 녹두서점의 주인이었습니다. 윤상원, 박효선, 김상집 등이 이곳에서 회의를 가지고 유인물을 배포할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터만 남아 있습니다. 녹두서점은 광주 비엔날레에서 재현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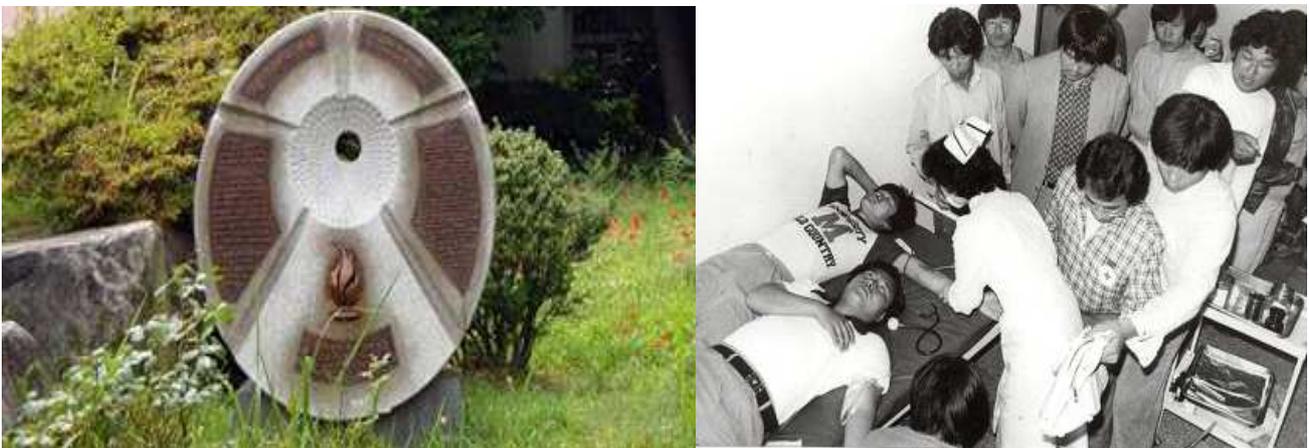
12. 전남대학교병원 (사적 9호)

전남대학교 병원은 5.18당시 부상당한 많은 시민들이 치료를 받던 곳입니다. 특히 5월 21일 집단발포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이송되었습니다. 한때 치료에 필요한 피가 부족하자 헌혈을 호소하는 방송이 광주시내 곳곳에서 진행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헌혈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계엄군은 전남대 병원을 향해서도 무차별로 사격을 가했습니다.



13. 광주기독교병원 (사적 10호)

광주기독교병원은 5.18 당시 10일 동안 부상자들을 치료하던 역할을 했던 병원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병원 간호감독이었던 안성례 여사가 이러한 광경을 증언했습니다. 특히 5월 21일날 광주여상 3학년이었던 박금희는 헌혈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를 듣고 헌혈하였는데, 불과 몇시간 만에 헬기에서 발사된 총탄에 맞고 쓰러져 기독교병원으로 이송되어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교사였던 헛트리 목사는 기독교병원의 상황을 사진으로 생생하게 담아내어 계엄군의 폭력을 입증할 증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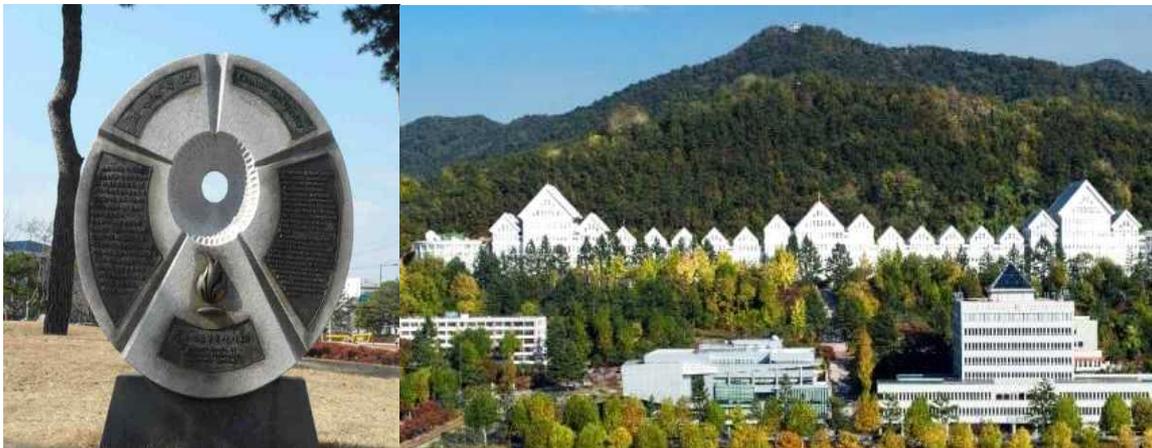
14. 구 광주적십자병원 (사적 11호)

광주적십자병원은 5.18 당시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병원이었습니다. 도청에서 광주공원 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그렇게 번잡한 병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5.18로 인해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자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었던 적십자 병원으로 환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제대로 퇴근조차 하지 못하고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수많은 시민들도 일손을 거들었고 헌혈에도 동참했습니다. 5.18 이후 적십자병원은 매년 오월에 헌혈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5. 조선대학교 (사적 12호)

조선대학교에도 5.18 당시 계엄군이 배치되었습니다. 7공수여단 35대대였습니다. 이들은 학교에 있던 학생들을 끌어내어 가혹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기합을 주기도 했습니다. 5월 20일 자정 이후로는 조선대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시민과 군인사이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6. 배고픈다리 일대 (사적 13호)

배고픈 다리는 동구 학운동에 위치한 곳으로 5.18 당시 시민들의 지역방위 활동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이곳의 시민들은 조를 짜서 이 다리를 중심으로 마을을 지켰고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이 경찰을 나오자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5월 23일 이후 총기반납에 따라 경찰활동은 중지되었습니다.



17. 주남마을 인근 양민학살지 (사적 14호)

1980년 5월 23일, 광주를 빠져나와 화순으로 향하던 어느 버스는 주남마을 인근에서 계엄군과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계엄군은 버스가 정지하지 않자 즉시 버스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18명의 탑승자 중 1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남은 3명 중 2명은 산으로 끌려가 살해당했습니다. 살아남은 한사람만이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버스가 있던 현장과 두 청년이 세상을 떠난 곳에 위령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8. 광목간 양민학살지 진월동, 송암동 (사적 15호)

광목간 양민학살지는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장소입니다. 1980년 5월 24일 광주공항으로 이동하던 11공수여단은 전투교육사령부와 오인사격으로 인한 총격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근처 민가등에 무참히 발포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했고 심지어는 분풀이로 마을의 청년들을 끌어내 사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수지와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놓고 있던 12살과 14살 전재수와 방광범이 M16 소총에 의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19. 농성광장 격전지 (사적 16호)

농성광장은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부대 바로 옆에 위치했으며 당시로써는 광주의 가장 외곽에 해당했습니다. 이같은 위치성 때문에 계엄군이 철수한 이후 시민군과 계엄군 사이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계엄군은 인근 주택가에 발포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5월 26일 계엄군의 탱크가 농성광장으로 진입하자 시민군들이 급히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수백명의 시민들이 군인들을 막아섰고 수습위원들이 계엄분소에 방문하여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계엄군은 일시적으로 후퇴했으나 다음날 새벽, 다시 광주로 진입하였습니다.



20. 상무대 옛터 (사적 17호)

상무대는 5.18 당시 군부대가 주둔하던 주둔지 였습니다. 이곳에 주둔하던 부대는 전투교육사령부였으며 상무대의 전교사 사령관이 전남북계엄분소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휘권은 신군부에 있었습니다. 5.18 당시 상무대 영창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수감되었고 이들은 이곳에서 조사받은 후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부 영창만 복원되어 5.18 자유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1. 무등경기장 정문 (사적 18호)

5.18 당시의 상황을 가정 먼저 인지한 사람들은 광주의 버스 및 택시기사들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차례 시내를 드나들며 계엄군의 폭력을 목격한 기사들은 심지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차량이 계엄군에 의해 공격받았다는 소식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학생을 이송하려던 택시기사를 대검으로 찌른 일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무등경기장 정문에 모인 버스 및 택시 기사들은 일제히 전조등을 켜고 금남로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이날을 ‘민주기사의 날’로 기리고 있습니다.



22. 양동시장 (사적 19호)

양동시장은 5.18 당시 집회가 열리던 곳들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나 5월 21일 계엄군이 철수한 이후의 ‘해방광주’에서 양동시장에 나온 시민들은 동별로 돈을 걸어서 주먹밥, 물, 김밥, 음료수 등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해방광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양동시장의 광목천은 세상을 떠난 시민들의 수의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23. 광주공원 광장 - 시민군 편성지 (사적 20호)

광주공원 광장은 5.18 당시 시위대와 계엄군이 충돌하던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5월 21일 계엄군이 광주를 빠져나간 후에는 수백명의 청년들이 몰려들어 시민군을 편성하는 거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5월 27일 YMCA로 향하던 계엄군 3공수여단은 이곳을 우선 점령목표로 선정하고 점령했습니다. 다만 광주공원은 건물이 아닌 공원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체포된 시민군은 없었습니다. 5.18 끝난 후 3년간 광주공원에는 탱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24. 5.18 최초발포지 (사적 21호)

5.18 당시 최초의 발포는 5월 19일에 발생했습니다. 오후 4시 50분경 11공수여단 63대대 차정환 대위가 타고있던 장갑차는 계림동 부근에서 시위대와 마주쳤습니다.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당황한 운전수는 가로수에 차를 들이받았고 시민들에게 포위되었다고 생각한 차정환 대위는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대부고 3학년 김영찬이 손과 허벅지에 3발의 총탄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11공수여단의 이러한 발포는 윗선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사실상 5월 20일 이후의 집단발포와 달리 우발적인 행위였습니다. 차정환 대위는 아군인 전교사와의 오인사격 과정에서 전교사 군인들에게 사살되었습니다.



25. 광주교도소 (사적 22호)

광주교도소는 광주와 담양 사이에 위치하는 외곽지대였습니다. 따라서 광주에서 타지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이곳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월 21일 전남대에서 철수한 3공수여단은 광주교도소로 이동하여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 및 시민들을 향해 여러차례 발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엄군은 광주외곽으로 나가려던 시민들이 교도소를 습격하고자 한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군은 살해한 시민들을 교도소 근방에 가매장했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5월 31일날 발굴되었습니다.



26. 옛 국군광주병원 (사적 23호)

옛 국군광주병원은 1965년 건립되어 2007년 5월 전남 함평으로 이전하기까지 국군병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사령부에 연행되어 심문을 받던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부상을 당한 시민들이 끌려와 강제 치료를 받았던 장소입니다. 5·18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299명의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부상당해 치료받았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주시내 곳곳에서 계엄군에 체포되었던 시민들은 당시 상무대에 설치되었던 계엄사령부로 끌려가 폭력적인 고문과 구타 속에서 심문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상당한 시민들은 당시 국군광주병원으로 실려와 엄중한 감시 아래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국군광주병원까지 계엄사 수사관들이 파견되어 시민들을 취조하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치료과정에서도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군광주병원 건물 배치도

국군광주병원 주변은 1980년 5월 22일 ‘통합병원 통로확보를 위한 축출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인근의 신학대학 앞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던 계엄군 20사단이 탱크를 앞세우고 진입하면서 주택가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한 5·18의 역사 현장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군광주병원 옛터에는 총 36개동의 기존 건물이 남아있으며, 5·18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병원 본관 건물은 기존 건축물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5월 기존 수림대를 활용해 산책로 개방하였고 5·18역사성이 있는 병원 본관 등 주요 시설은 울타리를 설치해 보존하며 보존 건물은 추후 정부사업을 통해 국가 트라우마센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7. 5.18 구묘역 (사적 24호)

5.18이 끝난 직후 수많은 시민들의 시신은 광주 곳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상무관 61구, 도청 26구, 국군통합병원 16구, 교도소 1구, 광주역 6구, 효덕동 4구, 광주고교 2구 등 총 116구 있습니다. 5월 27일 도청으로 진입한 군인들은 시민들의 시신을 시립공원묘지 제 3묘역으로 이송했습니다. 전남 6913호 청소차량에 시신을 이송하여 시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암매장 및 가매장 되었던 시신들이 늘면서 사망자수는 166명으로 늘었고 현재도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5.18 희생자들의 공동묘역이 조성되자 이곳은 즉시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를 우려한 전두환 정권은 5.18 묘역을 없애려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특히 '전남지역개발협의회'를 세우고 505보안부대의 지원을 받아 유가족들에게 1천만원을 건내고 묘를 선산으로 이장시키도록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족들은 끝까지 묘역을 지켰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이한열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과정의 열사들도 구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1997년, 국립 5.18 민주묘역이 형성됨에 따라 희생자들의 시신은 모두 이장되었으며 현재 구묘역에는 봉분만이 남아있습니다.



망월묘역의 입구에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 내외분 방문>이라고 적힌 기념비가 박혀있습니다. 본래 담양 고서면 성산마을에 전두환이 다녀갔다는 의미로 세워졌습니다. 광주에서 학살을 자행한 지 662일만에 일말의 죄의식도 없이 광주를 다녀간 전두환에 분노한 유족들은 성산마을에 위치한 기념비를 부순 후 망월묘역 입구에 묻었습니다. 현재는 구묘역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입장에 앞서 비석을 밟고 가고 있습니다.

28. 남동성당 (사적 25호)

남동성당은 천주교인사들이 모임을 주로 가지던 성당이었습니다. 5.18 당시에는 수습대책위 소속의 인사들이 여러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계엄사에 요구할 사항 등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5.18 이후 이러한 이들은 모두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습니다. 남동성당에서는 매년 5.18 추모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9. 505보안부대 옛터 (사적 26호)

505보안부대는 군의 정보기관으로써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을 필두로 권력을 장악하는 군사반란에 크게 일조한 기관입니다. 이들은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와 동시에 차량 22대와 86명의 군인들을 동원하여 광주지역의 학생회 간부 및 재야인사를 체포했습니다. 윤한봉, 박관현 등 22명이 표적이 되었고 이중 김상윤, 정동년 등 12명이 연행되었습니다. 이들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실행범들로 지목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505보안부대의 지하조사실은 고문의 현장이었으며 보일러실에서 시신이 소각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5·18사적지들이 대부분이 저항과 학살의 주요 거점이었다면, 이곳은 신군부가 시민과 민주인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으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작전의 실질적인 지휘본부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역사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공간입니다.

2018년 5·18기념재단이 확보한 ‘광주 소요사태’라는 기밀문서를 보면, 80년 5월20일 ‘23시15분(밤 11시15분) 전교사 및 전남대 부근 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1인당 20발)’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이곳 505보안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0. 들불야학 엠티 (사적 27호)

들불야학은 1978년 광주지역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공부하던 야학으로 출범했습니다. 들불야학을 탄생시킨 박기순이 유현종의 소설 '들불'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들불야학 소속 멤버들은 5.18이 일어나자 투사회보를 발행하여 배포하는 등 주요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윤상원, 박용준, 박관현 등 들불야학에 소속되었던 이들 중 일곱명은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인해 5.18을 전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들불열사기념사업회 설립취지문 中>

엄혹했던 70년대, 당시의 광주, 전남지역 지식인,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은 70년대 말이 되자 타 지역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성장, 발전하였고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 또한 타지역의 모범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농업지역인데다가 박정권의 지역편중투자정책 때문에 변변한 공단이나 대기업 하나 없었던 광주, 전남지역의 노동운동은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광주의 영세공단지역이었던 광천동에서 이 지역 최초의 노동야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구적인 소수의 젊은이들이 78년 7월말에 노동운동의 토대를 강화하고 민중생존권투쟁의 불길을 피워 올리기 위해, 그리고 현장 활동을 통한 지식인과 민중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들불야학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들불야학은 문을 연 이후 활발한 교육활동을 해나가다 80년 5.18민중항쟁 당시 투사회보 제작, 배포, 항쟁지도부 구성 및 5월 27일 새벽의 최후항쟁 등에 조직적, 주도적으로 참여한 결과 인명

손실 등의 심대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81년 사월에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3년 정도의 짧은 역사에서 겪은 들불야학의 재난과, 문을 닫은 이후로도 계속된 들불관련자들의 수난은 모두를 놀라게 할 정도로 지속적이고도 결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문을 연 78년부터 98년까지의 20년 동안에 서로 약속이나 한 듯 훌쩍훌쩍 우리 곁을 떠나가신 들불야학 관련자들은 한두 분도 아니고 무려 일곱 분이 됩니다. 박기순님은 불의의 사고로, 박관현님은 결사적인 옥중 단식투쟁으로, 김영철님은 모진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고, 신영일님과 박효선님은 병마와 싸우다가, 윤상원님과 박용준님은 5.18항쟁 당시 쿠데타군들과 총격전을 하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짧게는 21세에서 길게는 50세를 일기로 일찍 떠나가신 들불열사들은 야학운동과 5.18민중항쟁뿐만 아니라 빈민운동, 학생운동, 청년운동, 문화운동 분야에서도 제각기 선구적, 핵심적, 지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광주전남지역 운동사에 커다란 발자국을 남기셨습니다. 일곱 분의 삶의 자세 또한 하나같이 순수하고 성실했으며 헌신적이었습니다.

31. 전일빌딩 (사적 28호)

전일빌딩은 5.18 당시 광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청, YMCA, YWCA 등에 비해 시민들이 주되게 활용한 거점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외신기자들이 머물거나 외벽에 사망자 명단이 붙는 정도였습니다. 경매를 거쳐 2011년 광주도시공사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철거를 추진했지만 “역사적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5·18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고 전면 개보수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헬기사격 탄흔이 발견됐습니다.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은 10층에서만 177개에 달하며, 3층과 8·9·10층 외부에도 다량의 탄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흔적은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뒷받침해주는 매우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에 전일빌딩은 2017년 8월 11일에 5.18 사적지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입니다.



32. 홍남순 변호사 가옥 (사적 29호)

민주화운동 1세대로 인권 보호 활동에 생을 바쳤던 고 홍남순 변호사는 1963년 공동 가옥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양심수 변론을 하며 민주화운동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1973년 전남대 ‘함성’지 사건 등 30여건의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을 맡아 ‘긴급조치 전문변호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으며, 1980년 5월에는 16명의 수습위원과 함께 5·18 시민 희생을 막기 위한 ‘죽음의 행진’에 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는 5.18 당시 수습대책위에 참여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월 26일, 도청에 남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끝내 막을 수 없게 되자 수습대책위원들의 다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홍남순 변호사는 목욕을 한 후 도청으로 돌아와 끝까지 도청을 사수했습니다. 그는 결국 계엄군에게 체포되었으며 변호사라는 신분을 확인한 군인은 “너가 육법에 통달했느냐 나는 육법위에 때법이다”라며 모욕을 주며 그를 폭행했습니다.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이후에도 민주화운동의 현장들을 지켰습니다.



금남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1980년 5월 18일, 그날은 느닷없이 우리의 삶에 밀려들었다.

- 1980년, 금남로 -

구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유동 3거리까지 이어지는 긴 도로를 우리는 ‘금남로’라고 부른다. 1980년 5월 18일 오전 10시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계엄군과 전남대 학생들의 최초의 충돌이 있었다.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자, 군인들이 학생들을 향해 곤봉을 휘둘렀다. 분노한 학생들은 금남로를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다. 오전 11시 30분 학생들이 금남로에 위치하던 카톨릭 센터(현 5.18 기록관)까지 진출하여 연좌 농성을 전개했다. 곧 페퍼포그(최루탄 차량)를 앞세운 전투 경찰이 학생들을 막아섰다. 한편, 광주에서의 저항을 보고받은 계엄사령부는 동국대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11공수여단에게 광주 출동 명령을 내렸다.

오후 3시 40분 전남대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7공수여단 33대대가 금남로로 출동했다. 이들은 금남로에 모여있던 시민들을 무작정 구타하기 시작했다. 군인들이 곤봉을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김경철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의 죽음은 시위 진압을 주도했던 군인들의 명분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보여준다. 이날 하루 동안 54명의 시민이 중상을 입었다. 405명의 시위 참여자들이 군인들에게 끌려갔다. 5월 18일부터 금남로는 항쟁의 최대 목격자였다.

-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6층 -

5.18 기록관에 오면 6층에 위치한 윤공희 대주교의 집무실에 꼭 가보자.

시위대의 첫 바리케이드가 된 카톨릭 센터에는 윤공희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의 집무실이 있었다. 5월 19일 오전 윤공희는 6층 집무실에서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그러나 그는 차마 건물 밖으로 나가서 시민들을 돕지는 못했다. 이날 오후 윤공희는 부끄러움을 안고 서울에 가서 김수환 추기경에게 광주의 상황을 알렸다. 교황 대사와 전두환에게 면담도 신청했다. 조비오, 김성용 신부 역시 카톨릭 센터에서 군인들의 폭력을 목격한 이후부터 최선을 다해 시민들을 위해 행동했다. 1989년 국회 광주청문회에 출석한 조비오 신부는 “신부인 나조차도 손에 총이 있다면 계엄군을 향해 쏘고 싶었다”며 헬기 사격을 비롯한 계엄군의 학살을 증언했다.

1981년 3월 31일, 5.18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5.18 관련자'들은 전두환을 비롯한 학살의 책임자들이지만, 그날로부터 1년 후에 불과했던 이때에는 5.18 당시 최선을 다해 싸웠던 시민들이 법정에 섰다. 대법원은 5.18 관련자 3명에게 '사형'을, 7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대법원 판결을 묵묵히 방청한 5.18 구속자 가족들은 그 길로 명동성당에 갔다. 사형만은 막아야 했다. 사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불과 7년 전에 있었던 '인혁당 사건'처럼 4월 1일에 즉시 집행될 거라는 우려가 컸다. 5.18 구속자 가족들은 이미 윤공희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에게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해둔 상황이었다.

이날 명동성당 오후 미사가 끝난 직후 5.18 구속자 가족들이 연단에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는 광주에서 온 5.18 가족들입니다”

5.18 가족들은 유인물을 배포했다.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윽고 밤이 찾아왔다. 언제든 경찰이 들이닥칠 것만 같았다. 5.18 가족들은 천주교의 대표자인 추기경의 집무실에는 경찰도 함부로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의 집무실로 갔다. 그 어떤 사전 작업도 없었지만, 추기경은 문을 열고 5.18 가족들을 환대했다. 추기경 집무실에서 진행된 점거 농성은 이때가 처음이었고, 또한 마지막이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명동성당 진입을 준비하던 공안당국에게 "경찰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나를 쓰러뜨리고야 신부님들을 볼 것이고, 신부님들을 쓰러뜨리고야 수녀님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그 다음에나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추기경 다웠다.

이튿날,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과 윤공희 광주대교구장이 전두환을 면담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자리에 오른 전두환에게 “이 이상 광주가 피를 흘리게 해선 안된다”며 “사형 집행만은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전두환은 “나는 사형을 꼭 시켜야겠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날부터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5.18 가족들이 미리 전국 대학에 유인물을 배포해두었기 때문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5.18 관련자에 대한 사형집행으로 시민들의 저항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1981년 4월 3일, 전두환이 특별 사면을 통해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을 징역 20년으로 낮추고 관련자 58명을 석방했다. 남은 5.18 관련자들은 1982년 성탄절 특사를 통해 전원 석방조치 되었다.

2014년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후 카톨릭 센터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으로 거듭났다. 기록관 6층에는 윤공희 대주교와 신부들이 계엄군의 폭력을 목격했던 ‘진실의 창’과 함께 윤공희 대주교의 집무실이 보존되어 있다.

최후의 항전지, 구 전남도청

1980년 5월 27일의 도청에 남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의 의지를 이어 내일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것임을 신뢰했습니다. 시민들은 칼빈소총을 손에 쥐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총알 한 발 장전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수습대책위원이었던 예순넷 이종기 변호사는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도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도청에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5월 21일 노동청 앞에서 한 학생이 붉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가두방송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영순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열흘간 광주에서 가두방송을 진행했던 여러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영순도 1980년 5월 27일의 도청에 남았습니다.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3시 30분까지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방송실에 있던 박영순에게 김종배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방송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의 영향으로 마지막 방송이 트럭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5.18 마지막 방송은 도청 방송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방위훈련 때 쓰는 동서남북을 향해 있는 4개의 스피커가 이용되었고, 5월 27일 3시 30분 박영순이 도청 방송실에서 그 유명한 마지막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도청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나오셔서 학생들을 살려주세요.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방송은 30분간 지속되었습니다. 수많은 광주시민들에게 마지막 방송의 애절한 호소는 극한의 슬픈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3시 30분의 적막하고 조용한 광주, 그 고독한 공간에 울려퍼지는 방송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남겨질 가족들 생각에 결국 도청에 남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뜯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픔과 부끄러움, 분노를 느꼈습니다. 시민들은 도청의 거대 스피커로 방송했다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한 여성이 트럭을 타고 다니며 밤새 방송했다", "법원쪽에서 군인들에게 걸려서 모두 죽었다더라"하는 소문이 광주전역에 확산되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 방송이 끝난 직후 이양현 기획위원이 도청 전기를 끊었습니다. 모

든 불이 꺼졌고, 고독하고 적막한 새벽의 광주, 군부는 이미 도처에서 저항하는 시민들을 살해하고 있었습니다.

신군부는 도청 진압 작전에 20,317명의 군인들을 동원했습니다. 3, 7, 11공수여단과 함께 20사단과 31사단이 광주로 진격했고, 3공수여단은 도청 후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한 후 저항하는 시민들은 무참히 사살했습니다. 윤상원 열사는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방송실로 왔고, 박영순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리자 수많은 탄환들을 방송실로 발포하였습니다. 박영순이 “여학생이에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군인들은 발포를 멈추고 기어나오라고 지시한 후 개머리판과 구둣발로 온몸을 때렸습니다. 이후 그들은 도청에서 체포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년이 방송했어 옷을 벗겨서 갈갈이 찢어죽인다”며 위협했고, 박영순은 그 군인의 말을 40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저항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상무대로 연행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고문과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흘간 이어진 항쟁은 수많은 시민들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최후까지 도청을 사수했습니다. 이들의 장렬한 항전은 ‘그 도시의 열흘’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희생하여 세상을 바꾸도록 노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5.18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발원지, 전남대학교

1980년 5월 18일, 금남로 카톨릭 센터까지 이어진 학생들의 행진은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는 5.18 사적비 제 1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진을 찍고 왼편에 위치한 오르막길을 오르면 머지 않아 박관현열사혁명정신계승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박관현열사혁명정신계승비 -



1980년 5월, 박관현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들불야학에서 활동했던 그는 선거 출마에 있어 '민주학원의 새벽기관차'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는 학내 비민주적 요소 청산, 어용교수 퇴진, 병영집체 훈련 거부 등을 내세우며 학원민주화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해 5월부터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박관현은 도청 앞 분수대에 서의 '민족민주화성회'를 기획했습니다. 전남대 총학생회와 조선대 민주투쟁위원회가 주도한 민족

민주화성회는 5월 14일부터 3일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5월 17일 군부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활동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민주활동가들이 예비검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박관현은 군인들을 피해 여수로 몸을 숨겼습니다. 살아남아 후일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광주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5.18이 일어났습니다. 박관현은 광주의 소식을 전해 듣고 큰 부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수배 대상이 되어 2년 여간의 도피생활을 이어간 박관현은 1982년 4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박관현은 내란주요임무종사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관현은 감옥에서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박관현은 3차례 걸쳐 40 여일 간의 단식을 진행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2년 10월 12일 새벽,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전남대병원에 모여들자 경찰은 그의 시신을 탈취하여 강제로 화장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고향인 영광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광주 시민들은 박관현의 정신을 기려 전남대 정문에서 옛 본부 건물까지 이어지는 가로수길을 ‘관현로’라고 부르고 있으며 들불열사의 한사람으로서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 윤상원 열사 공원 -



윤상원 열사는 전남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주택은행 봉천동점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회의감을 느끼고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현실을 바꾸고 싶었던 그는 광천공단에 위장취업한 후 들불야학 강학으로 일반사회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1978년, 광천동 시민아파트에 입주한 후 노동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1980년에는 운동권들이 자주 모임을 갖던 녹두서점에서 일하며 경기도 부평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자연맹 결성집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해 광주전남 지역 중앙위원에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들이 결성되던 서울의 봄 상황이 종결되고 5.18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윤상원

은 시민들에게 광주의 현재 상황을 알리는데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과 함께 투사회보를 만들어 배포하고 일부의 무기반납주장에 반대하며 항쟁지도부에서 활동했습니다. 대변인으로 외신기자들을 만났던 그를 한 외신기자는 “매우 인상 깊은 눈빛을 가진 청년”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오늘 우리는 여기서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를 우리를 승리자로 기억할 것입니다”는 말을 남긴 윤상원은 도청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탄에 맞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기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만들어졌으며 최근에는 전남대학교에 그를 기리는 강의실이 만들어 지기도 했습니다.

- 전남대 교육지표사건기념비 -



1975년 5월 13일 유신정권이 긴급조치 9호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학도호국단체 실시와 군사교육 강화, 교수 재임용제 등으로 대학에 대한 억압적인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1977년 이후에는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는 학생들과 경찰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의 구속과 제적 역시 일상적이었습니다. 대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점차 노골화되어 대학 캠퍼스마다 중앙정보부 사복요원들이 상주했습니다.

1978년 6월 27일, 이같은 현실에 반발하여 전남대학교의 양심적 교수 11인이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교육지표는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인 교육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모순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국민교육헌장을 구체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교육지표가 발표되자 서명자 11명은 즉시 중앙정보부 전남지부로 연행되었습니다. 학생

들은 이에 반발하여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특히 전남대 역사교육과의 박기순이 이러한 시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도서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진행하였고 이같은 농성이 해산되자 시내로 진출하여 유신철폐를 외쳤습니다. 시위는 3일간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500여명이 연행되었습니다. 이 중 학생 14명과 ywca 간사, 선언문을 인쇄해준 인쇄소 주인 등이 구속되었습니다.

- 광주민중항쟁도 -

광주민중항쟁도는 5.18을 다룬 최초의 벽화로 5.18 10주년을 맞이하여 전남대 그림패와 예술대학 미술패, 미술교육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총을 든 왼손을 뺀 시민군, 전남도청의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2017년 8월, 전남대 민주동우회는 이 벽화에 대한 복원을 시작하여 830명의 추진위원을 모집하여 벽화를 선명하게 복원했습니다.

<복원 이전>



<복원 이후>



5.18 자유공원

1980년 5월 27일 도청진압 작전을 완료한 계엄군이 체포한 시민들을 상무대로 연행했습니다. 상무대는 전투교육사령부 산하 시설로 영창과 군사법원이 위치했습니다. 군인들은 상무대 영창 주변에 천막을 치고 갖은 고문을 실시했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통닭구이 등이 자행되었습니다. 어느 군인은 예순을 넘긴 1세대 인권변호사 홍남순을 몽둥이로 때리며 “네가 육법에 통달했느냐, 나는 육법 위에 떼법이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대한 정신적 상흔을 입은 몇몇 시민들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에게는 자신들의 부족한 정통성을 보완할 '그림'이 필요했습니다. 상부에서 미리 작성해둔 시나리오 (일명 '와꾸')에 따라 광주 시민들의 항쟁은 유력한 야당 지도자 김대중의 조종을 받은 내란이 되었습니다. 5.18 민중항쟁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근거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군부는 전남대학교 복학생 대표 정동년을 수괴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그해 4월 김대중에게 강연을 요청하기 위해 동교동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하고 방명록에 이름만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군부는 정동년이 나이도 많을 뿐더러, 김대중과 만남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근거도 있었기에, 수괴로 제시하기에 제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동년은 5월 17일 예비검속으로 구속되어, 5.18에 참여하지도 못한 채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군 수사관들은 정동년에게 김대중으로부터 받은 돈을 누구에게 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고문을 견디지 못한 정동년은 "김대중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에게 270만원을, 전남대 복학생 윤한봉에게 17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정동년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상무대 영창에서 손가락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군부는 곧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대중과 예비검속자들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 김대중은 이밖에도 우리 민족사상 그 유례가 드문 일대 국가적 불상사였던 광주사태의 발단도 배후조종하였음이 밝혀졌다. 김대중은 전남대 복학생인 정동년이 김대중가를 방문하였을 때 광주지역 대학생 데모현황을 논의한 후 500만원의 자금을 주면서 자신의 서적과 선동문건 등을 전남대, 조선대에 배포하고 대정부투쟁을 전개할것을 교사 선동하였다. 정동년은 김대중의 지시에 따라 광주에 내려가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에게 270만원을 조선대 데모책 윤한봉에게 170만원을 주어 광주사태의 발단을 이루었던 전남대 가두시위를 배후조종하였다. “

- 당시 수사결과 -

1980년 10월 24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계엄보통군법회의 1심 선고가 시작되었다. 관련 구속자 2,522명 중 616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이중 212명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1심 재판부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404명 중 149명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55명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날 정동년, 김종배, 박남선, 배용주, 박노정 등 5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홍남순, 정상용, 서규창, 윤석수, 하동렬, 윤재민, 서만석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감상윤, 명노근, 김운기, 양희승 등 12명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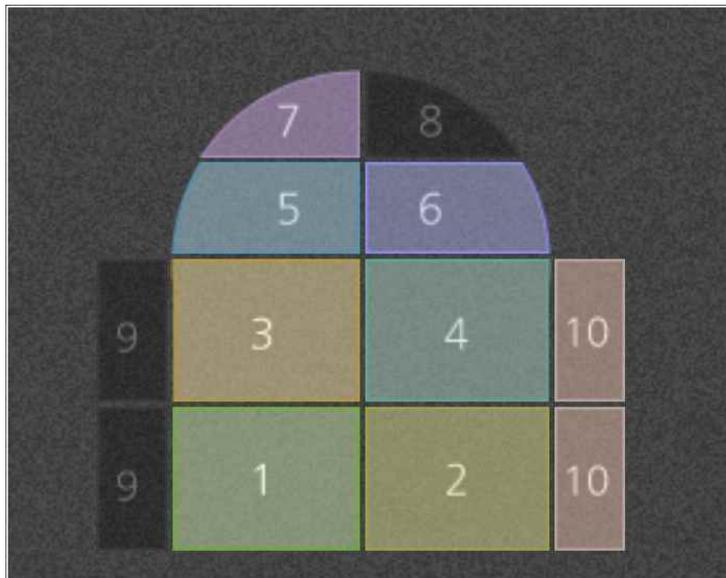
이후로도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1980년 12월 29일, 계엄고등군법회의 2심 재판부는 2심 재판에 회부된 163명 중 80명을 형집행면제 및 집행유예로 석방했습니다. 나머지 83명은 유죄를 선고받았고, 1981년 3월 31일에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 형량을 확정받았다. 이로서 불과 5개월만에 5.18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5.18 자유공원에는 5.18 구속자들이 1, 2심 판결을 받았던 군사법정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군사법정에는 당시 재판을 진행했던 판사와 군검찰관의 모습이 고스란히 구현되어 있는데, 당시 법정에서 들었던 이들의 증언을 통해 재현된 모습입니다.

임들이 계신 그 곳, 국립 5.18 민주묘지

1997년 ‘5월 18일’이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지금의 민주정부는 5.18 민중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민주정부”임을 천명했으며 5.18 묘역을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곧 국립 5.18 민주묘지를 조성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망월묘역에 묻혀있던 오월 영령들의 봉분이 국립묘역으로 이장되었다. 5.18 당시 부상을 입었거나 옥고를 치렀던 이들 역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된다.

- 묘역 배치도 -



5.18 묘역은 제 1묘역부터 제 10묘역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묘역 당 100여 기의 봉분이 존재한다. 5.18 기간 중에 사망한 희생자는 대부분 제 1묘역과 제 2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지면의 한계상 이번 5.18 자료집에 5.18 당시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의 사연을 담을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 5.18 당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담아낸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1, 2권”을 참고하면 관련된 내용을 더 면밀하게 알 수 있다.

1. 김경철 (묘지번호 1-01)

김경철은 어린시절 뇌막염을 앓던 중 청각을 잃은 청각장애인이었다.

김경철은 제화기술을 익혀 광주에서 양화점 일을 했다. 28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고 얼마 후 딸 혜정씨가 태어났다. 김경철의 딸이 100일을 막 넘긴 어느날 가족모임이 있었다. 경철은 모임을 마친 후 처남을 배웅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친구들을 만나 점심식사를 했다. 그날은 하필 1980년 5월 18일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공수부대원들과 조우하게 되었다. 젊은 그의 모습을 본 공수부대원은 다짜고짜 곤봉으로 김경철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이날 군인들은 학생으로 보이는 시민을 보는 족족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김경철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밝혔으나 그들은 지시에 따르지 않으려 장애인 흉내를 낸다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김경철은 적십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새벽, 사망했다. 5.18 당시 첫 사망자이자, 청각장애인이었던 그의 죽음은 “소요사태를 진정시키려 왔다”는 계엄군의 명분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5.18 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					
순번 : 78					
변사자 인적사항	본적	광주시 XX구 XX동 XX		직업	부권
	주소	광주시 XX구 XX동 XX-XX		연령	56. 8. 15(24세)
	성명	김경철	(손해등)	성별	남
사망 일시 장소		1980. 5. 19. 03:00 국군동안병원			
검시 일시 장소		1980. 5. 25. 19:00 국군동안병원			
사인	사인법	타박상			
	부위 및 사인	후두부 좌측 상 및 명상, 좌안상 김부위상, 우측 상지 전박부 타박상 좌견갑부 골절부 타박상, 전경골부, 둔부 및 대퇴부 타박상			
검시자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김규섭	

2. 김경환 (묘지번호 1-03)

김경환씨는 5.18 당시 대학입시 공부를 하고 있던 재수생이었다.

1980년 5월 초, 서울에서 연일 대학생들의 가두시위가 전개되었다. 아들을 걱정한 아버지는 광주에 있는 큰 아버지의 집으로 아들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아들이 광주로 가자 서울에서의 시위는 잠잠해지고 광주에서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5월 20일, 사촌들과 시내에 나간 김경환씨는 공수부대원이 던지는 수류탄을 피하는 와중에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었다. 5.18 당시 194개의 수류탄을 사용한 계엄군이었다. 김경환은 전남대 병원 부근에서 계엄군과 마주했다. 계엄군은 철심이 박힌 곤봉으로 김경환의 온 몸을 구타했다. 그가 군인들에게 저항하자 한 공수부대원이 김경환의 배를 대검으로 찔렀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아들을 광주로 보냈던 아버지는 “내가 아들을 사지로 보냈다”며 깊은 슬픔에 빠졌다.



5.18 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

순번 : 159

변사자 인적사항	본적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2-57	직업	장원
	주소	서울 마포구 염치동 27-1	연령	61.4.5.(19세)
	성명	김경환 (金京煥)	성별	남
상망 일시	장소	1980.5.20.21:00 전남의대 부속병원 부근 로터리		
검시 일시	장소	1980.5.28. 상부관		
사인	사인법	타박사		
	부위 및 사인	배부 적상 (3개소), 두부 파상		

3. 김완봉 (묘지번호 1-18)

김완봉씨는 5.18 당시 무등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1980년 5월 21일, 그의 어머니인 송영도씨는 시위대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의 권유를 받아 시위대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에 참여했다. 그는 남은 빵을 공수부대와 경찰에게도 나누어주고 집으로 향했다. 그들도 다 내 아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집에 있어야 할 아들이 보이지 않았다. 송영도는 동네를 뛰어다니며 아들을 찾았다. 비슷한 체격의 아이가 총에 맞는 걸 봤다는 말도 듣게 되었다. 그는 끝내 마지막으로 찾아간 적십자병원 영안실에서 아들을 시신을 발견했다. 1980년 5월 21일, 우연히 시내에 나간 김완봉은 도청앞에서 목에 M-16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황망하고 억울한 죽음이었다.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2013년 5월 13일, 5.18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게시물로 물의를 빚은 ‘일간베스트’에 송영도씨 사진이 올라왔다. 아들 김완봉의 관 앞에서 그가 오열하는 사진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글과 함께 게시되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마저 희화화한 이 사건은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김완봉의 누나는 몇 년간 법적 공방을 진행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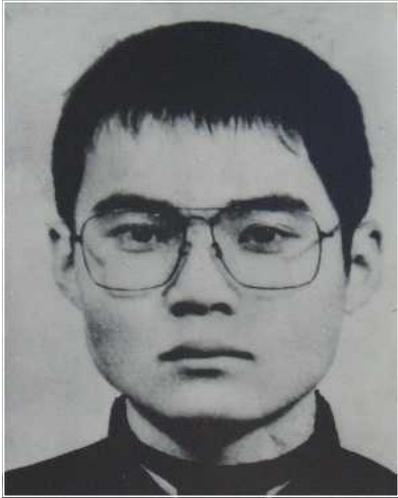


4. 박금희 (묘지번호 1-26)

박금희는 5.18 당시 춘태여상(현 전남여상) 3학년 학생이었다.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발포로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갔다. 몇몇 시민들은 병원에 실려갔지만 피가 부족해 구할 수 없었다. 일부 시민들이 트럭에 스피커를 부착한 후 가두 방송에 나섰다. “시민여러분 피가 부족합니다. 병원으로 오셔서 헌혈에 동참해주세요.” 이날 박금희는 방송을 듣고 기독병원에 가서 헌혈을 했다. 그러나 헌혈을 마치고 병원을 나선 박금희의 앞에 헬리콥터가 나타났다. 계엄군은 비무장 민간인을 향해 헬기 사격을 가했다. 박금희는 헬기에서 발포된 총탄을 맞고 세상을 떠났다.



5. 전영진 (묘지번호 1-51)



1980년 5월 19일,
계엄군의 폭력을 목격한
고등학생들도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날 대동고등학교 학생들이 시내로 나가려 하자 대동고 기술교사였던 윤광장이 그들을 막아섰다. “지금 나가면 개죽음 이다. 나중에 얼마든지 저들과 싸울 수 있지만 지금 나가면 안된다. 그래도 가려면 나를 밟고 가라” 몇몇 교문에 드러누워 학생들을 막기도 했다. 그러나 대동고, 중앙여고, 광주일고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시위를 진행한 후 거리로 진출했다. 5월 20일, 대동고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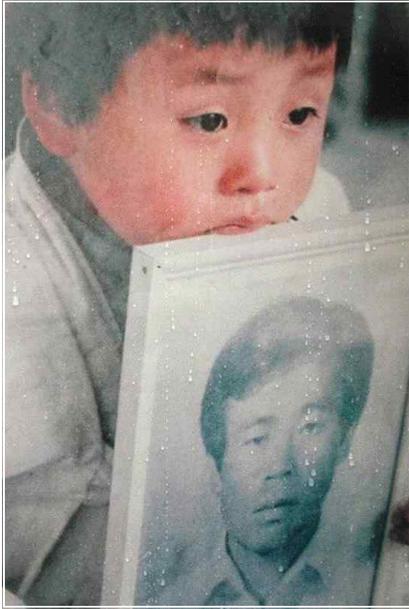
전영진은 계엄군이 대학생들의 옷을 벗기고 구타하는 장면을 보았다며 시위대에 합류하려 하였지만 어머니의 완강한 만류로 집에서 하루를 보냈다. 다음날 전영진은 “엄마 조국이 나를 부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빠져나와 시위대에 합류했다. 그날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었던 날이었다. 전영진은 도청 부근의 노동청에서 계엄군이 발사한 M-16 총상을 머리에 맞고 사망했다.

아들을 찾아 나선 아버지와 어머니는 광주 전역을 헤맨 끝에 기독교병원 영안실에서 아들의 주검을 발견했다. 그렇게 아들을 보내야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투사가 되었다. 아들의 죽음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앞장섰다. 전영진의 아버지 전계량은 5.18 유족회 회장직을 맡아 진상규명 투쟁의 일선에 섰다. 그는 광주의 진실을 알린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서문을 쓰기도 했다.

“영진아! 그해 1980년 5월 21일 “엄마 조국이 우리를 부릅니다” 하면서 나갔다가 계엄군의 무차별 총격에 관자놀이를 관통당하여 애비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 버렸던 영진아! 허연 눈을 미처 감지도 못한 채 기독교병원 영안실에 나보다 먼저 누워 버린, 꿈에도 잊지 못할 기가 막힌 내 아들 영진아! 해마다 봄이 오면 접동새 우는 망월동 묘지에서 눈을 부릅뜨고 나보다 먼저 일어서서 피울음으로 광주를 노래하고 있는 영진아!

1980년 5월 27일 너의 뒤를 이어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였던 너의 형, 누나, 아저씨, 아주머니, 동생들이 독재의 총칼과 외세의 압제에 배반당하고 항쟁과 살육의 광주 한복판 분수대, YWCA, 금남로, 지원동 진입로에서 처절하게 드러누워 주검의 탑을 쌓고 있을 때 …… 이 애비는 …… 영진아!“

6. 조사천 (묘지번호 1-57)



조사천씨는 5.18 당시 평범한 가장이었다.

그는 전남대 후문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었다. 1980년 5월 20일, 조사천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광주교대 앞에서 계엄군이 학생들을 구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조사천은 군인들을 만류했으나 군인들은 그에게도 곤봉을 휘둘렀다. 분노한 조사천은 이날부터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 1980년 5월 21일 조사천은 점심을 먹은 후 계림초 뒤에서 시민들이 운전하던 트럭에 탔다. 이날 오후 1시, 계엄군이 도청 앞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사격을 감행했다. 조사천은 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쏜 총에 맞고 사망했다. 기독교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다섯 살 아들이 있었다. 다섯 살에 상주가 된 아들 조천호씨가 조사천씨의 영정을 들고 있는 모습은 외신기자에 의해 촬영되어 독일로 보내졌다. 해당 사진은 독일의 유명 잡지 슈피겔지 1면에 실려 광주를 상징하는 사진이 되었다.

7. 최미애 (묘지번호 1-60)



1980년 5월,
최미애씨는 임신 8개월의 몸이었다.

1980년 최미애는 전남고등학교 영어교사였던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전남대에서 하숙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해 오월이 되자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다. 시위에 나가는 학생들을 말리기 위해 거리를 배회했던 것이다. 1980년 5월 21일, 남편이 걱정된 최미애는 집 밖으로 마중을 나섰다. 잠시 후 그의 눈

앞에 군인들이 쓰러진 학생을 끌고가는 모습이 펼쳐졌다. 두 명의 군인이 쓰러진 학생의 발을 한 쪽씩 잡고 질질 끌고 가고 있었다. 분노한 동네 주민들이 군인들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한 군인이 학생의 발을 내려두고 뒤로 돌아 시민들을 향해 발포했다. 최미애는 가슴에 M-16 총탄을 맞고 세상을 떠났다. 이 소식을 들은 그녀의 어머니 김현녀씨가 현장으로 달려왔으나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다. 최미애는 사망했지만 뱃속의 아이는 여전히 발길질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병원에 연락해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결국 아이도 죽고 말았다. 1980년 5월, 군인들은 임산부에게도 총을 발포하길 주저하지 않았다.

김현녀는 1988년 5공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때의 상황을 증언했다. 그러나 그날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은 단 한사람도 출석하지 않았다. 최미애의 남편 김충희는 그녀의 비석에 글귀를 남겼다. “여보 당신은 천사였소.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망월묘역의 최미애씨의 묘에는 이런 편지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아줌마는 천사였어요.

아줌마. 저 000이예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 지난해 전남대에 입학해서 올해 2학년이 되어요. 아줌마. 저 이제야 왜 아줌마가 그날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줌마는 늘 저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지요. 시장가실 때 저도 가고 싶다고 떼를 쓰면 제 손을 붙잡고 데려가 주셨고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그저 웃으며 제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셨던 기억을 저는 잊지 못해요.

그래요. 아줌마는 정말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줌마가 어느 날 죽었다는 거예요. 저의 어머니와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울면서 아줌마가 죽었다고 하는 그 날, 어머니는 제게

이불 속에 들어가서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날 아줌마가 죽었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자라면서 내내 의문이었어요.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아줌마처럼 착하고 천사 같은 분을 죽였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싸우지 않고 쉬쉬하며 지내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 5.18에 대해 알게되면서 알게되었어요. 왜 천사같은 아줌마가 그날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요. 아줌마. 바로 전두환과 노태우 군사독재자들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아줌마와 같은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같은 아줌마를 저에게 빼앗아간 것을 이제 똑똑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줌마에게 약속합니다. 이제 아줌마의 이름으로 제가 싸우겠습니다. 아줌마와 같은 착한 시민을 학살하고 죽여 권력을 가져간 전두환과 노태우 군사독재세력을 제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아줌마의 이름으로 제가 대신 싸워 반드시 그들의 죄악을 밝혀내어 아줌마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할게요. 그날까지 아줌마. 안녕히 계세요. 아줌마. 사랑해요."

8. 황호정 (묘지번호 1-65)



황호정씨는 5.18 당시
금남로에 있는 빌딩에서 살고 있었다.

거리 곳곳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바람에 며칠간 집안까지 최루탄 냄새가 배어있던 나날이었다. 1980년 5월 21일에는 심각한 총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다. 집 근처에서 스폰지 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던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폰지를 이곳저곳에 깔고 가족들에게 옆드려 있으라고 했다. 그러던 중 그의 집에 있던 조카가 바둑판 위에 올라서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조카를 바둑판 위에서 내린 후 스폰지 위에 눕혔습니다. 창문을 다시 닫으려는 찰나, 그는 계엄군이 발사한 총탄에 맞고 쓰러졌다.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시위에 합류한 적도 없었던 황호정은 자신의 집에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나야 했다.

9. 손옥례 (묘지번호 1-80)



손옥례씨는 5.18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다.

1980년 5월 19일, 손옥례는 외출이 잦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아버지와 싸운 후 집을 나왔다. 손옥례는 그날 저녁 시내에 사는 친구네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1980년 5월 23일, 화순으로 향하던 버스에 탑승했다. 해당 버스가 주남마을 인근을 지날 때 쯤 계엄군이 버스를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다. 버스에 탔던 18명 중 1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 2명도 계엄군에게 살해당했다. 손옥례는 버스에서 계엄군이 쏜 총에 맞고 사망했다. 버스에 올라탄 군인들은 그의 사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으로 그의 가슴을 찌렀다.

10. 김춘례 (묘지번호 1-100)



김춘례씨는 5.18 당시
일신방직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였다.

1980년 5월, 공장이 문을 닫았다. 갈 곳이 없었던 김춘례는 친구 고영자와 함께 화순으로 향하는 버스에 탔다. 그날은 1980년 5월 23일이었다. 두 사람이 탄 버스가 주남마을 지나자 계엄군이 버스를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버스 안에서 총에 맞고 세상을 떠났다.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었다. 이후 그의 죽음을 알게된 형제들은 5.18 유족회에 가입해 활동했다.

11. 박현숙 (묘지번호 2-03)



박현숙씨는 5.18 당시
송원여상 3학년 학생이었다.

‘그날’ 이전 박현숙은 학교를 다니고 동생들과 대화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5.18이 일어나게 된 후부터 그의 세상은 달라졌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른거렸던 것일까? 5월 21일 계엄군이 시민들을 학살하고 광주에서 철수한 이후부터 박현숙은 상무관에서 장례일을 도왔다. 시신을 닦고 염을 하는 어려운 일들이었다. 5월 23일, 박현숙은 장례용품을 구하기 위해 화순으로 향하는 버스에 탔다. 버스가 주남마을을 지날때 쯤 계엄군이 버스를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다. 박현숙은 머리, 가슴, 배 등에 7발의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버스에 올라탄 군인들은 사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으로 그의 시신을 찔렀다.

12. 김승후 (묘지번호 2-16)



김승후씨는 5.18 당시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공업사에서 선반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언젠가 전국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꿈이었습니다. 1980년 5.18이 일어나자 공장이 문을 닫아 그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5월 24일, 인근을 이동중이던 11공수여단은 전교사 군인들과 오인교전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분노한 군인들은 근처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송암동 일대의 주택가를 수색하던 중 집에 있던 김승후 씨와 그의 가족들을 끌어냈습니다. 군인들은 끌어낸 주민들 중 청년들 중 김승후씨 등 3명을 근처로 끌고가 살해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가장 먼저 철로 변에 버려져 있는 김승후씨를 발견했고, 논밭 옆 고랑에서 권근립씨와 임병철씨를 발견했습니다. 계엄군이 1980년에 광주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은 일본제국이 저지른 간도학살이나 국군의 제주 4.3 사건, 베트남 전쟁에서의 학살과 닮아있었습니다.

13. 방광범 (묘지번호 2-18)



방광범씨는 5.18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전남중학교에 입학한지 이제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980년 5월 24일, 방광범은 친구들과 함께 원제저수지에서 머리를 감고 놓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근처를 지나던 11공수여단은 민가 등에 무차별로 발포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총격에 놀란 방광범의 친구들은 몸을 피했으나 방광범은 미처 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총알이 날아들었고, 그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14. 전재수 (묘지번호 2-22)



전재수씨는 5.18 당시 초등학교 4학년 이었다.

1980년 5월 24일, 그는 근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그 시기 인근을 지나던 11공수여단과 전교사 군인들이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고 교전하는 일이 있었다. 총소리가 들리자 마을 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전재수는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고무신이 벗겨져 넘어졌다. 고무신을 잡기 위해 돌아선 전재수는 온 몸에 여섯 발의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5.18 당시 계엄군은 비무장 민간인을 향해 발포함에 있어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짧은 삶에는 사진 한 장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 행방불명자 묘역 -



5.18 묘역 제 10묘역에는 행방불명자 묘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18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448건에 이르렀고 이중 242건이 실제로 5.18 기간 중 발생한 행방불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5.18 당시 활동했거나 목격되었던 증거가 있는 76명의 실종자는 사망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실종자들은 여전히 사망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밝혀지고 있지 않은 5.18의 미해결 과제 중 하나로, 언젠가 그날 광주에서 사라진 이들은 어디에 있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5.18 민주항쟁이 남긴 것들

- 피해
- 오월, 그 이후
- 임을 위한 행진곡
- 진실을 알린 사람들
- 심판대에 선 학살자들
- '황금동 여성들' 그리고 콜박스 사거리

- 5.18 민주화운동 공식 피해 통계 -

사망자 : 166명

정부가 사망자로 인정한 행방불명자 : 76명

접수된 실종신고 : 448건

실질적으로 사망자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자 : 242명

부상 등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 376명 (자살 39명)

부상자 : 3,139명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얻게된 사람 : 2,252명

구속 및 고문 피해자 : 2,518명

5.18 민주항쟁은 큰 인명피해와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삼가 먼저 가신 임들의 명복을 빕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실탄 사용 현황>

소화기 : 497,964발, 권총 : 2,754발
기관총 : 10,759발, 수류탄 : 194개
40M 유탄 : 60발, 90M 무반동총 : 8발
기타(신호탄 등) : 889발, 총계 : 512,626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환이 모두 팔십만발 이었다는 것을. 그때 그 도시의 인구가 팔십만 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의 몸에 죽음을 박아 넣을 수 있는 탄환이 지급되었던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학생 대표의 말대로 우리가 총기를 도청 로비에 쌓아놓고 깨끗이 철수했다면, 그들은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눴을지도 모릅니다. 그 새벽 캄캄한 도청 계단을 따라 글자 그대로 쿵쿵 소리를 내며 흐르던 피가 떠오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건 그들의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들을 대신한 거였다고. 수천곱절의 죽음, 수천곱절의 피였다고.”

(소년이 온다 중에서)

- 남은 과제, 실종자 문제 -

여전히 5.18 당시의 인명피해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실종자 문제’ 때문이다. 5.18 당시 많은 시민들이 실종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화 이후 5.18 실종자에 대한 신고가 시작되자 총 44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여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로서는 242명이 실제로 1980년 5월 당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중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76명을 사망자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5.18 실종자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5.18 직후 실종자 문제에 대해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첫째로 5.18 당시 군인들이 시민들의 시신을 암매장 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5.18 당시 군인들은 살해한 시민들의 시신을 곳곳에 가매장 했다. 이로 인해 5.18을 배경으로 하는 노래 '오월의 노래2'에 "왜 쏘았지, 왜 찢었지, 트럭에 싣고 어딜갔지"라는 가사가 등장한다. ‘암매장설’은 실종자 문제에 있어 가장 널리 알려진 주장이다. 특히 계엄군에 의해 26명이 가매장 되었다는 군기록이 남겨져있는 광주교도소의 경우 여러 차례 발굴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둘째는 무더운 5월, 광주에 위치한 군 정보기관인 505보안부대 보일러실이 쉴새없이 가동되었다는 무서운 목격담이다. 이는 5.18 당시 군부가 사망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다수의 시신들을 소각했다는 주장이다. 2019년 5월 14일, 스스로를 505보안부대 중령급 간부라고 밝힌 허장환씨는 “시신들을 초기에 화장처리하여 유

골을 모처에 매장하였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헬기 등 공군수송기를 통해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주장이다. 5.18 직후 살아남은 광주 지역 활동가들은 계엄군이 시신을 바다에 버렸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5월 27일 오전, 전남도청을 쫓겨 오가는 헬기를 보며 반대파들을 납치해 가혹하게 살해한 후 시신들을 바다에 유기한 아르헨티나의 독재정권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이는 당대에는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들어 39년 간 밝혀지지 않고 있던 실종자 문제에 대해 여러 증언과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 그해 4월 경향신문은 군 비밀문건 '소요진압과 그 교훈'에 광주에서 김해로 '시체'가 이송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육군본부 자료에는 이 부분에 대한 기록만이 삭제되어 있다. 공군자료에도 5월 25일 광주~김해 운항에 대한 기록만이 누락되어 있다.

군사3급비밀문건 '소요진압과 그 교훈' 1981년

● 空輸文據(輸送機) 공수지원 (수송기)

日 字	內 容	數 量	區 間	備 考
5. 25	患 者 後 送 인약품·수리부속 醫藥品·修理附屬 特殊設備·통조림	11톤 7.9톤 3톤	光州~서울 金海~光州 김해~광주 서울~光州	시체 屍體

경향신문은 군 사망자는 높임말인 '영현'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김해로 '시체'를 옮겼다면 광주시민들의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 이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는 5.18 직후 광주 시민들이 느꼈던 불

길한 예감과 일치되는 주장이다. 2019년 5월 14일, 허장환은 "518 당시 시민들의 시신을 비닐에 싸서 바다에 투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종자 문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도시였던 광주에서 수백명이 한번에 실종된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1980년, 14살이던 아들이 사라지자 어머니는 문을 닫지 못하고 살았다. 아들이 돌아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망신고도 하지 못했던 어머니는 신검통지서가 날아오자 아들이 살아있는 증거인 것처럼 보관했다. 이처럼 지난 세월 동안 가족을 기다렸을 이들에게, 더 늦기전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

그날로부터 40년, 광주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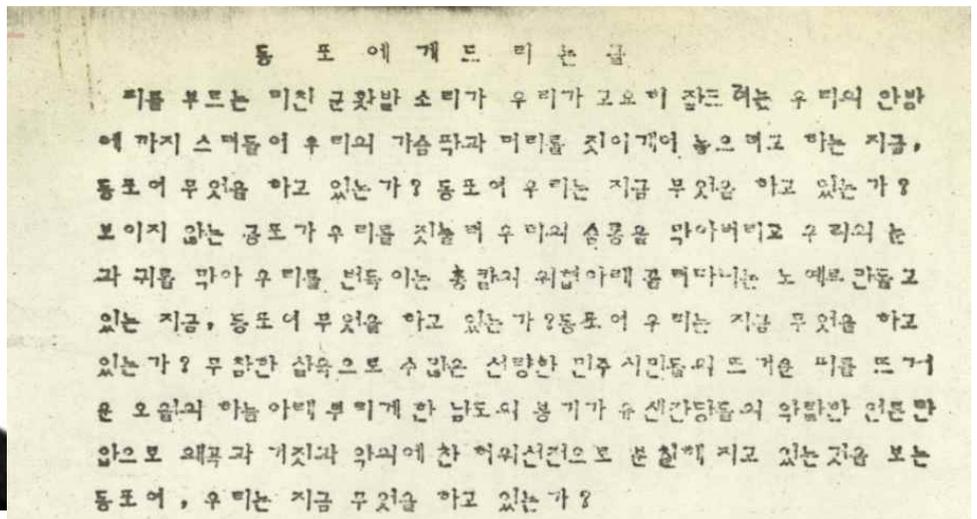
2. 오월, 그 이후

5.18은 끝났지만,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켜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월은 결코 끝날 수 없었습니다. 1980년 5월 30일, 서울 종로의 기독교회관 6층에 한 청년이 올라섰습니다. 그는 서강대 무역학과 4학년 김의기였습니다. 함평고구마사건 기념식 참가차 광주를 들렀던 그는 광주의 참상을 목격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배포한 후 그 자리에서 투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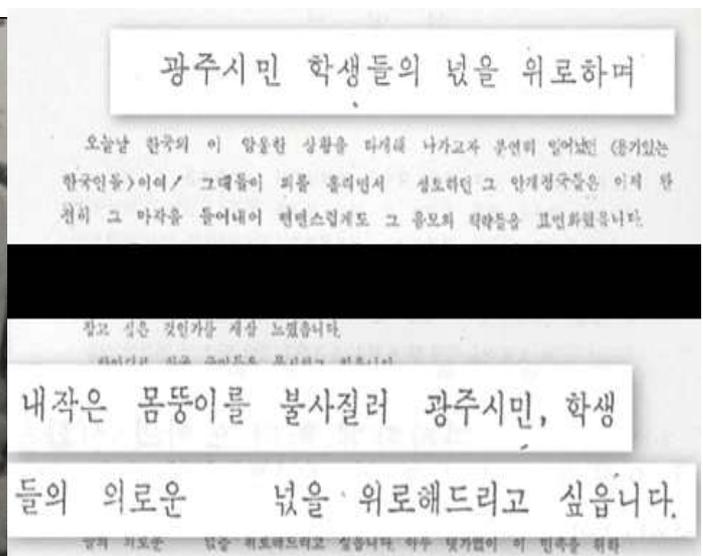
“피를 부르는 미친 군홧발 소리가 우리가 고요히 잠들려는 우리의 안방까지 스며들어 우리의 가슴팍과 머리를 짓이겨 놓으려고 하는 지금,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김의기



1980년 6월 9일에는 이화여대 앞에서 김종태 열사가 ‘광주시민 학생들을 위로하며’라는 글을 남기고 분신하였습니다. 외적저항과 내적저항이 가로막힌 서슬퍼런 독재시대를 견딜 수 없었던 이들은 자기파괴를 선택해가며 광주를 외쳤습니다.



한편 대세를 직감한 언론들은 반란군인들에게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는 5.18 직후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계엄군은 일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극소화된 희생만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980년 8월 23일의 ‘인간 전두환’ 기사는 언론정신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1980년 8월 6일, 롯데호텔에 모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전두환 사령관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장군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5.18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기 직전 예비검속으로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군사재판도 진행되었습니다. 총 2,518명이 혹독한 고문을 포함한 무자비한 조사를 받았고 이중 561명이 군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군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후 25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죄목은 ‘내란수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으로 실제로는 신군부가 저질렀던 행위들이었습니다.

1980년 10월 25일, 1심 재판부는 정동년, 김종배, 박남선, 배용주, 박노정, 이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홍남순, 정상용, 서규창, 윤석수, 하동렬, 윤재민, 서만석, 이 7명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김상윤 등 12명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외에 151명에게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80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월 이후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들은 5.18 구속자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죽음 이후 또 다시 관련자들이 사형에 처해지거나 수십년의 시간을 빼앗기는 일은 막아야 했습니다. 홍남순 변호사의 아내였던 윤이정 여사, 녹두서점 김상윤의 아내였던 정현애 여사, 전남대 명노근 교수의 아내였던 기독교병원 간호감독 안성례 여사 등이 모임을 가졌고 조직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당면한 과제는 사형 집행의 저지였습니다.

정현애는 1980년 9월 5일자로 기소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남편인 김상윤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 수사관들의 “부부를 모두 재판에 회부하기는 좀 그렇다”는 동정심도 적용되었습니다. 석방된 후 녹두서점으로 돌아가자 윤이정과 안성례가 찾아왔습니다. 정현애는 그들에게 재판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말해주었습니다. 정동년 김상윤 윤한봉 김운기 등과 함께 두 차례, 5.18을 계획하는 회의를 가졌다는 내용 역시 정현애의 공소장에 포함되었는데, 회의날짜로 설정된 날의 알라바이가 확실한 사람이 세사람이었습니다. 김상윤은 전남대 총책으로 윤한봉은 조선대 총책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미리 조직도를 그려두고 민주인사들의 이름을 채워넣는다는 ‘와꾸설’의 방증이었습니다.

이들을 비롯한 5.18 구속자 가족들은 ‘5.18 구속자가족협의회’를 결성하고 구속자 가족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윤이정이 회장을 맡고 안성례가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구속자가족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을 시점, 육군소장이었던 전두환은 스스로 별을 2개나 주워달았습니다. 육군대장으로 전역한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직후 유신헌법을 바탕으로 체육관선거를 통해 11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득표율은 99%였습니다.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는 7년 단임제로 헌법을 개헌하였으며 1981년 2월 11일 다시 대통령선거를 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전두환은 제 12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헌정사상 유일하게 단 한번도 국민들을 대상으로한 선거를 치루지 않고 대통령이 된 유일한 인물이자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비무장 시민들을 학살하여 권력을 찬탈한 권력자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981년 2월 17일, 전두환은 영광원전 기공식에 참여한 후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구속자 가족들은 “사형수를 없애주세요.” “구속자를 석방해주세요”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금남로로 나갔습니다. 기가 찰 일이었습니다. 불과 8개월 전 학살을 저지른 범인이 현장에 돌아온 것입니다. 시민학생들이 가득하던 거리에는 전두환을 환영하기 위해 강제로 동원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탄 차량은 유동을 거쳐 금남로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두환 일당을 환영하라고 동원된 시민들은 모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었는데 단 한사람도 태극기를 흔들거나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대부분 무표정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몇몇 사람들은 메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학살자를 결코 환영할 수 없었습니다. 기습시위를 위해 YMCA 앞에 대기하고 있던 구속자 가족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전두환의 차량이 YMCA 앞쪽으로 다가서자 구속자 가족들이 달려나가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전두환은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창문을 열고 팔을 내밀었고 정현애는 그의 팔을 잡고 “우리는 5.18 가족들입니다. 사형수를 없애주세요 구속자를 석방해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구속자 가족들은 플래카드를 펼치며 “사형은 안된다 구속자를 석방해야 한다”며 외치는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권총을 장전하는 경호원도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끌어내어 졌습니다. 전두환은 전남도청을 들린 후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5.18 이후 최초로 현장에 방문한 전두환을 향해 직접 항의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뒤, 1981년 3월 31일로 5.18 관련자들의 대법원 선고 일자가 잡혔습니다. 사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4월 1일에 즉시 집행될 거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구속자 가족들은 전국의 대학들에게도 사전에 움직여달라는 요청을 비밀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이었던 윤공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1980년 5월 19일, 카톨릭센터 7층에 있던 집무실에서 금남로의 군인들이 저지르는 폭력을 목격했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죄책감에 수습대책위에 참여했었습니다. 구

속자가족들의 간절한 부탁에 그는 서울로 가는 길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 3월 31일, 대법원은 2심 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구속자가족들은 그 길로 명동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직후 연단에 올라선 그들은 마이크를 잡고 “우리는 5.18 가족들입니다”라는 말로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한 후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얼마 못가 잡혀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슬퍼런 군부독재의 시대였지만 천주교의 대표인 추기경의 집무실에는 함부로 침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김수환 추기경의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추기경은 그들은 환대해 주었습니다. 윤공희 대주교와 함께 전두환을 만나 “사형만은 막아달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은 “사형을 꼭 시켜야 겠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한 것처럼 1981년 4월 1일, 각 대학의 학생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속자 가족들은 단식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반발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 전두환은 특별사면 조치를 발표하여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을 징역 20년으로 감형하는 등 모든 관련자들에게 1단계씩의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1982년 성탄절 특사를 끝으로 5.18과 관련되어 구속된 사람들은 전원 석방되었습니다. 구속자가족들의 저항이 있었기에 더 이상의 죽음을 방지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조기에 석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5.18 끝난 후 가장 흑독했던 시절에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3. 입을 위한 행진곡

1980년 5월 27일, 최후의 항전이 있었기에, 오월은 끝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청을 점령한 계엄군은 사망한 시민들의 시신들을 망월동으로 옮겼습니다. 자연스레 그곳에 5.18 희생자들의 공동묘역이 조성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먼저간 사람들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느꼈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킨 윤상원의 죽음을 접한 그의 동지들을 깊은 슬픔과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1970년대부터 야만적인 군부독재에 저항해가며 활동하던 사람들이 광주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선도적인 활동을 했던 이들이 바로 ‘들불야학’에 소속된 이들이었습니다. 윤상원은 바로 그 들불야학의 강학(교사)이었습니다.

그해 오월을 전후로 들불야학에서 활동하던 일곱 사람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윤상원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의 주택은행에 취업하여 은행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회의감을 느껴 퇴사한 후 광주로 돌아와 노동자들과 함께 공부하는 들불야학의 강학으로 일반사회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년에 복학을 하면 어두운 현실과 싸울 것입니다”라는 일기를 남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결국 5.18 당시 10일간 투사회보를 만들어 진실을 알렸으며 마지막 연설을 한 직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기순은 1978년 전남대 역사교육과 3학년이었습니다. 그해 박정희 정권의 군사교육을 비판하는 전남대 교수들이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하였고 박기순은 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여 무기정학 당했습니다. 그는 굴하지 않고 공장에 위장취업하여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는 광주 전남지역 최초의 위장취업이었습니다. 1978년 7월에는 들불야학을 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들불야학에 강학(가르치며 배운다)과 학강(배우면서 가르친다)을 두고 광천동 시민아파트를 거점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강학과 학강은 피억압자와 함께하는 운동가적 관점으로 가르침과 배움을 주고 받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남미의 빈민들에 대한 교육학을 제시한 파울로 프레이리의 저서 페다고지를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박기순은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선구적으로 활동한 노동운동가였습니다.

그러나 1978년 12월 26일 새벽, 박기순은 연타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런 사고였습니다. 스물 둘, 박기순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윤상원은 그의 일기에 “불꽃처럼 살다간 누이야. 왜 말없이 눈을 감았는가? 훨훨 타는 그 불꽃 속에 기순의 낮은 한 송이 꽃이 되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피어난다”고 적었습니다. 박기순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황석영 작가가 조사를 낭독했습니다. 우연히 광주에 와있던 가수 김민기씨는 단 한번도 공개한 적 없던 노래 ‘상록수’를 그 자리에서 불렀습니다. 상록수의 가사는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참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박기순의 동지들은 눈물로 그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었던 1981년 5월, 살아남은 사람들은 들불야학에서 활동하던 중 세상을 떠난 윤상원과 박기순. 이 두사람의 영혼결혼식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들불야학 등지에서 그들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은 광주 운암동에 있던 황석영의 집에서 여러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 두사람을 기리는 노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남대생 김종률이 곡을 썼고 가사는 황석영이 백기완이 쓴 시 '뫓비나리'에서 일부를 차용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먼저간 임들을 기리는 노래를 작곡하고 두사람의 혼을 기리는 영혼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2월 20일, 5.18 당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안장되어 있던 망월묘역에서 윤상원과 박기순을 기리는 영혼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비밀리에 녹음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카세트 테이프 2,000개가 전국으로 배포되었고 '임을 위한행진곡'은 광주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 새날이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4. 진실을 알린 사람들

5.18의 진실을 가장 먼저 전세계에 알린 사람은 어느 독일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위르겐 힌츠페터. 독일 제 1공영방송 소속의 도쿄특파원이었습니다. 그는 1980년 5월 19일 라디오에서 우연히 광주에 대한 짧은 보도를 듣고 묘한 감세를 느끼고 즉시 광주로 향했습니다. 입국한 후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호텔 택시기사 김사복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힌츠페터는 1980년 5월 20일에 광주에 도착했고 이틀간의 상황을 생생히 카메라에 담은 후 5월 21일 오후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신라호텔에서 판매하는 쿠키를 구매한 후 쿠키통에 필름을 담아 검문을 피한 후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필름은 즉시 독일로 보내졌습니다.

1980년 5월 22일. 독일 공영방송의 8시 뉴스인 타게스사우는 광주에서 계엄군이 비무장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세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전세계가 광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 미국의 오전뉴스는 광주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도 진실이 전해졌습니다. 외신기자들은 광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 있던 독일과 미국의 한국교민들은 큰 충격을 받고 광주에 대한 기사와 보도들을 모으고 집회와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에 의해 세상을 떠난 아버지, 조사천의 영정사진을 안고 있는 아들의 사진도 외신기자에 의해 촬영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독일로 보내져 독일의 유명잡지 슈피겔지의 1면에 실려 광주를 상징하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 1면에도 5.18에 대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전세계 언론은 ‘군부의 학살’에 주목했습니다.



CBS뉴스 (5월 28일)



정부는 광주사태의 원인을 공산주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왜곡함으로써



시위가 계엄령 반대와 군부의 과잉진압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군인들의 앞에 나온 사람은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았다고 썼습니다.



부상당한 사람들이 길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 군인들은 다시 한번 두들겨 때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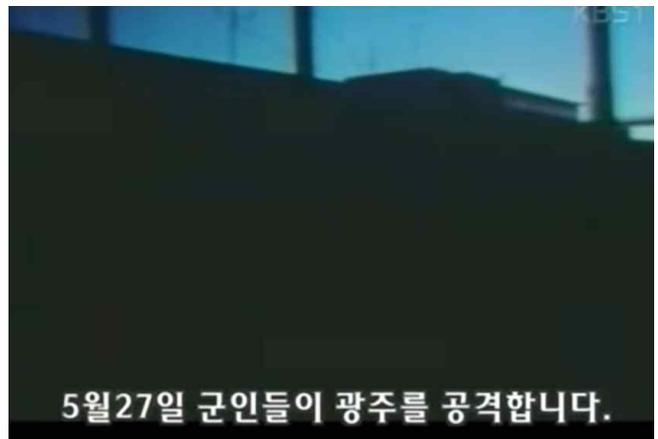
사망자수는 최소한 100명이상입니다. 곧이어 사망자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우리아들, 우리 어머니, 우리 딸,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저기에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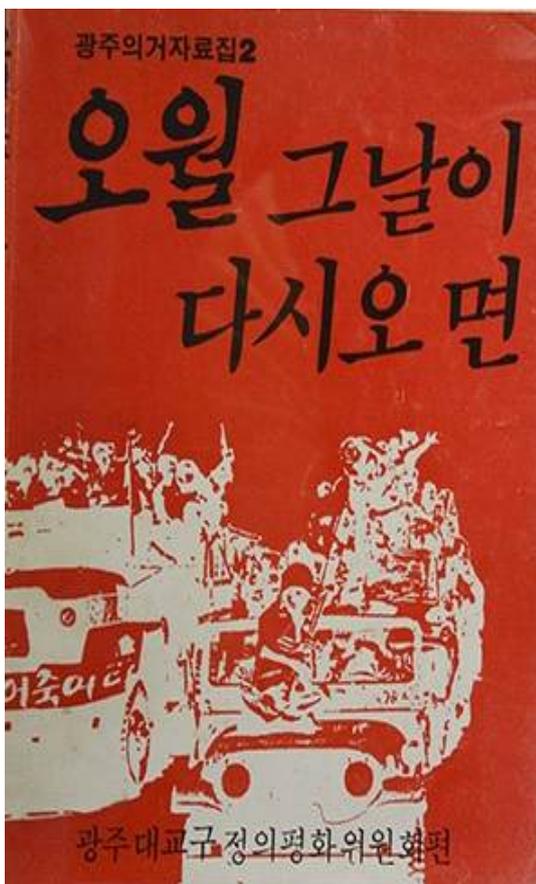
광주는 시민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5월27일 군인들이 광주를 공격합니다.

5.18 이후 독일과 미국에 있던 교민들과 유학생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광주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모아서 광주로 밀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5.18을 다룬 다큐멘터리 ‘오광주여’를 제작하여 역수출했습니다. 이러한 사진과 영상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마주한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이 영원히 변화할 것을 실감하고 학생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광주의 진실은 빠르게 전국으로 알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은 광주의 이름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청년들은 독일에서 반입한 사진들을 이용해 오월 사진집을 만들었고 대학생들은 각 대학에서 수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에게 그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주의 진실이 확산됨에 따라 세상은 변화했습니다. 사회에 온존하던 수많은 것들이 광주의 사진과 영상이 퍼져감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광주항쟁은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광주항쟁은 남한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우연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이 죽지않고 대학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미팅을 하고, 섹스를 하고 있었던 까닭은 지극히 단순했다. 1980년 5월의 광주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울이나 부산, 평택이나 강릉쪽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광주항쟁은 1980년대 이십대를 보낸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우연한 존재로 바꿔버렸다. 그걸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을 시작하고 조직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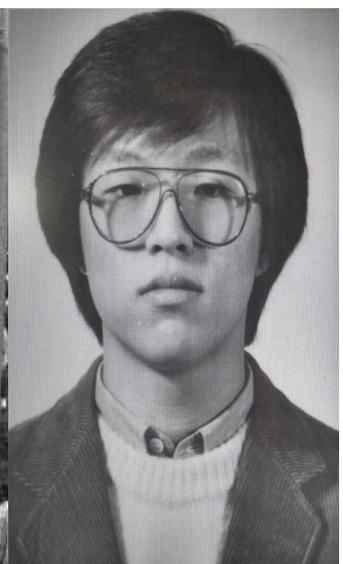
사회 각계의 인물들도 5.18의 진실을 알게된 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5월 18일 야권의 지도자 중 한사람이었던 김영삼은 5.18 3주기를 맞아 23일간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1984년 5월 18일에는 김대중과 김영삼이 손을 잡고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15·18 3周맞춰 시작... 咸錫憲 등 28명동조



1986년에는 5.3 인천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거리로 나온 인천의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5.18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였으며 연행된 시민들을 가혹하게 고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987년 1월 14일, 경찰에 연행되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던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이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수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987년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5.18 7주기 추모미사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2천여명의

신도가 참석했고 5.18 당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는 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부 미사가 끝나고 김승훈 신부가 제단에 올라가 조심스럽게 준비해 온 원고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 제목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그의 목소리는 떨렸으며 참석자들도 함께 가슴 졸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3,100자 분량의 폭로는 역사의 소용돌이를 휘몰아치게 했습니다. 4.13 호헌조치를 발표한 전두환 군부에 대항하여 학생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나 5.18 때 죽을까봐 무서워서 숨어있었다”는 일기를 남기기도 했던 청년이 쓰러지자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6월 항쟁’입니다. 군부독재세력은 결국 1987년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이한열은 1987년 7월 5일,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1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5.18 영령들이 묻혀있는 망월묘역에 묻혔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외쳤던 민주주의는 결국 7년만에 ‘대통령 직선제’라는 형태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광주 이후 광주를 알리고 광주의 이름으로 싸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월, 그날이 다시 와서는 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월 그날 이후 오월은 이 사회의 가장 첨예한 전선이었습니다.



5. 심판대에 선 학살자들

오월의 이름으로 이 사회는 수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그날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6월항쟁 직후 치뤄진 1987년 대통령선거는 야권의 지도자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모두 출마하는 분열로 인해,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었던 노태우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광주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994년,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은 294명의 연서로 전두환, 노태우 등 35명의 학살자들을 서울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1년넘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이면 공소시효가 지나버리기 때문에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1995년 7월 18일, 검찰은 5.18과 관련된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시민을 학살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익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검찰의 답변이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5.18 당사자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광주는 다시한번 침예한 전선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주목했습니다.



한부환 당시 서울지검 1차장 / 지난 1995년 7월 18일



전국 달군 5·18국민대회

어제 서울·부산등 6개도시서...특별법축구 평화적 거리행진도

5·18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5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평화적 거리행진도 벌였다.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5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평화적 거리행진도 벌였다.

“5·18 진상규명” 전국 시위

주요도시 집회·서명운동...대학생 광주 집결
대통령 담화비난 특별법 제정 촉구

5·18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전국 시위가 14일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열렸다. 대학생들은 광주로 집결하며, 대통령 담화비난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외쳤다. 시위자들은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비난했다. 시위자들은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비난했다. 시위자들은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비난했다.



“전두환·노태우씨 5·18때 광주 갔다”
전교사 사령부서 진압작전 논의

한편 국회에서의 논의 역시 심상치 않았습니다. 5.18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공방이 진행된 것입니다. 11월 24일,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을 미리 감지한 김영삼 대통령은 5.17 쿠데타 관련자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습니다. 집권여당이던 민주자유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5.18 특별법 제정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5.18 관련 내란세력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5.18 관련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은 당혹하였고 11월 30일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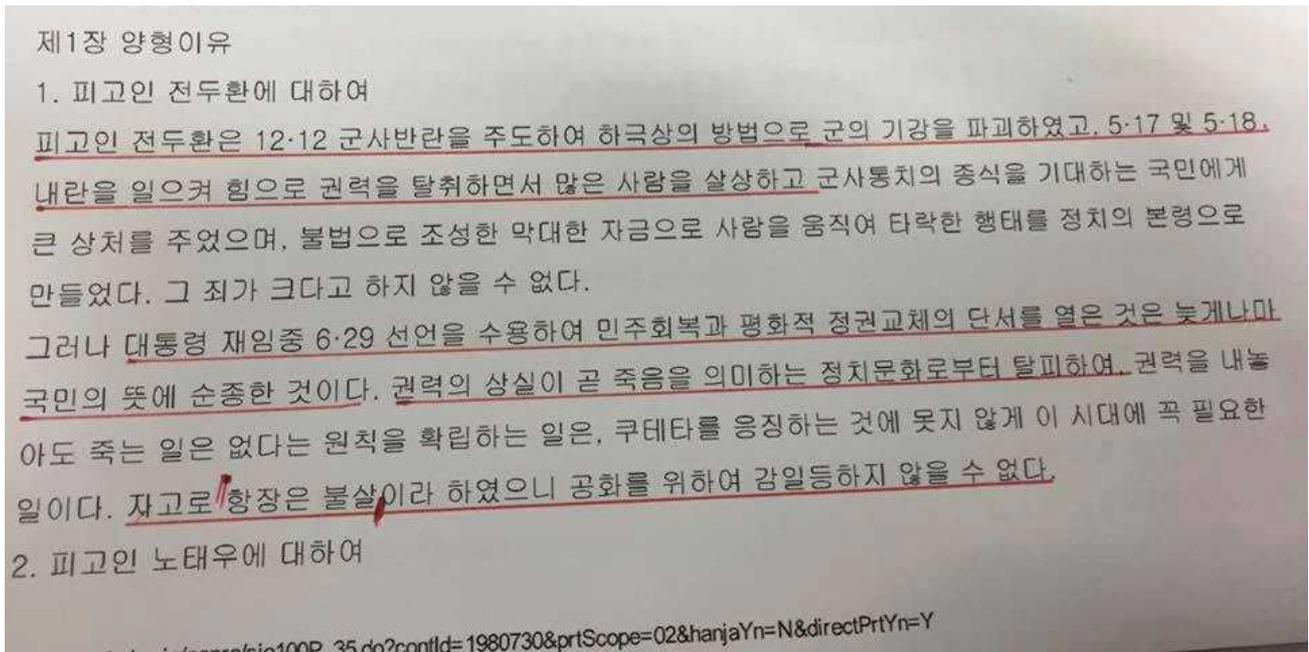
전두환은 “5, 6공 등 과거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은 좌파운동권의 주장과 같다며 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현충원을 참배한 후 고향인 경남 함천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충원은 그가 반란과정에서 살해한 장교 및 초병들이 묻혀있는 곳이었습니다.

1995년 12월 3일, 검찰은 이러한 전두환의 행위를 도주로 간주하고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발부받은 구속영장으로 전두환을 그의 고향에서 체포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7 쿠데타에 관련된 이들 역시 하나 둘 구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반란수괴, 반란모의 참여, 반란주요임무 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 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주요임무 종사, 내란목적 살인 등 헌정사상 가장 중대한 범죄들이었습니다.

1980년 당시로 따지자면, 전두환 보안사령관, 노태우 9사단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황영시 1군단장, 유학성 국방부군수차관보, 차규현 수도군단장,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보안사 수사국장, 이희성 계엄사령관, 주영복 국방부장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장세동 30경비단장, 박준병 20사단장, 신윤희 수경사 헌병부단장, 박종규 3공수 15대대장 등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모두 반란과 살인, 학살의 주범들이었습니다.



“자고로 항장은 불살이라 하였으니 공화를 위하여 감일등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전두환에게 내려진 사형이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이유였습니다.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공화를 위하여 감일등하지 않을 수 없다. 학살의 죄를 저지른 반인륜 범죄자에게 법원은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부터 전두환 등에 대한 사면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은 ‘국민대화합’이었습니다. 사면에 대해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다수였던 47.9%의 시민들이 이에 반대했으나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당선자와 상의한 후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반란에 가담한 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구속 750일 만에 사면된 전두환은 기자들 앞에서 “국민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언급한 후 당면한 경제위기를 맞아 열심히 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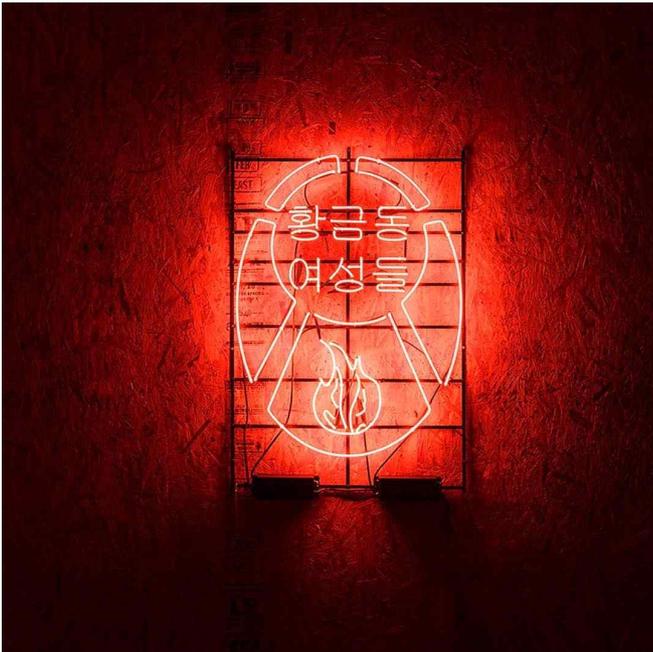
1980년 5월부터 이어진 17년간의 시간 동안 윤상원이 말한 것처럼, 그날 도청에 남은 사람들은 역사의 승리자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상들이 남아있으며 그날 학살에 가담했던 이들은 멀쩡히 살아남아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 '황금동 여성들' 그리고 콜박스 사거리1) -

5.18 때 피를 나눈 '황금동 여성들'은 왜 잊혔나

시위대 숨겨주고, 헌혈 앞장 섰지만 역사에 남지 못한 사람들... '황금동 여성들' 재조명해야



"내 몸은 더러워도 내 피는 깨끗해. 어서 내 피도 뽑아달란 말이야!"

80년 5월 광주의 대형병원 헌혈 장비 앞에서 자신들도 헌혈할 수 있게 해달라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었다. 도시는 넘쳐나는 부상자들로 피가 모자랐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직업의 사람들 피는 헌혈에 부적합하다는 분위기가 일부 형성돼 있었다. 그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내 몸은 더러워도 내 피는 깨끗해!' 절규했다. 그들은 헌혈 줄에 늘어선 여느 시민들처럼 죽어가는 부상자들에게 피 한 방울이라도 보태고 싶어 했다.

사람들은 그 봄에 시내 전역에서 그들을 자주 목격했다. 그들은 항상 무리 지어 다녔다. 단체로 주먹밥과 물, 음식을 지어 나르며 시민군 취사를 돕는 등 격렬한 현장마다 어김없이 출몰했다. 속출하는 부상자들로 피가 모자라는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팔을 걷고 헌혈 행렬 맨 앞줄로 섰다. 그런데 자신들의 피를 꺼림칙해 하는 현장 분위기에 그들은 좌절했다. 사람들은 그들 피의 청결을 의심했다.

사람들은 알았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그들은 도시의 음지에서 긴 세월 숨죽여 움츠렸다가 그 해 봄 혁명의 기운을 받아 양지로 솟아난 5월의 꽃이었다. 그들 스스로 신분을 밝힌 적 없지만 사람들은 저절로 알 수 있었다. 계엄군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과격한 언행과 자유분방함 그리고 무엇보다 외모에서 풍기는 독특한 분위기로 어렵지 않게 그들이 '그곳' 출신임을 식별했다. 그들은 모두 젊은 여성들로, 동종업종 종사자들이었다.

80년 무렵 광주 시내 중심가 한 구역에는 대규모 유흥가가 형성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황금동 콜박스거리'라고 불렀다. 그곳은 대표적인 우범지대로 도시의 치부였다. '황금동 콜박스'라는 지명은 도시가 애써 존재를 부정하는 금단의 구역이었고 '황금동 콜박스여자'들은 불결하고 두려운 여성들로 도외시되었다. 그럼에도 '황금동 콜박스' 유흥지대는 넘치는 공급에 상응하는 은밀한 수요가 받쳐주어 도심 한복판에서 꾸준히 성업 중이었다. 퇴폐와 환락의 상징 '황금동'은 민주주의와 저항의 메카 '금남로'와 지적에 자리하고 있었다.

1) 18.05.18 오마이뉴스 '5.18때 피를 나눈 '황금동 여성들'은 왜 잊혔나' 전문 발췌, 글: 정미경

'황금동 콜 박스' 거리의 직업여성들은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군단의 하나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들은 무리 지어 행동하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둔감했다. 남성들에 대한 경계심도 허술했다. 총검을 장착한 계엄군들도 하찮게 여겨 면전에서 욕설을 퍼붓는 등 무모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여성들에게 총은 지급되지 않았다. 시민군들이 총으로 싸울 때 무기가 없는 그녀들은 쟁돌을 던졌다. 계엄군들에게는 '정체불명의 악질 여자들'이었지만 시민군들에게는 주먹밥과 음식, 군자금을 보급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다정한 누이들이었다.

밤거리 흉등 아래서 웃음을 팔던 여자들이 한낮 광장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푸고 물을 길어 날랐다. 악착같이 쟁돌을 깨 모으고 시민들의 구호를 따라 외쳤다. 개체로서 그들은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면치 못하는 화류계 여성이었지만 단체로 광장에 대열을 이루니 마치 아마조네스 여인들처럼 강철대오를 자랑하는 여성 전사들로 부상했다. 낯설고 신기한 시내 직업여성들의 대대적인 시위 동참은 아연 시민들의 전의와 투지를 추동했다.

그녀들의 집단 행동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앞선 행동으로 인한 신분 노출 위험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시위대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분담했다. 자연스럽게 시민들도 그들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동등한 광주시민으로 대우하기에 이르렀다. '불결하고 불경스러운 불가촉천민' 취급을 받다가, 평범한 '인간'으로 드디어 신분이 상승됐다.

'황금동' 여성들은 5.18민중항쟁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구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황금동' 일대는 유흥업소가 주류인 변화가로 금남로, 도청과 인접한 곳이었다. 일반상가와 비교되는, 호객에 용이한 개방적인 구조의 가게들이 경쟁하듯 다닥다닥 밀집해 있었다.

비슷한 모양에 복잡한 구조의 상가 지형은 계엄군들에게 쫓기는 시민들에게는 최적의 피난처였다. 상품을 진열, 판매하는 일반 상가건물과는 다른 유흥업소 특유의 내부 구조도 몸을 숨기기에 적합한 형태였다. 은신에 유리하고 시위 격전지 금남로와 가깝다는 지정학적 특징 외에 시위군중이 황금동 골목을 도주 경로로 택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황금동 여성들은 항쟁 전, 후에도 부담스러운 시위 군중을 결코 내치는 법이 없었다. 금남로와 도청 앞 광장에서 전개된 시위와 집회의 뒤끝은 항상 백골단과 시위대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으로 확대되었다. 경찰, 백골단에게 쫓겨 총장로 지나 황금동까지 도망쳐온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이 여성들은 기꺼이 문을 열어 주었다. 영업상의 불이익과 심각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사람들을 적극 숨겨주고 보호했다. 그런 황금동 여성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5.18의 시위군중 역시 본능적으로 황금동 골목으로 뛰어 들었던 것이다.

5.18광주민중항쟁 기간동안 실로 많은 시위군중이 그녀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계엄군들은 사적인 영업 장소에 함부로 들이닥쳐 범인 은닉의 혐의가 짙은 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살벌한 추궁과 수색을 벌였다. 황금동 여성들은 계엄군들에게는 폭도들을 고질적으로 숨겨주는 공범자로 이미 찍힌 상

태였다. 남성들을 상대하는 직업여성인 그녀들은 계엄군들을 따돌리는 데 탁월한 전략가들이었다. 침착하고 태연하게 기지와 지략을 발휘하여 계엄군들의 살벌한 추격을 무력화시키곤 했다.

영업 근무 복장인 한복치마 안에 사람을 감싼 채 탁자 밑에 숨겨 놓고 앉아 능청스럽게 계엄군을 상대했다는 일화는 시민들의 경험담에 가장 많이 등장한다. 한복치마 안에 사람을 숨기고 앉아서 탄정을 피우는 것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임기응변이었다. 그만큼 시위 군중을 숨겨 주는 일이 그녀들로서도 위험과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다.

황금동 여성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시민들의 다양한 무용담은 두려움과 공포로 기억되는 80년 5월의 풍경을 드물게 감동과 스릴로 회상할 수 있는 무궁한 이야기 거리를 제공한다. 당시 그녀들의 치마폭이란 취객들을 흘리는 변장이 아닌 수많은 생명을 소생시킨 천사의 날개였다. 도시의 따뜻한 음지 '황금동'은 그녀들이 있어 혁명의 꿈과 희망이 물결치는 황금빛 골짜기였다.

부조리한 사회구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최하위계층 여성들이 민주주의 투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외부인의 시선으로는 믿기지 않을 일이다. 그러나 80년 광주는 상식과 통념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별천지였다. 거리의 녀마주이, 구두닦이, 성판매 여성들까지 평범한 시민들과 공평하게 세상의 주인 노릇이 가능했던, 완벽한 대동 세상이었다. 그 중 황금동 여성들은 단연 시민들의 주의를 끌었다. 금남로에서, 충장로에서, 황금동에서, 병원현혈대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녀들의 강렬한 모습은 시민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러나 '황금동 콜 박스 여성들'을 특정한 5월 관련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5.18 광주민중항쟁'을 수록한 자료 문서, 영상, 사진 어디에도 그들에 관한 제대로 된 기록은 없다. 취사봉사대 양동시장 대인시장 상인들, 산수동 광천동 지산동 학동 주민들, 전남대학교 학생들, 시민군, 여성가두방송원들, 차량경적시위대 택시운전사들, 기름을 무상으로 제공한 주유소업주 등 구역별, 성별, 역할별로 분류된 어느 단체명에도 그녀들은 소속되어 있지 않다. '황금동 콜 박스 여성들'이라는 항쟁 일원으로서의 고유 명칭 하나 얻지 못한 채 기록에서 소외되었다.

'황금동 여성들'의 '대단했던' 에피소드들은 시민들 사이에 가끔 전설처럼 회자될 뿐 정통역사의 한 페이지도 할애받지 못한 채 야사로 밀려나 버렸다. 80년 당시 그들을 불결한 병균의 보균자로 단정 짓고 현혈 대상에서 걸렸던 세상의 편견과 선입견이 38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경직된 역사 관념과 무관심의 형태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제가 당시 그분들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부상 치료받고 나오니 옷하고 신발을 구해다 저에게 입혀주더군요. 옷은 다 찢기고 신발도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알아서, 헌옷이긴 하지만, 옷하고 신발을 챙겨줬습니다."

한광진 5.18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무총장의 기억이다. 그는 당시 부상, 치료과정에 황금동 여성들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모면했다고 회상했다. 옷과 신발을 챙겨주고 길 안내를 해주는 그 여성들이 '황금동 여성들'이라는 건 병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서 알았다고 한다.

"그리고 나선 그분들이 저에게, 어느 길로 가면 계엄군이 있으니 피해서 가라며 안내를 해 줬습니다. 그분들이 길을 알려주는 바람에 계엄군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분들을 찾느라고 황금동을 다 뒤졌어요. 근데 못 찾았죠."

"선생님께서 나중에 황금동을 찾아가셨다고요?"

"네. 그분들 덕분에 제가 목숨을 구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당시 그분들이 안전한 길을 안내해주지 않았다면 분명 계엄군에게 큰일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맙다는 감사의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못 찾았습니다. 집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황금동을 다 뒤졌는데도 끝내 그분들을 못 찾고 말았습니다."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황금동 여성들을 비롯한 낭마주이, 구두닥이, 거지 등 무연고 희생자들에 대한 연민과 부채감을 안고 산다. 그들은 모두 하층민들로 뚜렷한 연고가 없다는 점 때문에 희생자 집계에도 대부분 누락될 수밖에 없었다.

5.18민중항쟁 기록물 보존 작업에 많은 시민이 직접 참여했다. 후세에 올바른 5.18을 고증하기 위한 시민들의 정성이 문서, 영상인터뷰, 육성, 사진 기부 등 다양한 형태로 취합되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겪은 생생한 5.18 경험담을 귀중한 사료로 제공했다. 그 덕분에 현재 5.18광주민중항쟁은 방대한 양질의 자료를 유산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황금동 콜 박스 여성들'에 관한 증언은 찾아볼 수 없다. '황금동 콜 박스 여성들'의 존재를 언급하는 간접 증언 한 줄조차 찾기 힘들다.

황금동 여성들의 5.18 참여는 역사에서 공백 상태로 배제되었다. 38년 세월, 80년 5월의 명예와 영광, 아픔을 공유하는 후일담 안에서도 그녀들은 철저히 침묵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를 지워버렸다. 지금 우리는 사회 의식이 꽤 성숙한 것처럼 위시해도 과거 화류계 종사자의 커밍아웃 행위를 편견 없이 받아들일 만큼 너그럽진 않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그 시절의 유흥업소 경력 누설이 전제되는 경험담을 1인칭 고백으로 기대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자료 수집 방식의 한계에 갇혀 황금동 여성들의 5.18 참전이라는 위대한 역사는 광주시민들의 기억에서만 맴돌 뿐 대외적 공신력을 전혀 얻지 못한 채 영영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함께 존재했으나, 잊혀진 여성들... '야사'로 떠도는 기억

'황금동 콜 박스 여성' 경우처럼 화류계 여성들이 불의에 항거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부르짖은 집단차원의 저항은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드물다. 그만큼 황금동 여성들의 에피소드들의 감동 지점은 영화보다 극적이고 소설보다 감동적이며 상상보다 허구적이다.

또 다른 시민 정경숙(여, 53세)씨는 황금동 여성들에 대한 남다른 기억을 갖고 있다. 당시 그는 중학 생으로 집이 역시 금남로에서 멀지 않은 '동명동'이었다. 주민들이 단체로 시민들 물을 나르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물이랑 밥 지어서 날라주고 와서 엄마랑, 동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는 거예요. 시내 황금동 여자들이 제일로 열심히 한다고. 음식도, 시민군들 뒷바라지 하는 것도 황금동 여자들이 제일 열심히 라고."

그는 어릴 적 친구들이 황금동 주택가에 살아 자주 놀러 가곤 했다고 한다.

"엄마랑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 듣고 신기했어요. 황금동 여자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요. 어릴 때 황금동 친구 집에 놀러 가면서 그 앞을 자주 지났거든요. 친구 집 갈 때마다 무서워서 잘 쳐다보지도 못했던 여자들이 음식하고 물 나르고 한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됐어요. 그분들이 헌혈도 제일 많이 했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죠."

그러면서 그는 황금동 여성들이 5.18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세한 원인을 금남로와 가까운 환경 탓으로 확신했다.

"우리 동네만 해도 금남로하고 가깝다 보니 주민들이 뿔뿔 뿜쳐 시민군들 뒷바라지 하고 남자들도 많이 나갔어요. 오죽하면, 그 후에 우리 동네는 5월에 제사가 한꺼번에 몰린 동네가 되 버렸어요. 그만큼, 시내 가까운 영향이 컸죠. 그런데 황금동은 어땠겠어요. 금남로랑 딱 붙어 있잖아요."

지금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정씨는 타지에서 가끔 5.18 경험을 말할 때라도 황금동 여성들 이야기는 잘 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처음, 사람들이 황금동 이야기를 들려주면 잘 믿으려 하지 않고 되레 꾸며낸 이야기 대하듯 하곤 했던 경험 때문이다.

황금동 여성들의 5.18항쟁 참전 의미를 혹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의 일시적 호기심이나 분위기에 휩쓸린 순간적 돌출 행동으로 폄하한다면 그것은 5.18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이다.

그들이 계엄군진영을 향해 극렬한 저항을 드러내고 시민군들에게 식량과 군자금을 조달하고 헌혈 침상 위에 가장 먼저 팔을 걷고 눕고 시위 군중을 적극적으로 숨겨주었던 행위 어느 것 하나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는 자신들의 도시공동체와 시민들을 향한 강한 애정과 연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갖춰지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모험이었다. 5월 항쟁에서 보여준 그녀들의 용기와 헌신은 그들이 이 사태의 본질을 적확하게 꿰뚫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그들도 어느 광주시민들처럼 깨달았던 것이다. 이 상황이 광주라는 문제 도시를 계도화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과 명분을 편취하기 위한 정치군인들의 사악한 음모하는 것을. '전두환이, 전라도 사람을 말리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단순 유언비어만이 아닐 수 있음을 무자비한 계엄군들의 만행은 증명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나와 가족, 이웃, 도시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자구책으로 총을 들어야 했다. 남자들은 총을 들었고 총이 없는 여자들은 후방에서 지원했다. 모든 시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항전태세로 전환한 상황에 유흥업소 직업 여성들의 출현이라고 하등 이상할 것 없는 현상이었다.

더구나 당시 그들이 몸담고 있는 황금동 일대는 근대 이후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시국 관련 집회와 시위가 발발하던 민주화의 성지 '금남로' 생활권에 속해있었다. 거리에 살포되는 유인물과 벽에 나붙는 대자보가 시선을 붙잡는다. 데모꾼들의 구호와 함성, 민중가요가 귀를 자극한다. 최루향기마저 내성이 생긴다. 백골단의 곤봉에 맞아 피 흘리며 끌려가는 사람들을 모습을 일상으로 목격한다. 민중가요 몇 소절쯤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된다.

매일같이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그 모든 시위 친화적인(?) 환경이 그들의 일터였다. 그녀들의 직업 환경이야말로 의식화 교육의 불온한 현장 학습장이었던 셈이다. 간접적인 학습효과와 의협심 강한 그들의 기질이 만나 5.18항쟁에서 그 숨겨진 투지와 전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됐던 것이리라. 그녀들은 어차피 80년 5월의 여인이 될 운명이었다.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채 계엄군의 총검 앞에 던져진 광주의 공포와 외로움은 곧 세상으로부터 멀리 받고 짓밟히는 직업여성인 자신들의 처지와 동격이었다. 계엄군에 맞서 도시는 계급과 차별이 타파되고 빈부귀천이 무의미해졌다. 시민들은 무상으로 물자와 식량을 나누었고 그래서 도둑들도 거지들도 부정확한 활동을 접었다. 세상과 단절된 도시는 스스로 해방구를 선포하고 위대한 자치공동체를 구현했다.

그런 황홀한 세상이야말로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한 운명으로 여기며 살았던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에게는 꿈같은 이상향이었다. 그래서 그녀들은 거친 밑바닥 인생을 헤치며 단련된 무모함과 대범함을 무기로 신명 나게 싸웠다. 난생처음 밝은 광장에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구호를 외치고 박수를 치고 음식을 나누는 순간만큼은 그 어떤 편견 어린 시선을 받지 않고 민주시민으로 인식될 수 있었을 것이다.

광주는 80년 5월 황금동 여성들에게 빛을 쬐다

'황금동 콜 박스 여자들'이라는 세간의 호칭은 그들의 모호한 정체성을 말해준다. 광주민중항쟁의 주역 '황금동 주민'인 자연인집단으로 존칭되어야 한다. 그것이 38년 동안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다. 대외적으로 백지상태인 황금동 여성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광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존중받아 마땅할 의인들이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와 존중에서 배제된다면 자유, 평등, 인권, 정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표방했던 5월 정신에도 배치된다. 그해 봄, 이 도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도덕적 의무는 이 여성들에 의해 역으로 실현되었다. 광주는 80년 5월의 황금동 여성들에게 빛졌다.

현재 황금동 일원은 대대적인 도심 정비 사업으로 예전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 최신 유행과 세련된 문화의 거리로 일신하여 젊은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핵심 변화가로 변모했다. 그 옛날 직업여성들의 호

객행위와 폭력배들의 무질서가 난무하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지금 그 거리의 활기찬 자유와 세련된 문화를 만끽하는 젊은 세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불과 몇십 년 전 그곳에서 자신들 또래의 젊은 여성들이 반강제로 억류된 채 웃음을 팔아야 했던 슬픈 사연을. 그럼에도 그곳은 아름답고 용감한 여성전사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적들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지켜낸 혁명의 사적지라는 사실을.

황금동에선 혁명의 꿈과 낭만이 황금처럼 물결쳤다. 그렇게 어느 해 봄 황금동 지명에 얽힌 유래는 전설이 되었다. 80년 5월 황금동의 여성들은 봄날의 광장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혁명의 꽃이었다. 38년 동안의 잠복기는 증명한다. 그들은 타락, 퇴폐, 문란, 무질서를 퍼뜨리는 무서운 보균자가 아니었다. 자유, 민주, 정의, 사랑, 연민 등의 강력한 항체를 지닌, 그들의 피는 뜨겁고 맑았다.

들불 7열사를 기리며

<들불열사 박기순>



(1957년 11월 7일 ~ 1978년 12월 26일)

1. 학생운동에 뛰어들다

박기순은 1957년 11월 7일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태어났다. 그는 보성여중을 졸업한 후 광주에 위치한 전남여고에 진학했다. 전남여고는 3.1 운동 이래 최대 규모의 항일 독립운동이었던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진원지였다. 1929년 11월 3일, 일본인 학생의 성희롱에 분노한 광주고보와 광주여고보 학생들이 일왕 메이지의 생일을 기념하는 명치(明治)절 행사장을 박차고 거리에 진출했다. 이후 조선 팔도 198개 학교 5만 4천명의 학생들이 그들의 뒤를 이었다. 해방 직후, 광주여고보는 전남여고가 되었다. 박기순은 전남여고 재학 시절 교정에 위치한 '광주학생항일운동 여학도 기념비'를 보고 교지에 글을 남겼다.

"우리 어찌 잊으리 조국의 자유를 외치던 언니들의 외침을! 학생운동의 발상지로서 빛나는 전남여고와 더불어 그대(기념비)는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라."

이 대목에서 5.18 민주화운동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이 남긴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역사가 주는 영향력이란 수치화되지 않았을 뿐, 엄청난 것이다." 윤한봉이 광주일고(광주고보 후신) 교정에 위치한 광주학생항일운동 기념탑이 광주일고 학생들의 의식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국 역사의 흐름에 작용했음을 회고하며 남긴 말이다.

1976년, 박기순은 전남대학교 국사교육과 (현 역사교육과)에 진학했고, 그 직후 사회과학서클 '루사'에 합류했다. 1971년 민족사회연구소 설립 이래 전남대에는 여러 사회과학서클들이 존재했고, 이들은 함께 공부를 하거나, 야유회를 다니는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박기순은 또한 동료 활동가들에게 전설적인 선배였던 박형선의 여동생이기도 했다. 박형선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의 주역으로, 박정희 정권이 4월 8일까지 자수할 것을 권고하자 그 다음날인 4월 9일에 전남대 반(反)유신 시위를 감행했다. 박형선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집행정지로 이듬해에 풀려났다. 그러나 박기순은 스스로는 단 한번도 박형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어느날 이를 의아하게 여긴 동료들이 그 이유를 묻자, 박기순은 "어떤 일을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지, 누군가의 동생이라는 걸로 하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당대의 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로 주체성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

2. 제적과 위장취업

1978년 6월 27일, 전남대 교수 11명이 선언문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해당 문건은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국민교육헌장'에 대한 정면도전이였다. 다음날, 중앙정보부는 선언문에 서명한 교수 전원을 체포했다. 이 소식은 삼시간에 전남대 재학생들에게 알려졌다. 6월 29일, 전남대생들이 중앙도서관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전남대 활동가 노준현이 연설과 함께 집회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노준현은 교직원들에게 끌려갔으며, 경찰에 인계되었다. 분노한 학생들은 중앙도서관 2, 3층을 점거하고 밤늦게 까지 농성을 진행했다. 이날 100 여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다음날, 전남대 측은 7월 5일까지의 휴교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시위는 이제 시작이었다. 이날 시위는 박기순, 문승훈, 박석삼이 주동했다. 이들은 전남대 정문에 모인 학생들과 함께 계림동 녹두서점까지 행진했다. 이 시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헤쳐 모여' 전술이 등장했다. 이들은 시위가 경찰에 의해 봉쇄될 경우에 대비, 차기 집결장소를 사전에 공지했다. 총장로 진출에 실패하면, 1시에 한국은행 앞에서, 4시에 조선대 정문에 집결하자는 게 이날 이들이 세운 전략이었다. 시위는 성공적으로 조선대 정문까지 진행되었다. 경찰은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다른 곳에서 등장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에 경악했다.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과 관련하여 1주일간 지속된 시위 결과 전남대, 조선대 재학생을 비롯한 시위 참여자 500 여명이 연행되었으며, 이중 14명이 구속되었다. 전남대 3학년생이던 박기순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서 제적되었다.

얼마 후, 박기순은 공장에 위장취업했다. 취업처는 광주 광천동에 위치한 아시아자동차(현 기아차) 하청업체 동신강건사였다. 1년만 더 학교에 다녔다면 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대학을 버리고 공장으로 갔다. 광주 전남 지역 최초의 위장취업이었다.

3. 들불야학을 만든다

이보다 앞선 1977년 박기순은 광주 산수동에서 진행된 꼬두매 야학에 참여했다. 해당 야학은 운동성을 갖춘 곳은 아니었고, 검정고시 공부를 중점으로 운영되었다. 꼬두매 야학은 불과 10개월 만에 문을 닫았지만, 박기순은 그곳에서 야학 운영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그해 겨울, 박기순은 서울로 올라가 여러 노동운동가들과 교류하며 노동운동 동향을 살폈다. 특히 서울의 노동야학 '겨레터 야학'을 둘러보고 깊은 울림을 받았다고 한다. 1978년, 겨레터 야학 활동가 전복길, 김영철, 최기혁이 광주에 왔다. 셋은 모두 광주 출신이었다. 전복길과 김영철은 서울대 재학생으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입영영장을 받은 상태로 광주에 왔다. 겨레터 야학 활동가들이 광주에 왔다는 소식을 접한 박기순은 이들을 찾아가 함께 야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네 사람은 뜻을 모았고,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나섰다. 박기순의 권유를 받고 신영일과 임낙평이 준비팀에 합류했다. 최기혁, 김영철은 고등학교 동창 나상진을 끌어들이었다. 들불야학 1기 '강학'이 형성되고 있었다. 박기순, 전복길, 김영철, 최기혁, 신영일, 임낙평, 나상진. 여기에 입학식 이후 이경욱이 합류하여 들불야학 1기 강학은 총 8명이다.

이들은 함께 파울로 프레이리의 저서 '페다고지'를 강독했다. 해당 책은 교육의 의미를 강조하며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동등한 주체로서 만남을 가질 때, 비로소 교육은 자유의 실천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들불야학에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진부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들불야학에는 '강학'과 '학강'이 있었다. 강학, 배우면서 가르친다. 학강, 가르치면서 배운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대체한 이와 같은 새로운 구분은 그 자체로 훌륭한 실천이었다. 들불야학의 이름 '들불'은 박기순이 직접 지었다. 그는 유현종의 소설 '들불'에서 이름을 따오며, '들불'이라는 단어가 '미국 노동운동사'라는 책에도 등장한다며 관련 내용을 제시했다. 노동절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였다.

"1884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방직공장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쟁의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쳤다. 8명이 폭동죄로 체포되어 5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오거스트 스파이츠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하지만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누구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박기순의 안은 가볍게 통과되었다. 다음으로 야학을 운영할 장소가 논의되었다. 노동야학에 걸맞게 광주 유일 공단지역인 광천동에 터를 잡자는 안이 나왔다. 그러나 공간을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박기순은 주변 활동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사정을 들은 카톨릭 농민회 장두석이 친하게 지내던 조비오 신부에게 광천동성당 관계자를 연결받았다. 박기순이 직접 관계자를 찾아가 부탁했고,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광천동성당 교리학습실을 빌릴 수 있었다.



이어 본격적인 홍보가 시작되었다. 첫 학기 홍보 결과 35명이 들불야학에 1기 학강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1978년 7월 23일, 들불야학 입학식이 열렸다. 광천동 마을 운동가 김영철(동명이인)과 광천동성당 신부가 축사를 했다. 곧 1기 강학 전복길, 김영철이 군대에 입대했다. 예정된 일이었다. 새로운 강학이 필요했다. 함께할 사람을 수소문한 결과 전용호, 배환중 등이 대기강학으로 합류했다. 박기순은 대학 졸업 후 서울 주택은행에 취업했던 윤상원이 광주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윤상원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취업에 성공했지만, 6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광주에 돌아왔고, 광천공단에 취업했다. 박기순은 윤상원을 찾아가서 들불야학 참여를 권유했다. 윤상원은 처음에는 박기순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박기순의 삼고초려에 결국 들불야학에 대기강학으로 합류했다. 1978년 11월 8일, 전용호(2기 강학)는 이날 열린 대기강학 세미나에서 윤상원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4. 갑작스러운 죽음

1978년 12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12월 24일, 광천동성당 크리스마스 행사에 들불야학 팀이 단체로 참여했다. 이들은 전남대 연극반 출신 활동가 박효선이 만든 연극 '우리들을 보라'를 단체로 공연했다. 해당 연극은 광천공단에서 일하는 어느 노동자의 서사를 통해 당대의 노동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임금체불과 노동청의 무능함은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다. 박효선은 3기 특별강학으로 들불야학에 합류하여 '문화'를 다루게 된다. 윤상원이 들불야학에 합류하고 두 달 남짓, 들불야학은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공연이 끝난 후 들불야학 강학 및 학강들은 윤상원의 자취방에서 뒷풀이를 했다. 윤상원은 광천시민아파트에 방을 얻어 백재인 학강과 함께 거주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박기순과 들불야학 활동가들은 광주 화정동에 뿔감을 하러갔다. 이들은 광주 소년원 뒷편 야산에 올라 장작을 모았다. 그날 밤, 박기순은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귀가했다. 당시 박기순은 오빠인 박형선과 윤경자 부부, 막내 박동준과 함께 주월동 국민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사돈에 해당하는 윤한봉이 자주 집에 찾아왔다. 그날도 윤한봉이 왔다. 박기순이 며칠째 집에 돌아오지 않아

서, 윤경자는 윤한봉에게 박기순의 방에서 자라고 했다. 그러나 곧 박기순이 왔다. 윤한봉은 큰 방에 가서 잠을 청했다. 다음날, 윤경자가 아무리 방문을 두드려도 박기순이 일어나지 않았다. 김새가 이상했다. 결국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 박기순이 문쪽을 향해 쓰러져 있었다. 즉시 전남대 병원으로 달려 갔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 연탄가스 누출사고였다. 박기순, 스물 둘, 들불야학을 창립하고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당시 가두시위를 주도하였으며, 광주 전남 최초로 위장취업자가 되었던 활동가였다. 그리고 너무나 애석한 죽음이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전남대병원으로 모여들었다. 황망한 소식에 다들 슬픔을 감출 길이 없었다. 이 대로는 못보낸다고, 통곡하는 들불야학 학강들도 있었다. 위대한 활동가를 그냥 보낼 수 없었다. 지역 사회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장의위원회가 박기순의 장례를 준비했다. 영결식 이후 전남대를 거쳐 망월동으로 이동하는 일정이었다. 1978년 12월 27일, 노동운동가 박기순 영결식이 시작되었다. 전남대병원 영안실 앞에 광주 전남 지역 활동가들과 들불야학 관계자들이 집결했다. 황석영 작가와 문병란 시인이 조사를 낭독했다. 지난 2월, 박형선과 윤경자의 결혼식 주례를 맡으며 한 해를 시작했던 황석영은 박기순의 죽음과 함께 1978년을 마무리하는 현실이 그저 황망할 뿐이었다.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에 연루되었던 홍승기 교수도 조사를 낭독했다.

"서석골의 겨울은 유난히도 포근하였습니다. 성탄의 밤은 그럴게도 조용하였습니다. 그 계절의 벼랑에서 저는 너무나도 슬픈, 슬프고도 슬픈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살아왔습니다. 깊은 골짜기의 쓸쓸함 홀로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당신 앞에서 누가 감히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 영결식에 참여한 가수 김민기가 노래 <상록수>를 불렀다. 당시 노동운동에 참여한 바 있던 김민기는 김상윤을 만나기 위해 녹두서점에 들렀다가 황망한 소식을 접하고 영결식에 참석했다. 이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고 있는 노래 <상록수>가 박기순이라는 어느 노동운동가의 장례식에서 불려지게 되었다. 그의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참아왔던 눈물을 흘려보내야 했다.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치른 들판에 솔잎 되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운구차는 망월동을 향해 느린 걸음을 시작했다. 들불야학이 터를 잡았던 광천동성당에 들리자 박기순에게 교리학습실을 내주었던 오수성 미카엘 신부가 영결미사를 집전했다. 이후 운구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을 들린 후 망월동으로 갔다. 박기순은 그곳에 영원히 잠들었다. 박기순의 운구가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던 그 길, 도로는 태극기로 가득했다. 다음날인 1978년 12월 28일, 박정희는 제 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독재자는 자신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을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박기순의 장례가 끝난 후, 윤상원은 일기를 썼다.

"불꽃처럼 살다간 누이야. 왜 말없이 눈을 감았는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두고 모든 사람들 서럽게 운다.

<박기순 약력>

1957 전라남도 보성 출생

1976 전남대학교 국사교육과 입학

1977.03 교두매 야학 참여

1978.07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으로 제적

1978.07 '들불야학' 설립

1978.10 '동신강건사' 위장 취업

1978.12.26 불의의 연탄 가스 사고로 영면

1982.02.20 영혼 결혼식 거행

2005.08.26 전남대학교 명예 졸업

<들불열사 윤상원>



(1950년 8월 19일 ~ 1980년 5월 27일)

1. 세상에 눈을 뜨다

윤상원은 1950년 8월 19일 전라남도 광산군 임곡면 천동마을에서 태어났다. 현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속하는 지역이다. 윤상원은 본래 윤개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개명을 택했다. 그는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삼수 끝에 1971년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대학생이 된 직후에는 외무고시를 준비하며 평범하게 생활했다. 남들보다 2년 늦게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곧 그에게도 입영통지서가 날아왔다. 당시 군 복무 기간은 36개월이었다. 길었던 군 생활이 막바지에 이른 1974년 10월 윤상원은 아버지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침울한 밤을 새운 적도 있습니다. 내년에 복학을 하면 어려운 현실과 싸울 작정입니다"

1975년, 윤상원은 군대를 제대한 후 복학했다. 얼마 후 그는 친구 황철홍에게 김상윤이라는 이름의 선배를 소개받았다. 김상윤은 전남대학교 학생운동가로 당대 활동가들에게 '이론적 기둥'으로 통했던 인물이었다. 1974년, 김상윤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이 4월 3일을 기해 폭동을 일으켜 정부 주요기관을 점거하고 정권을 인수하려 했다"며 학생들의 반(反)유신시위 준비를 정권 인수 시도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도 본인들의 수사 결과를 믿지 않았는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김상윤은 1975년 2월 15일자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났다. 그는 석방 직후부터 활동가 양성에 주력했다. 노준현, 김영종, 김금해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그가

만든 6개월 과정의 학습 소모임을 거쳐갔다. 윤상원 역시 김상윤으로부터 학습 소모임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들이 함께 공부한 책은 '역사란 무엇인가', '한국 노동문제의 구조' 등이었다. 1970년대 경제발전의 이면에서 신음하고 있던 노동자들의 삶을 인지하며, 윤상원은 사회 변화를 열망하기 시작했다.

2. 들불야학에 합류하다

1978년 2월, 윤상원은 대학 졸업 후 주택은행 서울 봉천동지점에 취업했다. 2001년, 주택은행은 국민은행과의 대등 통합을 통해 KB국민은행이 되었다. 주택은행은 그만큼 건실한 직장이었다. 그는 한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알고 있던 그였기에, 차마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해 7월, 알고 지내던 후배 박몽구와 조봉훈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쫓기는 몸이었다. 이보다 조금 앞선 6월 27일, 전남대 교수 11명이 선언문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해당 선언문은 박정희 군사 교육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다음날, 중앙정보부는 선언에 참여한 전남대 교수 전원을 체포했다. 이 소식은 삼시간에 전남대 재학생들에게 알려졌다. 분노한 학생들은 중앙도서관을 점거하고 격렬한 시위를 진행했다. 박몽구와 조봉훈은 해당 시위에 참여하여 쫓기는 몸이 된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윤상원의 집에 머물렀다. 상원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광주로 내려갈 것을 결심했다.

그해 8월, 윤상원은 미련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광주행 새마을호에 몸을 실었다.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김상윤이 운영하고 있던 '녹두서점'이었다. 1977년 7월, 1년 6개월간의 학습 소모임 운영을 마친 김상윤이 광주 계림동에 작은 책방을 열었다. 문병란 시인이 '녹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녹두장군 전봉준의 초상화가 벽에 걸렸다. 그곳은 곧 활동가들에게 이론을 보급하는 거점이 되었다. 여러 '금서'들이 녹두서점을 통해 광주 지역 활동가들에게 유통되었다. 얼마 후, 윤상원은 광주 광천동 광주공단에 학력을 숨기고 위장취업했다. 취업처는 한남플라스틱이었다. 그곳에서 상원은 은행원 시절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고된 노동에 직면했다. 노동현실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이 솟아났다. 그즈음 광주 광천동에는 노동야학 '들불야학'이 위치했다. (노동야학은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는 곳이다) 1기 입학식이 1978년 7월 23일에 진행되었으니, 그가 광주에 오기 직전에 설립된 야학이었다.

1978년 10월, 들불야학을 설립한 박기순은 2기 '강학(교사)' 모집을 두고 고민에 빠져있었다. 들불야학 1기는 8명의 강학(교사)과 35명의 학강(학생)으로 구성되었는데, 강학 2명이 군대에 입대하게 됨에 따라 신입 강학 모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박기순은 며칠 전에 녹두서점에서 만났던 윤상원을 기억해냈다. 기순은 상원에게 들불야학 2기 강학으로 활동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원은 처음에는 기순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의 삼고초려에 결국 들불야학에 대기강학으로 합류하게 된다. 1978년 11월 8일, 전용호(2기 강학)는 이날 열린 대기강학 세미나에서 윤상원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윤상원은 들불야학 2기 강학(일반 사회)이 되었다.

197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들불야학 팀이 광천동성당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행사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전남대 연극반 출신 활동가 박효선이 만든 연극 '우리들을 보라'를 공연했다. 해당 연극

은 광천공단 어느 노동자의 서사를 통해 당대의 노동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임금체불과 노동청의 무능함은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다. 윤상원은 들불야학에 합류한 직후부터 백재인 학강과 함께 광천동 시민아파트에서 거주했다. 이날 들불야학 강학 및 학강들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뒷풀이를 했다.

이틀 후인 12월 26일, 들불야학에 황망한 소식이 전해졌다. 들불야학 강학 박기순이 불의의 연탄가스 누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들불야학 사람들은 슬픔을 감출 길이 없었다. 장례 기간 내내 학강들의 통곡이 이어졌다.

박기순의 장례가 끝난 후, 윤상원은 일기를 썼다.

"불꽃처럼 살다간 누이야. 왜 말없이 눈을 감았는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두고 모든 사람들 서럽게 운다."

3. 오월, 그날이 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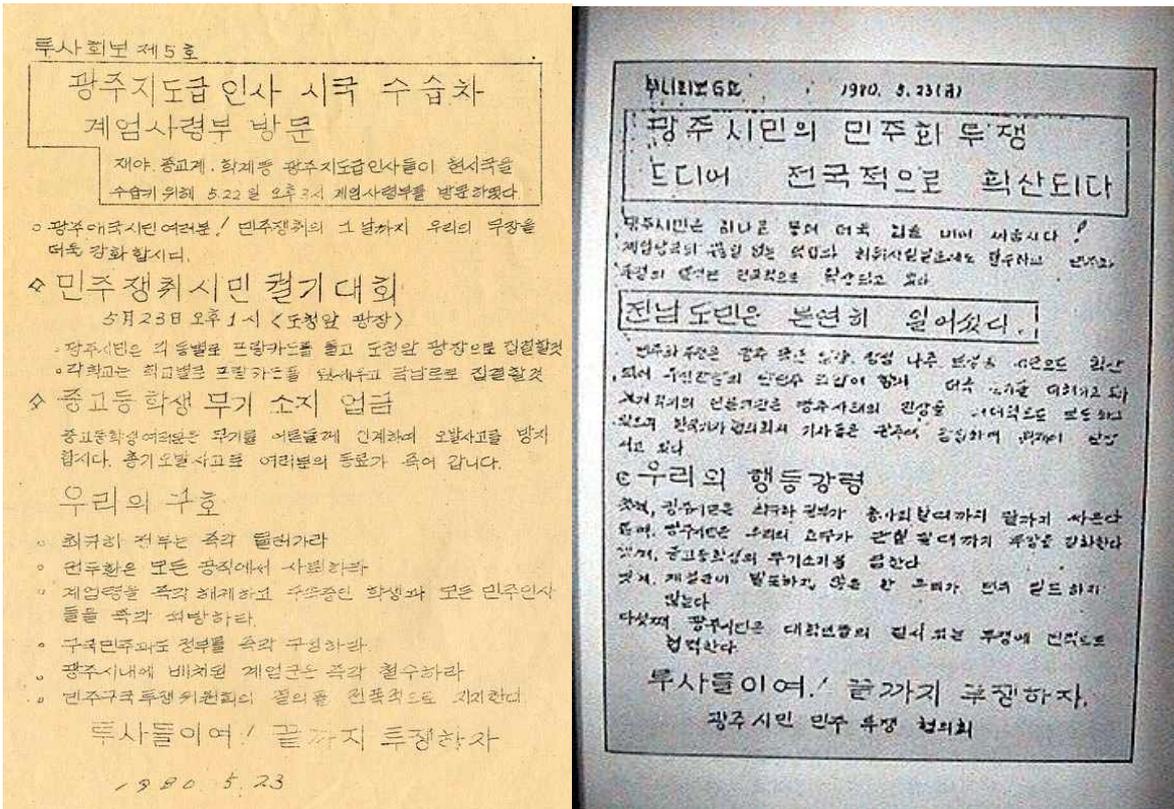
1979년, 윤상원은 6개월간 '일반 사회' 강학으로 활약했다. 그해 말에는 '광주공단 노동자 실태조사 준비팀'을 꾸려 직접 노동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윤상원은 이때 준비팀에 합류하여 함께 활동했던 전남대 법대생 박관현에게 들불야학 강학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 관현은 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1979년 10월 26일, 18년간 집권해온 독재자 박정희가 자신의 부하 김재규에게 암살당했다. 정국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후 권력을 장악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18년만에 찾아온 자유를 만끽하며 노동조합, 학생회 등을 만들기 시작했다.

1980년 4월 30일, 윤상원은 인천에서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자연맹 결성식에 광주 전남 중앙위원으로서 참석했다. 이들은 전국 단위 노동단체를 설립하고자 했다. 훗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이태복이 활동을 제안했다. 한편, 서울 주요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남대학교에도 총학생회가 재건된다. 들불야학 강학이었던 박관현이 출마를 결심했다. 관현은 항상 형클어진 머리를 하고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상원은 그런 그에게 구두를 선물해주고,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양복을 맞추는 것을 도왔다. 민주화의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과 달리, 소수 군부는 끝내 군대를 움직일 생각이었다.

1980년 5월 18일, 0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군인들이 각지에서 민주인사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김상윤, 정동년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군인들에게 끌려갔다. 전남대, 조선대 활동가들도 학교에 들이닥친 군인들에게 체포되었다. 전남대와 조선대에는 특수부대에 해당하는 7공수여단 33·35 대대가 배치되었다. 다음날 아침, 이들은 전남대 정문에서 학생들과 충돌한다. 수많은 학생들이 군인이 휘두른 곤봉에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분노한 학생들은 시내에 해당하는 금남로까지 행진했다. 금남로로 달려온 군인들은 거리를 삼시간에 피의 바다로 만들었다. 기록에 따르면 55명이 중상을 입었고, 청각장애인 김경철씨는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다음날 새벽에 사망했다. 군인들의 폭력을 마주한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학생 시위는 민중항쟁으로 변모했고, 5월 21일에는 시위 참여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당황한 군인들은 최악의 선택을 했다. 바로 시위대를 향한 '집단 발포'였다. 수백명

이 총에 맞았다. 군인들은 학살 직후 광주를 빠져나갔고, 도시 외곽을 철저히 봉쇄했다. 광주는 외로운 섬이 되었다.

윤상원은 이 모든 것을 목격했다. 그는 군인들이 빠져나간 광주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언론'으로서의 역할이었다. 상원은 들불야학 활동가들과 함께 유인물 '투사회보'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프린터가 없었기 때문에 '등사기'를 이용했다. 윤상원과 전용호가 글을 쓰면 박용준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예쁜 글씨로 여러 장 적었다. 처음에는 광천동시민아파트에서 투사회보를 제작했고, 5월 25일 부터는 YWCA에 위치하던 더 좋은 인쇄기구를 사용했다.



1980년 5월 23일, 제 1차 민주수호 범시민결기대회가 열렸다. 군인들이 광주를 빠져나간 이후,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매일 한 차례씩 집회가 열렸다. 26일에는 오전과 오후 두차례 집회가 있었다. 전날인 22일에 진행된 집회는 현재 상황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진행된 약식 집회였으나, 23일 집회는 나름의 격식을 갖춘 채로 진행되었다. 희생자에 대한 묵념, 각 계층 대표자 발언 등이 있었다. 이날 집회는 윤상원이 이양현, 정상용, 박효선, 김태종 등과 함께 녹두서점에서 기획한 집회였다. 윤상원은 학생시민수습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창길을 만나 집회 진행 관련 실무를 논의했다. 김창길은 '무기 반납'을 완강하게 주장하던 인물이었다. 당시 수습대책위는 무기 반납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었다. 불과 이틀 전에 계엄군의 총기에 의한 학살이 자행되었으나, 일부 수습위원들은 무기를 반납하고 군인들에게 다시 치안을 맡기자"고 주장했다. 그들은 지배질서에 충실했고, 그만큼 많은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윤상원을 비롯한 청년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하는 것은 살해된 시민들의 피를 파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기 반납에 완강하게 반발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수파와 투항파의 '강온갈등'

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25일, 광주 지역 민주인사들이 YWCA에 집결했다. 윤상원과 정상용은 청년대표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무기 회수를 중단하고 도청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인사들은 고심 끝에 지역 명망가 위주로 구성되었던 시민수습대책위원회에 합류할 것을 결정했다. 곧 수습위원 25명 명의로 정부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윤상원은 학생수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박남선과 김종배를 차례로 만났다. 윤상원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도청항쟁지도부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무기 반납'을 주장한 김창길 위원장과 크게 갈등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들은 윤상원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날 밤, 윤상원은 박남선, 김종배, 정상용, 윤강옥, 박효선, 김영철, 정해직, 이양현 등 뜻을 함께하기로 한 이들을 규합하여 도청으로 갔다. 이들은 전남도청 2층 식산국장실에 진을 치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시도했다. 김창길 학생수습대책위원장이 달려와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도청에서 떠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조직되어 있는 활동가들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격렬한 언쟁이 이어졌고, 결국 김창길은 사의를 표명하고 도청을 빠져나갔다. 최후까지 도청을 지키기로 결의한 활동가들은 새로운 도청항쟁 지도부를 구성했다. 이들은 '학생수습대책위원회'를 '민주투쟁위원회'로 개편했다.

윤상원은 도청항쟁지도부 대변인을 맡았다.

1980년 5월 25일, 외로운 밤이었다.

4. 최후의 항전

1980년 5월 26일 오후 5시, 윤상원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러 외신기자들이 회견에 참여했다. 그는 외신기자들에게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을 전달했다. 당시 회견장에 있었던 '볼티모어 선'의 브래들리 마틴 기사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은 그의 눈빛이 그저 인상적이었다"고 회고한다. 윤상원은 "우리는 오늘 패배한다고 해도 영원히 패배하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밤이 오고 있었다. 광주는 이미 계엄군에 의한 최후 통첩을 전달 받은 상황이었다. 그들은 다음날 새벽 광주에 진입하겠다고 했다.

윤상원은 도청에 남은 청소년들을 불러모았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살아남아 달라고 부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들을 승리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남아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싸워주십시오"

1980년 5월 27일, 도청에 남은 시민들은 오늘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

다. 그러나 그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끝내 도청을 빠져나가지 않았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의지를 이어, 내일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도청에 남은 사람들이 정리된 직후부터 정상용이 이들을 곳곳에 나누어 배치했다. YWCA, YMCA, 전일빌딩에도 수백명의 시민들이 남았다. 최후의 항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상원은 도청 2층 민원실에 이양현, 김영철, 윤석루, 이재호 등과 함께 남았다. 김영철은 들불야학 강학으로 윤상원과 마찬가지로 광천동시민아파트에 거주했다. 이양현은 윤상원과 함께 김상윤이 운영한 학습 소모임에 참여했던 인물이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 마침내 군인들이 광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특수부대 3·7·11공수여단과 20사단, 31사단 소속 군인 2만명이 동원되었다. 도청에 진입한건 3공수여단 선봉대였다. 이들은 뒷문을 통해 도청에 진입했다. 잠시 후, 3공수여단 군인들이 도청 민원실 입구에 도착했다. 수류탄이 날아왔고, M-16 총탄이 비오듯 쏟아졌다. 군인들의 난사 직후 윤상원이 오른쪽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김영철과 이양현이 부축했지만, 윤상원은 김영철에게 '형님 틀린 것 같소'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김영철은 윤상원을 바닥에 고이 안치한 후 카빈 소총으로 자결을 시도했지만, 계엄군이 쏜 총탄 파편에 다리를 맞고 쓰러졌다. 곧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불과 3시간, 도청은 완전히 점령되었다. 시민 16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그러나 이들의 장렬한 항전은 '영원한'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날로부터 '그 도시의 열흘'을 알게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윤상원의 말처럼, 그들은 결국 역사의 승리자가 되었다.

5. 임을 위한 행진곡

1982년 2월 20일, 광주 망월묘역에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결혼식이 열렸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주최한 '영혼' 결혼식이었다. 신랑은 1980년 5월 27일 최후까지 전남도청을 지켰던 윤상원이었고, 신부는 들불야학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박기순이었다. 이로부터 2달 뒤인 1982년 4월, 황석영 작가의 집에서 두 사람의 영혼 결혼식을 기념하는 창작 노래극 '넋풀이'가 제작되었다. 이 노래극의 마지막을 장식한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얼마 후 비밀리에 녹음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카세트 테이프 2,000개가 전국으로 배포되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노래가 되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윤상원 약력>

- 1950 전라남도 광산군 출생
- 1971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입학
- 1978.02 대학 졸업 후 주택은행 입사
- 1978.10 광천동 광주공단 위장취업
- 1978.11 들불야학에 강학으로 합류
- 1980.04 전국민주노동자연맹 중앙위원
- 1980.05.27 쿠데타군에 맞서 싸우던 중 산화
- 1982.02.20 영혼결혼식 거행
- 2019.05 전남대학교에 윤상원 기념관 조성

<들불열사 박용준>



(1956년 7월 9일 ~ 1980년 5월 27일)

1. 천애고아(天涯孤兒)로 남겨지다

박용준은 1956년 7월 15일 광주 동구 학동에 위치한 영신영아원에 맡겨졌다. 영아원 측은 자체 문서에 출생일자를 7월 9일로 기재했다. 아이의 발육 상태를 통해 추정된 날짜였다. 그는 천애고아로서 영아원에서 성장했다. 영신영아원 서경자 원장과 조아라 이사장이 그곳의 아이들을 보살폈다. 1964년 4월 28일, 초등학생이 된 박용준은 영신영아원에서 무등고아원(현 무등보육원)으로 옮겨졌다. '광주 동구 학운동 774번지 무등고아원', 이 주소는 그의 호적에 본적지로 등록된다. 끝내 입양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아원을 본적지로 등록해야 했던, 기구한 운명이었다. 박용준은 무등고아원에서 서석초와 송일중을 졸업했다. 그러나 고아원은 원생의 고등학교 진학을 도와주지 않았다. 남다른 학구열을 가지고 있던 그는 거리를 헤매고 다니기 시작했다. 구두닦이, 신문배달을 시작으로 안해본 일이 없었다. 한번은 광주 중앙초 근처에 위치한 소아과에서 잡일을 해주면 고등학교 진학을 돕겠다고 했다. 용준은 한동안 그곳에서 허드렛일을 했다. 그러나 소아과 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세상은 냉혹한 곳이었다. 의지할 곳이 없었던 그는 지칠 때면 영아원 서경자 원장을 찾아갔다.

1972년 3월, 박용준은 송의실업고등학교에 야간부 학생으로 입학했다. 그동안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번 돈을 털어넣었다. 그야말로 고향(苦學)이었다. 그는 이때부터 무등고아원을 나와 영아원 시절부터 함께했던 서한성과 함께 달방에서 생활했다.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 역시 산 너머 산이었다. 1973년 11월, 박용준은 영신영아원 서경자 원장으로부터 YWCA 신용협동조합에서 교도원으로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서경자 원장은 영신원 원장이면서 동시에 YWCA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기도 했다. 용준은 해당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고, 1973년 11월 14일부터 광주 YWCA 신용협동조합에 교도원으로서 출근했다. 교도원은 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찾아가서 수금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넉넉하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어느정도 안정을 찾게된 박용준은 고등학교 과정

을 마치고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이 무렵부터 그는 아예 광주 YWCA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2. 들불야학에 합류하다

1970년대 후반, 광주 YWCA는 광주 지역 사회운동 진영의 교두보였다. 1977년, 국제엠네스티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이 소식은 전남대 학생운동가 출신 대동고 교사 박석무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광주 지역 재야인사들을 규합하여 국제엠네스티 광주지부를 만들고, 광주 YWCA 한켠에 사무공간을 마련했다. 1978년 11월에는 양서협동조합이 광주 YWCA 2층에 들어섰다. 서재에 다양한 책들이 쌓여가기 시작했다. 1980년까지 광주 YWCA는 전남도청 앞에 위치한 전일빌딩 옆에 위치했다. 박용준은 여러 지역 활동가들과 교류했고, YWCA에서 늦은 시간까지 독서를 하며 세상에 대해 배웠다. 그는 결코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해맑게 웃었던 사람'으로 기억된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가 자주 내보이곤 했던 함박웃음에 대해 이야기 했다.

1976년 1월, 박용준이 제 51차 신용협동조합 지도자 강습회에 참여했다. 그는 그곳에서 김영철을 만나게 된다. 김영철은 광주 광천동에서 마을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다. 1977년 2월, 김영철은 광주 YWCA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이내 박용준과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김영철에게도 어머니와 함께 광주모자원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해 11월, 김영철은 박용준에게 본인의 집에서 함께 살 것을 제안했다. 용준은 이를 급구 사양했지만, 영철은 리어카를 끌고 와서 YWCA에 있던 용준의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당시 영철은 기혼자였다. 김영철과 그의 아내 김순자, 박용준 세 사람은 광천동시민 아파트 A동 216호에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박용준은 행복했다.

1978년 6월, 일단의 노동운동가들이 광주 광천동에 노동야학 '들불야학'을 설립했다. 들불야학은 광천동 광주공단에서 일하던 노동자 35명과 함께 다양한 공부를 하는 야간 학교였다. 이들은 광천동성당 교리실과 광천동시민아파트에 터를 잡았다. 얼마 후, 김영철은 고등학교 동창 김상윤에게 들불야학 활동가들을 소개받았다. 들불야학 활동가들은 광천동 주민운동의 대표자로 여겨졌던 김영철에게 입학식 축사를 부탁했다. 1978년 7월 23일, 김영철은 들불야학 1기 입학식에 참석, 축사를 했다. 이후 김영철과 박용준 두 사람은 각각 생활강학과 특별강학으로 들불야학에 합류했다. 들불야학은 '야간학교'를 지향했지만, '교사'와 '학생'이라는 말 대신 '강학'과 '학강'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강학, 가르치면서 배운다. 학강, 배우면서 가르친다는 뜻이었다. 1979년, 박용준은 들불야학 공동체와 함께 하며 나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했고, 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하는 것 역시 지속했다.

3. 오월, 그날이 오다

'1980년 5월 18일', 그날은 느닷없이 우리에게 왔다. 전날 밤 신군부는 전국 각지로 군대를 보냈다. 광주에 진주한 7공수여단은 전남대와 조선대를 점령했다. 다음날 오전 9시, 전남대 정문 앞에서 학생들과 군인들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여러 학생들이 군인이 휘두른 곤봉에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분노한 학생들은 시내에 해당하는 금남로까지 행진했다. 금남로로 달려온 군인들은 거리를 삼시간에 피의 바다로 만들었다. 기록에 따르면 55명이 중상을 입었고, 청각장애인 김경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

으나 다음날 새벽에 사망했다.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5월 19일 월요일, 박용준은 여느 때와 같이 광주 YWCA에 출근했다. 당시 광주 YWCA는 금남로 부근에 위치했다. 오후 12시 경, YWCA 사무실 1층에는 김영철, 박용준이 있었고 2층 양서협동조합에는 황일봉이 있었다. 느닷없이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용준에게 "학생이냐?"고 물었다. 군인들은 학생으로 보이는 모든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었다. 주변 직원들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군인들을 만류했다. 박용준의 가방을 뒤지던 군인이 YWCA 사원증을

확인했다. 그 순간 2층에 올라간 군인이 황일봉을 끌어내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가 학생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 광경은 YWCA 건너편에 있던 무등고시학원 학생들에게 목격되었다.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때려도 되는가" 군인들의 야만에 분노한 학생들이 창밖에 고개를 내밀고 "때리지 말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 소리를 들은 군인들은 즉시 무등고시학원으로 달려갔다. 학원에 난입한 군인들은 학생들을 닥치는 대로 곤봉으로 폭행했다. 밖에 있던 군인들은 학원 건물 셔터를 기어서만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렸다. 학생들은 곤봉을 피해 학원을 기어서 빠져나왔고, 군인들은 학생들이 학원을 기어나오는 즉시 곤봉으로 폭행했다.

군인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학생시위는 민중항쟁으로 확대되었다. 5월 21일에는 시위 참가자가 10만명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당황한 군인들은 최악의 선택을 했다. 바로 시위대를 향한 '집단 발포'였다. 수백명이 총에 맞았다. 군인들은 학살 직후 광주를 빠져나갔고, 도시 외곽을 철저히 봉쇄했다. 광주는 외로운 섬이 되었다.

그날 밤, 박용준은 일기를 썼다.

"1980년 5월 21일 밤

오늘 오후 그들은 드디어 우리를 향해 사격을 가했다. 쓰러지는 우리 학생 시민들 품에 번지는 피! 그들이 우리의 피를 원한다면. 이 조그마한 한 몸의 희생으로 자유라는 댓가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희생하겠다. 헬기소리, 또 총소리. 싸우다 쓰러져간 우리 학우 그리고 광주 시민. 나도 부끄럽지 않게 일어서리라."

4. 투사회보를 작성하다

5월 22일, 군인들에 의해 철저히 봉쇄된 광주에 남겨진 시민들은 각자의 역할을 찾아나섰다. 들보야학 팀은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그들은 유인물 '투사회보'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

했다. 광천동시민아파트 공간을 활용했다. 지금이야 프린터로 간단히 인쇄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등사기'를 통한 작업이 필요했다. 빛이 새어나가지 않는 장소에서 원지를 굵은 줄판을 밀어야 했고, 100여 장을 복사하고 나면 새롭게 글을 적어야 했다. 박용준은 이때부터 투사회보 필경을 전담했다. 윤상원과 전용호가 글을 써서 그에게 전달했다. 박용준은 전달받은 글을 등사원지에 첩필로 새겨넣었다. 그는 이 과정을 하루 종일 반복했다. 그만큼 언론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었다. 박용준은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었다. 들불야학 팀은 하루에 7천 ~ 8천장의 투사회보를 등사기로 찍어냈다. 작업이 마무리 되면 활동가들이 광주 전역을 돌며 유인물을 배포했다. 시민들은 박용준이 한 글자 한글자 예쁜 글씨로 새겨넣은 투사회보를 읽고 광주의 상황을 파악했다.

1980년 5월 25일, 들불야학 팀은 광주 YWCA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은 이미 시민들의 거점이었다. 이틀 후, 시민들이 최후까지 사수한 곳은 전남도청, YMCA, YWCA, 전일빌딩 등이었다. 광주 YWCA에는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등사기가 위치했다. 들불야학 팀은 투사회보의 이름을 민주시민회보로 변경, YWCA에서 민주시민회보 9호와 10호를 제작했다.

5. 최후의 항전

1980년 5월 26일, 시민들은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다. 계엄군의 광주 진입이 확실시되는 시점이었다. 누가 오늘 밤 도청에 남을 것인가, 분수대를 중심으로 모여든 시민들의 함성은 여전했지만,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민을 이어갔다. 도청에 남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가족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죽게될 경우 남겨질 가족 생각에 괴로워했다. 많은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박용준에게는 돌아갈 곳도, 남겨질 가족도 없었다. 그는 평생의 대부분을 보낸 YWCA에서 새벽을 기다릴 작정이었다.

박용준은 YWCA 2층에서 유서가 될지도 모르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하나님, 이 조그만 한 몸의 희생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당신 앞에 내놓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입니까? 너무 가냘픈 존재입니다. 그리고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고아라면 모두 이를 갈겠지요. 내 형제들, 어린 동생들, 이렇게 죽는 나로 말미암아 두세 겹의 고통과 명예를 짊어지고 쓰레기로 태어나 쓰레기처럼 살 수밖에 별 도리가 없겠지요. 하나님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양심이 무엇입니까? 왜 이토록 무거운 명예를 매게 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갈급하게 구해야만 세상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세상에는 사랑과 관용을!"

곧 밤 12시가 되었다. 1980년 5월 27일이 찾아왔다.

그와 함께 들불야학에서 활동했던 윤상원과 김영철은 전남도청 민원실에서 새벽을 기다렸다. 수백명의 시민들이 전남도청, YWCA, YMCA, 전일빌딩에 남아있었다. 어쩌면 박용준은 자주 흥얼거렸던 노래 '고아'를 부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날 때부터 고아는 아니었다. 내 죄 아닌 내 죄에 얽매여
낙엽따라 떨어진 이 한 목숨. 가시밭길 헤치며 걸었다.
배고플 땐 주먹을 깨물었다. 목마를 땐 눈물을 삼켰다.
의리로써 맺어진 우리 사이. 목숨까지 바치며 살았다."

새벽 4시, 밤의 정적을 깨고 사방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계엄군 3공수여단이 전남도청에 진입했다. 뒤이어 11공수여단이 관광호텔과 전일빌딩을 점령했다. 전일빌딩에 당도한 군인들이 YWCA를 향해 M-16 자동소총을 발포하기 시작했다. 박용준은 YWCA 창가를 지키고 있었다. 언젠가 환하게 웃으며 햇살을 받았던 곳이었다. 박용준은 그 자리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다.

<박용준 약력>

1956.07.09 출생
1956.07.15 영신영아원 입소
1964.04.28 무등고아원 입소
1973.11.14 YWCA에 교도원으로 입사
1975.02 송일실업고등학교 졸업
1976.03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입학
1978.07 들불야학에 특별강학으로 합류
1980.05.22 투사회보 필경사로 활동
1980.05.27 쿠테타군에 맞서 싸우던 중 산화

<들불열사 박관현>



(1953년 6월 10일 ~ 1982년 10월 12일)

1. 세상에 눈을 뜬 사법고시 준비생

박관현은 1953년 6월 10일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쌍운리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장기 하사로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한동안 논산에서 지냈다. 광주로 돌아온 그는 수창초등학교, 광주 동중학교를 졸업하고 광주고등학교에 진학한다. 당시 광주고등학교에는 양강섭, 장석웅, 신계륜 등이 있었다. 박관현은 이들과 절친하게 지냈으며, 양강섭, 장석웅과는 훗날 전남대에서 재회하여 함께 활동하였다. 신계륜은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다. 박관현은 특히 양강섭과 절친한 사이였는데,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반 소속이었으나 각자의 반에서 반장을 맡고 있었다. 이 시기, 관현의 꿈은 법대에 진학하여 판사가 되는 것이었다.

1973년, 박관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나 법대 진학에 실패, 서울에서 재수 생활을 한다. 그러나 이듬해에 입영 영장이 발부되어 군에 입대했고, 3년간 군 복무를 하고 제대한다. 1978년, 박관현은 마침내 전남대학교 법학과에 차석으로 입학, 꿈에 그리던 법대생이 된다. 당시 전남대에는 학생운동이 유행하고 있었다. 관현은 전남대에서 고등학교 동창이던 양강섭, 장석웅과 재회했고, 사회과학 관련 공부 모임에도 참여했다. 장석웅은 그에게 당대 전남대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윤한봉과 김상윤을 소개시켜 주었다.

1978년 12월, 광주에서 노동자 교육운동을 주도하던 들불야학이 '광주공단 노동자 실태조사'를 기획

했다. 윤상원, 김영철 등 들불야학 강학들이 광주 유일의 공단이던 광천동 광주공단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조사해보자고 아이디어를 냈다. 이들은 즉시 '광주공단 노동자 실태조사반' 조직에 착수했다. 들불야학 1기 강학 신영일이 같은 국사교육과에 다니던 장석웅을 설득했다. 장석웅은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박관현에게 함께할 것을 제안했다. 전대학보사 안진 기자는 아예 학보사를 그만두고 왔다. 이들은 의기투합 했고, 두달간 광주공단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헌신적인 조사를 했다. 결국 299장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걸출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실태조사반 구성원들은 조사를 진행하며 여러 차례 합숙, 철야 작업 등을 진행,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박관현은 공단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마주하며 그동안 믿어왔던 법관의 길에 회의감을 느꼈다. 어두운 시대였다.

2. 들불야학에 합류하다

1979년 3월, '실태조사반' 활동을 했던 장석웅, 박관현, 안진, 신영일 등이 개학과 동시에 사회과학 서클 '사회조사연구회'를 결성했다. 광주공단 노동자 실태조사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박관현은 서클에서 부회장을 맡았다. 며칠 후, 들불야학 강학 윤상원이 박관현을 찾아왔다. 상원은 관현에게 들불야학에서 강학으로 활동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렇게 박관현은 들불야학 강학이 되었다.

1979년 5월 3일, 전남대학보(현 전남신문)에 광주공단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가 실렸다. 전남대학보는 5차례에 걸쳐 실태조사 결과를 보도할 예정이었다. 5월 10일에는 두번째 편이 보도되었다. 사상 첫 광주공단 노동자 실태조사는 지역 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전남대학보의 보도를 접한 전남일보 측도 관련 소식을 주의깊게 다뤘다. 그러나 이 소식은 즉시 중앙정보부에 전달되었고, 그들의 압력으로 나머지 3차례의 보도는 무산되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광주공단 실태조사는 그 일부 내용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광주공단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전체 노동자의 22%가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63개 업체 중 3개 업체에 불과했다. 사법고시에 응시할 생각이었던 박관현은 이 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고 전남대학교 학생운동에 합류했다.

3.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되다

1979년 10월 26일, 18년에 걸쳐 이어진 기나긴 겨울이 세 발의 총성과 함께 막을 내렸다. 독재 체제 그 자체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부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된 것이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자신들의 야욕을 실현시킬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봄, 수많은 시민들은 민주화와 자유의 '봄'이 올거라 여겼다. 시민들이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표현, 사상, 양심, 출판, 결사를 비롯한 모든 기본적 영역에서의 자유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남대학교에서도 복학생들을 중심으로 독재에 협력한 '어용교수 퇴진'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새학기 시작 직후인 3월 27일에는 어용교수 백서가 발표되었다.

1980년 3월 31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총학생회를 재건하기로 결정하고, 선거시행세칙 제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을 마쳤다. 한편, 박관현은 민주화의 바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

고 있었다. 결국 박관현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부활에 앞장서야겠다고 생각했고 총학생회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그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인 양강섭을 만나 총무를 맡아달라고 했다. 양강섭은 7월까지만 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이를 수락했다. 부총학생회장으로는 공과대학의 이승룡을 설득했다. 인문대학 정선자 후보 등 단과대학 러닝메이트도 생겨났고, 들불야학을 비롯한 사회운동 그룹에 속해 있던 전남대 재학생들도 속속 선본에 합류했다. 1980년 4월, 전남대학교 1학생회관 402호 사회조사 연구회 동아리방이 선거캠프로 변모했다. 선본명은 '민주학원의 새벽기관차'였다. 박관현은 헝클어진 머리에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윤상원은 그런 그에게 구두를 선물해주었다. 신뢰감을 주기 위해 양복도 빌려주었다. 1980년 4월 9일, 박관현은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박정희 정권 문교부에 의해 문을 닫았던,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가 부활하게 되었다.

4. 민족민주화성회를 주도하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는 결성 직후부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곧 민주주의를 요구하기 위한 시위 준비에 들어갔다. 1980년 5월 14일, 전남대 총학생회를 필두로한 전남대 학생들이 전남대학교 정문을 넘어 거리로 진출,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양심적 교수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전남도청까지 행진했다. 일명 '민족민주화성회'였다. 학생들의 평화적인 행진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했다. 전남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광주 지역 청년들은 다음날인 5월 15일에도 행진을 진행했다. 1980년 봄, 각 대학에 총학생회가 재건되었듯 각 공단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있었는데, 로켓트 건전지 노동조합을 결성한 광주 지역 여성노동자 1,800명은 이날 살레시오 고등학교에서 대규모 강연회를 개최한 후 대학생들이 가두시위를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모아서 빵과 우유를 전달했다. 이날 집회의 사회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양강섭 총무부장이 맡았다. 그의 소개를 받고 마이크를 넘겨받은 박관현 총학생회장은 수많은 시민들을 향해 연설을 시작했다.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는 이 나라에! 인간노릇을 못하고 노예와 같이 굴종거리며 엮메여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이제는 민주화시대를 맞이하여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최선을 그르칠 수 없어서 다같이 동참하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연설은 여전히 많은 광주 시민들에게 명연설로 회자되고 있다. 1980년 5월 15일,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는 시위를 성공적으로 끝마친 직후, 서울 지역 학생들이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서울역 회군'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광주 지역 학생들은 이대로 시위를 끝낼 수 없었다. 이들은 고심 끝에 5월 16일에도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 형식 역시 지난 이틀간 있었던 가두시위보다 더 파격적인 '야간 횃불집회'로 결정,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기로 했다. 박관현 총학생회장은 당시 전라남도 경찰의 총 책임자였던 안병하 전남 경찰국장을 만나 야간 횃불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1980년 5월 16일, 서울의 대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전남대, 조선대 학생들과 광주 시민들은 전남도청 앞 분수대를 중심으로 촛불시위를 진행했다. 광주 경찰들이 이들을 보호했다. 불과 이틀 후부터 광주가 겪게될 참극을 상상하지 못하던 시점이었다. 이들은 5.16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박정희의 '유신 헌법'이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5.16 화형식'을 진행했다. 마지막 집회가 촛불집회로 진행된 것은, 밤하늘을 밝히는 촛불과 같이 명명백백하게 나아갈 길을 밝히려는 의미였다. 이날 촛불집회를 끝으로 3일 간의 민족민주화성회는 막을 내렸다.

5. 신군부의 반란

1980년 5월 15일, 서울의 대학생들은 서울역 회군을 기점으로 가두시위를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갔다. 군부에게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군부는 5월 17일을 기점으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 각지로 군대를 보냈다. 그들은 '휴전선의 이상'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그들의 군대는 대학가와 시민들의 공간들로 향했다. 군부는 가장 먼저 이화여대에 모여있던 전국 대학 총학생회 대표단 회의장에 난입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55개 대학 학생 대표 95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체포 직전까지 빠르게 전국 각지에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렸다. 전남대 총학생회에도 "어서 피하라"는 소식이 전달되었다.

군부의 움직임을 전달받은 박관현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전남대 총학생회 집행부들은 즉시 광주 계림동 대지호텔로 몸을 피했다. 이미 군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민주인사들을 체포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1980년 5월 18일 새벽 1시 경, 박관현은 총학생회실에 남은 인원들을 피신시키기 위해 양강섭 총무부장을 전남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양강섭이 총학생회실로 가서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계엄군이 학교에 진주하기 시작했다. 특전사 7공수여단 33대대였다. 총학생회실에 남아있던 인원들은 서둘러 두갈

래 길로 피신을 시도했다. 양강섭 총무부장 등 3명은 중앙도서관을 거쳐 상과대학 쪽으로 피신했다. 이승룡 부총학생회장, 권창수, 오진수 등 4명은 공대 쪽문을 거쳐 피신하고자 했으나, 퇴로가 막혀 공대 5호관에서 군인들에게 체포되었다.

1980년 5월 18일 새벽 3시, 박관현 총학생회장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전남대에 왔다. 군인들은 이미 학교를 점령하고 도서관 등에서 60여 명의 학생들을 끌어내 기합을 주고 있었다. 이들은 학생들을 마구 폭행하고 체포했다. 박관현이 정문에 이르자, 학교 수위가 빨리 도망가라고 했다. 결국 남은 전남대 총학생회 집행부들은 살아남아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여수 돌산도까지 피신했다. 불과 몇 시간 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이었다. 이들은 사회운동의 역량을 보존하고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했다.

6. 감옥에서 맞이한 최후

1980년 5월 18일, 박관현과 전남대 총학생회 간부들이 떠나간 광주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광주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신군부의 총칼에 굴복하지 않고 10일 간에 걸쳐 위대한 저항으로서 항쟁을 완성한 것이다. 박관현과 함께 들불야학에서 활동했던 박용준과 윤상원은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던 중에 장렬하게 산화했다. 광주의 소식을 전해들은 박관현은 홀로 살아남았다는,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당국에게 체포될 수는 없었다. 수사당국은 이미 그가 체포될 경우에 대비, 시나리오를 작성해둔 상황이었다. 어처구니 없게도, 수사당국에 따르면 박관현은 김상윤과 정동년이 김대중에게 받은 돈을 전달받아 총학생회 선거를 치르고 5.18을 준비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 결국 박관현은 수배를 피해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1980년 6월 초순 경에는 서울로 도피처를 옮겼고, 1981년 9월까지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위치한 이모집 다락방에 숨어 살았다.

1981년 9월, 박관현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화랑섬유' 공장에 위장취업했다. 그는 1982년 4월까지 그곳에서 일했다. 4월 5일, 관현이 공장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TV에 광주항쟁 수배자의 면면과 현상금이 보도되었다. 그는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다. 이날, 관현의 얼굴을 알아본 동료 노동자 최행락과 이순분이 경찰서를 찾아갔다. 잠시 후, 공장에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박관현은 순순히 본인의 정체를 인정했다. 박관현은 광주교도소로 압송되었고, 그곳에서 신영일, 임낙평과 재회했다.

1982년 5월 4일, 박관현은 내란예비음모, 계엄포고령 위반 등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다. 그는 그해 8월 말부터 부림, 학림 사건 관련자들의 고문 피해에 항의하며 '교도소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1980년 9월 7일, 박관현은 10여 일간 단식을 이어가던 와중에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굴하지 않고 교도소 처우 개선과 5.18 민중항쟁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40여 일간 단식을 이어갔다. 1982년 10월 10일, 단식을 이어가던 박관현은 가슴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그는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0월 12일 새벽 세상을 떠났다. 이 소식은 삼시간에 광주 전역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이 전남대 병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놀란 당국은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시신을 탈취, 강제로 부검을 실시한 후 고향인 영광으로 보냈다. 박관현은 5년 후인 1987년에야 망월동 묘역에 묻힐 수 있었다. 훗날, 그의 정신을 기려,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정문에서 본관으로 이어지는 가로수길을 지금도 '관현로'라고 부르고 있다.

<박관현 약력>

1953.06.10 출생

1973.01. 광주고등학교 졸업

1978.03 전남대학교 법학과 입학

1980.05.14 ~ 16. 민족민주화성회 주도

1982.04.08 도피생활 중 체포

1982.05.04 징역 10년형 구형

1982.09.07 1심에서 징역 5년형 선고

1982.10.12 40여 일에 걸친 단식투쟁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들불열사 신영일>



(1958년 10월 8일 ~ 1988년 5월 9일)

1. 전남대학교 학생운동의 선구자

신영일은 1958년 10월 8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면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공부도 곧 잘 해서 당대 지역 명문으로 유명했던 광주제일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훗날 들불야학을 함께하는 전용호를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3년 간 내리 같은 반이 되었고, 함께 재미있는 학창시절을 보낸다. 전용호의 회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조나단'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커피숍을 빌려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고 한다. 통기타와 담배, 막걸리와 함께한 학창시절이었다. 1977년 3월, 신영일은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국사교육과(현 역사교육과)에 입학했다. 그는 신입생 시절 직접 노래를 만들어 통기타를 들고 대학가 요제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일에 관심이 적었던 것은 아니었다. 신영일은 전남대에 입학한 직후 광주일고 이념서클 '피닉스' 출신들이 전남대학교에 만든 사회과학서클 '독서잔디'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그는 여러 사회과학 서적들을 읽으며 사회에 대한 고민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1978년 6월 27일, 전남대 교수 11명의 서명이 포함된 성명서 한 장이 광주를 뒤흔들었다. 그해, 전남대 교수들은 박정희 유신독재가 내세운 '국민교육헌장'에 맞서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 박정희 정권을 정면 비판했다. 다음날 교수들은 전원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갔다. 이 소식을 들은 전남대 재학생들은 분노하였고, 곧 중앙도서관 앞 뜰에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중앙도서관을 점거하고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다. 1978년 6월 29일, 신영일은 같은 국사교육과 재학생이었던 박기순, 문승훈과 함께 캠퍼스를 넘어 거리로 진출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전남대 정문에 모인 학생들과 함께 계림동 녹두서점까지 행진하며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이 시위에서 광주 운동사상 처음으로 '헤쳐 모여' 전술이 등장한다. 이들은 시위가 경찰의 봉쇄에 의해 막힐 경우에 대비, 차기 집결 장소를 사전에 공지했다. 총장로 진출에 실패하면 1시에 한국은행 앞에서, 4시에 조선대 정문에서 집결하자는게 이들의 전술이었다. 시위는 성공적으로 조선대 정문까지 진행되었다. 경찰들은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다른 곳에서 등장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에 경악했다. 서슬퍼런 유신시대에 가두

행진이 광주 전역을 뒤흔든 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일이었다.

6.29 사건 직후, 문승훈 등 18명은 구속되었고, 신영일, 박기순 등 10명은 전남대학교에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2. 들불야학에 합류하다

6.29 사건으로 제적된 전남대 학생운동가들은 굴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갔다. 박기순이 앞장서서 광주 공단에 노동야학 '들불야학'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고, 곧 신영일에게 1기 강학으로 들불야학에 합류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영일은 들불야학 1기 강학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78년 12월에는 '광주공단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일에도 함께했다. 광주 지역 경찰들도 신영일을 요주의 인물로 여기고 감시했다.

1979년 10월 17일, 들불야학 2기 강학인 고희숙이 친구 박유순과 함께 전남대학교 상담지도관실에 불을 질렀다. 상담지도관실은 군부독재가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각 학교에 설치한 감시기구였다. 10월 17일은 유신헌법 선포 기념일이었다. 두 사람은 유신체제의 최후적 발악에 광주도 침묵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찰들은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 평소 마크하고 있던 활동가들이 차례로 구속되었다. 신영일도 배후 인물로 몰려 체포되었고, 전남도경 대공본실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다. 해당 사건은 실제로 고희숙과 박유순 두 사람이 일으킨 사건이었으나, 가부장제에 물들어있던 경찰들은 배후 조종자가 있을 것이라 여겼다. 신영일이 경찰서에서 1주일이 넘는 시간을 보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됨에 따라, 18년에 걸친 박정희 유신독재는 허탈하게 막을 내렸다. 경찰들은 태도를 급히 수정했고, 구속된 이들 중 몇사람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나머지는 재판에도 회부되지 않고 석방되었다.

3. 9·29 사건을 주동하다

박정희 사후,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 것처럼 보였다. 노동조합과 총학생회가 각지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군부는 다시금 반란을 일으켰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 군대를 보냈다. 활동가들은 살아남아 후일을 도모해야 했다. 언젠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는 우선 운동 역량을 남겨야 했던 것이다. 신영일은 마지막까지 광주에 남지 못했다. 그는 다만 본인이 목격한 5.18 초기 광주의 모습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그가 남긴 기록은 서울 학원사태 배후조종 혐의로 지명 수배중이던 소준섭에게 전달되었고, 팸플릿 '광주백서'에 실렸다. 이는 훗날 신영일 절친이었던 전용호가 이재의와 함께 기록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로 이어졌다.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점령했다. 신영일과 함께 들불야학에서 활동했던 윤상원과 박용준은 그날 새벽 계엄군에 의해 세상을 떠났다. 김영철은 총탄 파편을 맞은 채로 상무대로 끌려갔다. 박효선과 박관현은 쫓기는 몸이 되었다. 신영일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느꼈다. 그리고 한동안 대한민국은 침묵에 휩싸였다. 시민들을 학살한 자가 스스로 대통령이 되었고, 언론인들도 지식인들도 학생들도 입을 다물어야 했다. 1년이 지나고도 광주의 오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던 서슬퍼런 시절이

었다.

1981년 여름, 전남대 재학생 신영일, 임낙평, 이광호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학내에서 시위를 주도할 작정이었다. 사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 1주년을 맞이하는 1981년 5월 18일에 시위를 진행할 작정이었으나, 계엄을 방불케하는 삼엄한 경비에 시위를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이들은 5.18 1주년을 기리는 시위를 9월을 한참 넘긴 시점인 9월 29일에야 진행하게 되었다. 1981년 9월 29일, 신영일, 임낙평, 이광호 세 사람은 '반제·반파쇼 민족해방 학우 투쟁 선언문'을 가슴에 숨기고 전남대 1학생회관에 위치한 식당으로 갔다. 다른 곳에서는 시위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고 감시도 비교적 느슨한 점심시간의 구내식당을 택한 것이다. 식사를 하는 척하던 신영일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일장 연설을 시작했다. 이들은 준비해온 유인물을 배포했고 학생들에게 시위를 하자고 했다. 이들은 전남대 정문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잠시 후 페퍼포그와 함께 경찰들이 달려왔고, 물론 세 사람은 전원 체포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남대학교를 질게 누르고 있던 침묵을 일거에 깨뜨린 사건으로 분위기 전환의 시작점이 된다.

1982년, 구속된 신영일과 임낙평은 감옥에서 박관현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재회한다. 그는 이미 광주 교도소에서 5.18 진상규명과 교도소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었다. 신영일 역시 박관현과 재회한 직후부터 단식투쟁에 합류했고, 40여 일간 지속했다. 박관현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신영일은 충격으로 신경쇠약 증세에 빠졌고, 병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4. 멈추지 않고 사회운동을 지속하다

신영일은 감옥에서 풀려난 후 1년간 투병생활을 했고, 그 직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1984년 광주 ywca에서 전남민주청년협의회가 구성되자, 홍보부장을 맡아 활동했다. 그는 지역을 기반으로한 청년운동을 시작으로 민주화운동을 해야한다고 믿었다. 1986년 3월, 그는 신민당의 직선제 개헌추진 관련 현판식 당시 시위를 주도하여 다시금 수배되었다. 두 달뒤, 1986년 5.3 인천항쟁이 발발하자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헌신적으로 항쟁에 가담했다. 1987년 6월 항쟁 직후 수배가 해제되자 전남민주청년협의회 후신인 전남 민주주의 청년연합에서 부의장을 맡아 활동했다.

5. 과로로 운명하다

이렇듯 신영일은 5.18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활약했다. 먼저 간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그의 희생과 헌신에는 무거운 댓가가 따랐다. 그는 감옥에서 40일 넘는 기간 동안 단식을 했고, 투병생활을 마친 후 일선에서 쉴새 없이 일해왔다.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결국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오던 신영일은 1988년 5월 9일 과로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신영일 약력>

1958.10.08. 출생

1974.03. 광주제일고등학교 입학

1977.03. 전남대학교 국사교육과 입학

1978.06.29. 우리의 교육지표 관련 학생 시위 주도

1981.09.29. 전남대 9.29 사건 주도

1984.11.18. 전남 민주청년협의회 결성 주도

1988.05.09. 과로로 운명

<들불열사 김영철>



(1948년 8월 18일 ~ 1998년 8월 16일)

1. 전쟁과 가난

김영철은 1948년 8월 18일(음력 7월 14일)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출생으로부터 두 달뒤, 그의 고향은 10·19 여순사건의 거센 파고에 휩쓸렸다. 설상가상으로 2년 후인 1950년에는 6·25 전쟁이 발발했다. 김영철은 전쟁통에 아버지를 잃었다. 1953년부터 김영철은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목포모자원에 입소하여 생활했다. 1955년 6월, 이들 가족은 광주에 위치한 인성모자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김영철은 그곳에 있던 수많은 전쟁고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성장했다. 당시 인성모자원에는 훗날 광주 YWCA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게 되는 서경자 원장이 있었다. 김영철은 모자원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에 임했고, 그곳에서 서석초등학교와 광주 서중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제일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광주일고는 당대 호남 최고의 명문으로 손꼽혔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되었다. 광주일고에 진학하기 위해 삼수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2020년 현재 광주일고 출신 국회의원이 42명에 이르며, 특정 고등학교에서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합참의장, 검찰총장 등이 모두 배출되었다는 사실에서 당대 광주일고의 위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그러나 김영철에게는 대학에 진학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주말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했다. 그만큼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의 동창들은 서울에 위치한 대학에 진학하거나, 전남대 혹은 조선대에 진학했으나 영철은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그의 심정은 당시 그가 작성한 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학년 1반 복도에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멀리서 기적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다. 아, 이제 나의 학

창시절도 끝이구나. 언제 생활난이 풀려 대학을 나올 수 있을지…."

1967년 1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영철은 5급 공무원 시험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불과 1년 후인 1968년 지방 5급 행정직 시험에 합격했고,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부푼 마음을 안고 시작한 공무원 생활은 오히려 그에게 깊은 회의감을 주었다. 당대 공무원 사회와 농협의 부패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그는 1년 3개월만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군에 입대했다. 때는 1969년으로 불과 1년 전 박정희 암살을 위해 남파된 김신조 일당이 검거된 1·21 사태로 인해, 당시 군 복무기간은 3년 6개월에 달했다. 김영철은 다행히 국방부 본부 영문 타자병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1972년 11월 30일자로 제대했다. 김영철은 군 제대 이후 4년간 서울에서 밑바닥 생활을 했다. 신문 배달과 청과물 장사를 했으며 건설현장을 전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영철은 이웃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었다. 몇 년간의 고행을 마친 그는 7년간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가고 있던 김순자와 결혼했다. 둘 사이에 곧 아이가 생겨났다. 김영철은 아들에게 '동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광주 광천동시민아파트 A동 216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2. 광천동을 복적이게한 마을운동가

1976년 1월, 김영철은 사실상 어머니와 다르지 않던 서경자 원장의 권유로 제 51차 신용협동조합 지도자교육에 참석했다. 김영철은 그곳에서 의형제의 연을 맺게 되는 박용준을 만나게 된다. 1977년 2월, 영철은 광주 YWCA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얼마 안가 용준과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용준은 갓난아이 때 영아원에 맡겨진 이래 평생을 홀로 살아온 천애고아였다. 이 사실을 알게된 영철은 어머니와 함께 모자원에서 지냈던 본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1977년 11월, 김영철이 박용준에게 본인의 집에서 함께 살 것을 제안했다. 용준은 이를 급구 사양했지만, 영철은 리어카를 끌고 와서 YWCA에 있던 용준의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김영철과 김순자, 박용준 세 사람은 광천동시민아파트 A동 216호에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한동안 행복했다.

1977년, 김영철은 광천동 마을운동에 투신, 전남협동개발단 간사를 맡아 활동했다. 그는 광천동시민아파트를 중심으로한 청년회 총무를 자처했고, 동네 청년들을 설득하여 주기적인 마을 청소를 시작했다. 당시 광천동시민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장실이었다. 공동화장실이 재래식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다. 그가 걱정하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자, 마을 주민들은 점차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영철은 A동 반장으로 선출되었고, 광천동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되었다.

3. 들불야학 생활강학이 되다

1978년 6월, 광주 광천동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전남대 재학생 몇 사람이 광천동 광주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한 노동야학 '들불야학' 설립 준비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그즈음 김영철은 우연히 중·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전남대 학생운동가 김상윤과 재회했다. 당시 김상윤은 들불야학 활동가들을 만나기 위해 광천동에 와있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김상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영철에게 들불야학을 소개시켜 주었다. 들불야학 활동가들은 광천동 주민운동의 대

표자로 여겨졌던 김영철에게 입학식 축사를 부탁했다. 1978년 7월 23일, 김영철은 들불야학 1기 입학식에 참석, 축사를 했다. 이후 김영철과 박용준 두 사람은 각각 생활강학과 특별강학으로 들불야학 강학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김영철은 들불야학에서 윤상원, 박관현, 박효선 등과 친분을 쌓았다. 김영철과 박용준은 주로 광주 총장로에 위치하던 광주 YWCA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윤상원, 박기순 등은 광천동 들불야학에 집중했다. 1980년이 되자 박관현 등은 학교로 돌아가 총학생회 활동을 했다. 윤한봉은 이들 모두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 들불야학은 여러 영역에 걸쳐있는 활동가들이 모이는 거점이기도 했다.

4. 오월, 그날이 오다

1980년 5월까지도 김영철은 광천동을 중심으로한 마을운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나름의 향후 계획까지 수립해둔 상태였다. 그러나 그날은 느닷없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들이닥쳤다. 일요일이던 1980년 5월 18일 금남로는 피로 물들었다. 다음날, 계엄군은 광주 YWCA에 난입했다. 김영철은 항쟁 초기부터 시민들의 대열에 함께했다. 5월 20일에는 중앙교회 인근에서 날아드는 돌에 어깨를 맞아 부상을 입었다. 광주는 이전과 달랐다. 5월 21일,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금남로에 집결했다. 당혹한 계엄군은 시민들을 향해 M-16 자동소총을 난사하고는, 광주를 빠져나가버렸다. 그들은 광주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광주는 외로운 섬이 되었다.

그러나 군부가 바라마지 않았을 치안의 부재, 약탈, 방화와 같은 일은 해방 광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시민들은 서로가 가진 것들을 나누었고, 함께 거리를 청소했다. 들불야학 팀은 유인물 투사회보를 배포했으며, 시민권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5월 23일, 제 1차 민주수호 범시민권기대회가 전남도청 앞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는 윤상원, 이양현, 김영철, 박효선, 김태종 등이 녹두서점에 모여 기획한 집회였다. 김태종이 집회 사회를 맡았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 각 계층 대표자 발언, 모금 등이 차례로 이루어졌다. 김영철은 노동자 대표로 마이크를 잡았다. 5월 25일, 김영철은 새롭게 구성된 도청항쟁지도부에서 시민군 기획실장을 맡게 된다.

1980년 5월 26일, 시민들에게 다음날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날 열린 권기대회에 모인 시민들은 각자의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김영철은 도청에 남는 길을 선택했다. 그와 함께 많은 시민들이 전남도청, YMCA, YWCA, 전일빌딩 등에 남았다. 곧 이 땅의 역사에서 가장 긴 새벽이 시작되었다.

1980년 5월 27일, 김영철은 전남도청 2층 민원실에 있었다. 그 자리에는 윤상원, 이양현, 윤석루, 이재호 등이 함께 있었다. 새벽 3시를 넘어선 시점부터 마지막 방송이 진행되었다. 절절한 호소가 새벽의 공기를 가득 메웠다. 이양현은 사회과학 공부를 할 당시에 읽었던 '역사란 무엇인가'를 되새기며 긴 밤을 보내고 있었다. 김영철은 아마 곧 태어날 둘째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아내 김순자는 당시 임신 7개월의 몸이었다. 이윽고 30분 동안 이어진 마지막 방송이 끝났다. 광주는 다시금 적막에 휩싸였다. 방송이 끝났음을 확인한 이양현 시민군 기획위원이 도청 전기를 내렸다. 잠시 후 3공수여단 선봉대가 도청 후문을 박차고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곧 도청 민원실 입구에 도달했다. 수류탄이 날

아왔고, 민원실에 M-16 총탄이 쏟아졌다. 군인들의 난사 직후 윤상원이 오른쪽 배를 움켜쥔 채 쓰러졌다. 김영철과 이양현이 부축했지만, 윤상원은 김영철에게 '형님 틀린 것 같소'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김영철은 윤상원을 바닥에 고이 안치한 후 카빈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계엄군이 쏜 총탄 파편에 다리를 맞고 쓰러졌다. 10일 간 이어진 광주시민들의 위대한 항쟁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5. 상실과 고통, 트라우마와 후유증

체포된 김영철은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갔다. 그는 그곳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의형제로서 함께 살아왔던 박용준이 마지막까지 YWCA를 지키던 중 반란 군인들의 총탄에 의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김영철은 상무대 영창 5소대로 끌려갔다. 영창장을 맡고 있던 박춘배 중사는 "너희들은 상부에서 죽여버려도 괜찮다"고 했으며 조사에 협력하라고 겁박했다. 곧 김영철이 시민군 기획실장을 맡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날 밤, 김영철은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벽에 머리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헌병들이 달려와 김영철을 마구 구타하더니, 곡괭이 자루까지 들고와 쉴새 없이 때리고는 포승줄로 결박하여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시켰다.

1980년 10월 25일, 김영철은 계엄보통군법회의 선고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계엄고등군법회의 선고에서는 형량이 7년으로 줄었다. 그는 최후진술을 하라는 재판장의 말을 듣고 외쳤다.

"위대한 광주시민 만세…!"



1980년 9월, 광주 전투교육사령부 군사법정, 7번 피고인 김영철

1981년 3월 31일, 김영철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고, 그해 성탄절 특사로 석방됐다. 그러나 1980년 5월 27일 이후 김영철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그는 횡설수설을 하거나 몸부림을 치는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검사결과 우측 뇌에 뇌수종이 있어 수술을 받았고, 이후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주 정신병원, 영광 신하기독병원, 조선대 병원 등을 전전하며 장기간 투병생활을 했다. 정신이상 증세가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그는 사방에 머리를 짚었고, 자주 울부짚었다.

1998년 7월 22일, 김영철은 영광 신하기독병원 정신과에 입원한 상태였다. 이날, 그는 그곳에서 간식으로 나온 빵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질식으로 쓰러졌다. 8월 16일, 김영철은 조선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세상을 떠났다.

<김영철 약력>

1948.08.18. 출생

1953. 목포모자원 입소

1967.01.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1968. 지방 5급 행정직 시험 합격

1978.07. 생활강학으로 들불야학 합류

1980.05.27. 5.18 민중항쟁 참여

1981.03.31.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 확정

1998.08.16. 투병생활 중 운명

<들불열사 박효선>



(1954년 10월 13일 ~ 1998년 9월 10일)

1. 연극에 몰두한 대학생

박효선은 1954년 10월 13일 전라남도 광주시 동명동(현 광주 동구 동명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무난한 학창시절을 보낸 후 1973년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에게는 연극과 예술에 남다른 재능과 관심이 있었다. 박효선은 대학 입학 직후부터 전남대 연극반에서 활동했다. 1970년대 중반 광주에는 황석영 작가가 있었다. 박효선은 운암동에 위치하던 황석영 작가 자택에 자주 왕래했으며 지역 문화운동가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했다. 박효선은 1978년을 기점으로 본인의 예술적 소양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1978년은 광주 지역 사회운동가들에게 상당히 큰 의미를 남긴 한 해였다. 몇 해 전 함평군 농협이 고구마 수매 약속을 지키지 않아 농민들이 막심한 손해를 보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1978년 4월, 농민들과 활동가들이 단식을 비롯한 맹렬한 투쟁을 전개했고 그 결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쟁취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해, 박효선은 마당극 '함평 고구마'를 통해 함평 고구마 사건을 기렸다. 마당극은 무대와 관객의 적극적인 소통을 특징으로 하는 연극 양식으로,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광주·전남 사회운동을 주도하던 윤한봉은 1979년에 박효선의 마당극 '함평 고구마'를 관람했던 경험을 이렇게 회고한다.

"이 친구(박효선)를 1979년에 만났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문화운동을 하는 친구들을 싫어했어요. 막말로 북치고 장구쳐서 어떻게 독재정권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과격한 논리를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와 논쟁을 많이 했죠. 하지만 이 친구는 저변을 확대하는데 문화만큼 훌륭한 도구가 없다, 그렇게 반론했어요. 그러던 중에 '함평 고구마' 공연을 봤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농민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연설이나 유인물 몇 장으로는 도저히 이런 반응을 얻을 수가 없겠구나. 그때부터 문화운동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죠"

박효선의 실력은 점차 지역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978년 12월 24일, 광주 광천동성당 크리스마스 행사 무대에 '들불야학'팀이 등장했다. 들불야학은 광주 광천동 광주공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한 노동야학이었다. 이날 이들은 무대에 올라 박효선이 만든 연극 '우리들을 보라'를 단체로 공연했다. 광주공단에서 일하는 어느 노동자가 노동청의 무능과 사업주의 횡포를 마주하는 내용이었다. 임금체불과 노동청의 무책임함은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다. 1979년, 박효선은 3기 특별강학으로 들불야학에 합류하게 되었고, '문화' 강학으로 활약했다. 그는 곧 윤상원, 박용준, 김영철, 신영일, 임낙평, 전용호 등과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1979년, 윤한봉이 장동로터리 인근에 현대문화연구소를 설립했다. 물론 말이 연구소였지, 사실상 사회운동가들의 거점이었다. 윤한봉은 사재를 털어 풍물 놀이를 마련한 후 박효선에게 이곳을 거점으로 문화활동을 해보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박효선은 윤한봉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고, 극단 '광대' 창립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박효선은 대학을 졸업한 후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연극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직장을 그만두었다. 극단 광대는 1980년 1월에 창립되었으며 3월에는 광주 YMCA에서 박효선이 집필한 마당극 '돼지풀이' 공연을 진행했다.

2. 광주항쟁의 파도 앞에서

1980년 5월 18일, 박효선은 임낙평과 함께 윤상원의 자취방에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윤상원이 라디오에서 들었다며 '계엄령 전국확대' 소식을 전해주었다. 당시 박효선에게는 두 가지 계획이 있었다. 본인만의 소극장 '동리소극장'을 건립하는 것, 그리고 황석영의 소설 '한씨연대기'를 연극으로 연출하는 것이었다. 박효선은 두 가지 모두 어려워질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박효선은 군인들이 무죄한 시민들을 끝까지 쫓아가 구타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분노한 박효선은 극단 광대 단원들과 함께 광주항쟁에 뛰어들었다. 광주 전역이 들끓고 있었다. 1980년 5월 21일에는 광주시민 10만명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그날, 계엄군은 시민들을 향해 M-16 자동소총을 난사했고, 광주를 빠져나갔다. 그들은 광주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광주는 외로운 섬이 되었다.

그러나 군부가 바라마지 않았을 치안의 부재, 약탈, 방화와 같은 일은 해방광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시민들은 서로가 가진 것들을 나누었고, 함께 거리를 청소했다. 들불야학 활동가들도 유인물 제작·배포를 비롯한 각자의 역할을 정했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군인들이 빠져나간 이후부터, 시민들은 매일 전남도청 앞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었다. 5월 23일, 광주 시민들이 제 1차 민주수호 범시민결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는 박효선이 김태중, 이양현, 윤상원 등과 함께 녹두서점에 모여 기획한 집회였다. 박효선은 재능을 살려 행사의 전반적인 진행과 퍼포먼스 등을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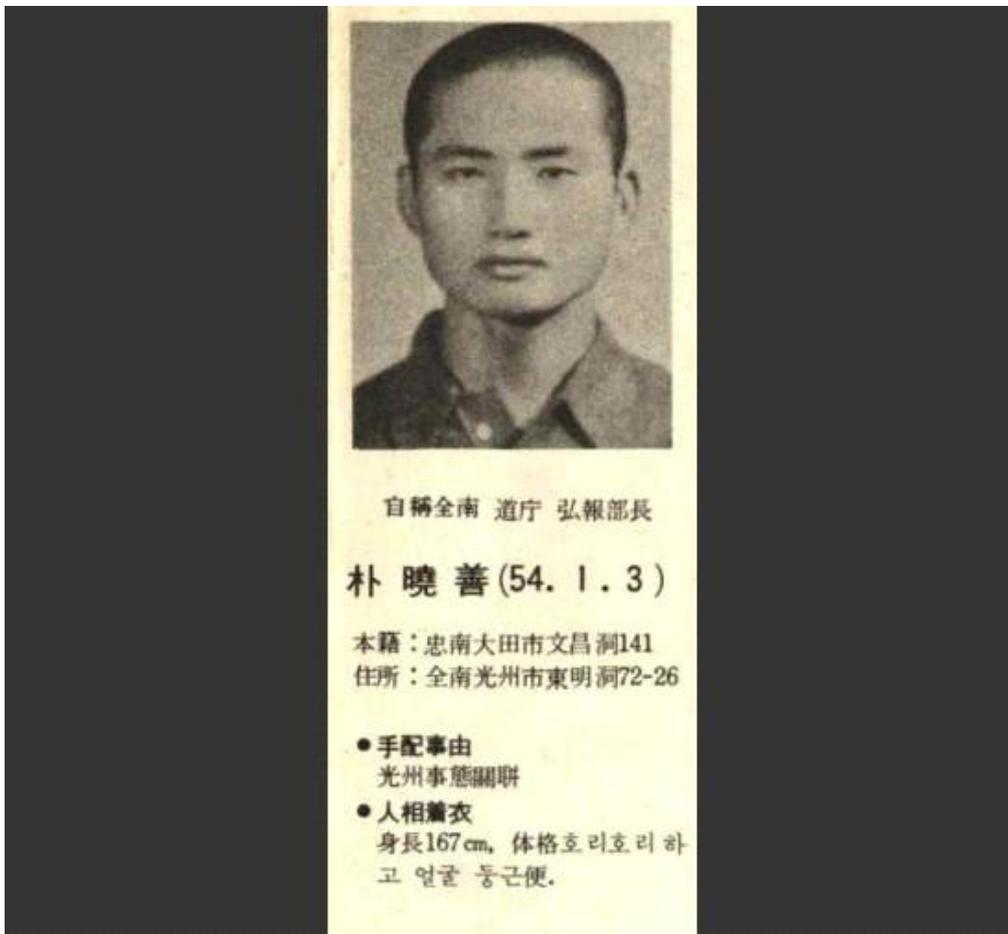
1980년 5월 25일, 마지막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 광주 지역 활동가들이 학생수습대책위원회를 민주투쟁위원회로 개편했다. 박효선은 도청항쟁지도부 홍보부장을 맡았다. 그러나 항쟁은 점차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계엄군의 광주 재진입은 이미 확정 사실이었다. 다음날인 5월 26일에도 분수대를 중심으로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민을 이어가고 있었다.

1980년 5월 27일, 박효선은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 도청과 YWCA에는 지난 시절을 함께

보냈던 윤상원, 박용준, 김영철이 있었다. 그러나 광주 YMCA에 있던 효선은 끝까지 그곳에 남아있지 못했다. 물론 그날 새벽 도청에 남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의무가 아니었으나, 그날 이후 살아남았다는 죄악감이 죽음의 순간까지 박효선을 괴롭혔다. 그는 '자백'이라는 글에서 당시 상황을 털어놓았다.

"거역할 수 없는 진실은, 내가 5월 광주로부터 도피했다는 것이다. 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야심한 밤 숨막힐 듯한 정적 속에 총을 든 채로 도청 부근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고불고불한 골목길 달 그림자 속에 몸을 감추며 집으로 향했다.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총소리는 점점 시내 외곽에서 중심가 쪽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도청이 가까운 우리 집 지붕 위로 총탄이 날고 튀는 소리가 새벽녘까지 이어졌다. 난 뒷 골방 속에 숨어서 그 총소리가 멈출 때까지 오들오들 떨며 앉아 있었다. 문득 도청 쪽에서 하늘 높이 조명탄 한 발이 길게 솟아올랐다. 난 어쩌면 살인자다. 그날 도청전투에서 상원 형이 죽었고 용준이도 M-16에 맞아 죽었다." - <박효선 전집3 - 황광우 역음, 연극과 인간>

3. 살아남은 자의 슬픔



박효선 지명수배서 '자칭 전남도청 홍보부장' 글귀가 선명하다

그날 이후 박효선은 쫓기는 몸이 되었다. 그는 서울로 올라가서 도피처를 찾아 밤동네를 전전했다. 한동안은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위치하던 노동운동가 김지선의 자취방에 머물렀고, 황석영의 누나 황선희나 소설가 홍희담과 윤성모, 정찬주 등의 집에서도 머물렀다. 그즈음 박효선은 윤한봉과

재회했다. 1970년대 광주지역 사회운동의 주도자였던 윤한봉 역시 서울에서 도피처를 전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주변의 권유로 독일 대사관 망명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결행을 앞두고 박효선이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움직여보기로 했다. 1981년 12월, 5·18 관련자들이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전원 석방되었다. 1982년 초, 박효선은 20여 개월간 이어진 도피 생활을 멈추고 자수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자유의 몸이 된 효선은 가장 먼저 망월동 묘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의 동지였던 박기순, 윤상원, 박용준이 묻혀있었다. 이어 그는 항쟁 이후 정신이상 증세로 괴로워하던 김영철을 찾아갔다. 다음날, 박효선은 일기를 썼다.

"어제 저녁에 광천동 영철형 댁에 갔다. 나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살아남은 자가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을까?"

4. 평생을 도청항쟁지도부 홍보부장으로 살다

1983년 11월 22일, 극단 '토박이'가 창단되었다. 박효선이 전남대 연극반 출신들을 중심으로 함께할 사람들을 규합했다. 사실상 오월항쟁을 중점에 둔 극단이었다. 몇 년의 시간을 거치며 토박이는 점차 전문화되었고, 1987년에는 전문 극단으로서의 첫 작품 '산국'을 발표했다. 박효선은 이때부터 10년여간 광주를 알리는 연극 10여 편을 연출했고, 20여 편의 연극 대본을 남겼다. 특히 극단 토박이가 1988년 제 1회 민족극한마당에서 발표한 <금희의 오월>은 그야말로 대박을 쳤고, 전국 순회공연으로 이어졌다. 1989년, 극단 토박이는 마침내 자체 소극장인 '민들레 소극장'을 광주 북구 신안동에 마련할 수 있었다.

1989년 2월, 국회에서 5공 청문회가 열렸다. 박효선 역시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는 연극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했지만, 같은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연극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1993년, 극단 토박이가 <모란꽃>을 발표했다. 모란꽃은 5.18 당시 가두방송을 진행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했다. 1994년, 극단 토박이가 '모란꽃'에 대한 순회공연을 미국과 캐나다 7개 도시에서 진행했다. 동포 사회가 모란꽃에 주목했으며, 어떤 공연은 3,200명이 관람했다. 1995년에는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가 발표되었다. 1996년에는 미국에서 진행된 5.18 16주년 기념행사에서 '금희의 오월' 공연이 진행되었다.

1996년, 박효선은 광주 MBC와 함께 다큐 드라마 '시민군 윤상원'을 제작했고, 1997년에는 윤한봉에 대한 다큐멘터리 '밀항탈출'을 제작했다. 그해, 극단 토박이는 김영철 열사 가족을 주인공으로 한 연극 <청실홍실>을 발표했다. 이렇듯 박효선은 오월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도청항쟁지도부 홍보부장의 역할을 수행했다.



1998년 5월, 박효선이 취재진과 함께 김영철을 찾았다. 그러나 김영철은 박효선의 이름을 기억해내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박효선 : 나도 이름 끝 자가 선 자인데.

김영철 : 박효선?

..

김영철 : (본인을 손가락으로 누르며) 시민학생수습대책위원회 기획실장 김영철

박효선 : 박효선이는?

김영철 : 집에 가버렸지

두 사람의 대화는 2004년 5월에 KBS가 방영한 '인물현대사 - 오월 광대 박효선'에 실렸다. 제대로된 판단을 잃어버린 김영철의 발언에는 그 어떤 의도도 없었지만, 이것은 박효선이 평생에 걸쳐 스스로 마주해야 했던 질문이었다. 그즈음 박효선은 오월 비디오 영화 '레드 브릭'을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쏟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너무 무리한 삶을 살아서 일까. 1998년 7월, 박효선은 전남대 병원에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그해 8월 16일, 오월 그날 이후 지속적인 정신이상 증세로 괴로워하던 김영철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후 박효선의 상태는 투병 2개월 만에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광주 고백교회 김성룡 목사가 임종예배를 집전했다. 1998년 9월 10일, 박효선은 "목사님 5월 그날 이후 저는 단 한시도 마음 편안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영원히 5.18 시민군 홍보 부장으로 기억될 문화운동가 박효선은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되었다.

<박효선 약력>

1954.10.13. 출생

1973.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입학

1978. 마당극 '함평 고구마' 연출

1979. 들불야학에 3기 문화강학으로 합류

1980.01. 극단 '광대' 창립

1980.05. 시민군 홍보부장으로 5·18 참여

1983.11. 극단 '토박이' 창립

1988. 연극 '금희의 오월' 발표

1993. 연극 '모란꽃' 발표

1994. '모란꽃'으로 민족예술상 수상

1998.09.10. 간암 투병 중 영면

<들불열사기념사업회>

엄혹했던 1970년대 후반, 광주에는 노동자들과 함께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자 했던 '들불야학'이 있었다. 1980년, '들불야학'은 5·18 민중항쟁이라는 거센 파도에 휩쓸렸고, 강학으로 활동했던 이들 7명 (박기순·윤상원·박용준·박관현·신영일·김영철·박효선)이 5·18을 전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에 지난 2002년, 살아남은 사람들이 들불야학 일곱 열사를 기리는 영구불망(永久不忘)의 기념비를 광주 서구 치평동 5·18 자유공원 앞 공터에 건립했다.



"칠흑 어둠 속에서 별은 빛나고 흑한을 지나 들꽃은 피어 납니다.
다만 지극히 낮고 뜨거운 열정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타올라 영원한 들불 한 점, 밝은 별은 노동자와 민중의 가슴에 깃들어
모든 억압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벗이 되었습니다.
삼가 세상의 순결한 것들의 이름을 빌어
아름답고 고귀한 님들의 자취를 여기에 세웁니다."

- 임오년 오월 들불열사기념사업회 -